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KOICA 사업모델 발굴

2014. 05.

KOICA

저자

▶ 연구책임자

김 남 조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교수(현)
-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현)
- 관광학연구 편집위원장(현)
-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조사연구 책임연구원(전)
- 교통개발연구원 관광연구실 연구원(전)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관광학 박사

▶ 연구원

김 현 정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박사수료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관광경영 석사
- 현대도시개발 사업계획 직원(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전)

안 지 현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박사수료
-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마케팅 G-MBA
- 입소스코리아 마케팅리서치 연구원(전)
- 메리어트호텔(MEA&Courtyard Timesquare) 클러스터 레비뉴 애널리스트(전)
- 넥스페어 전시컨벤션기획 · 운영팀 대리(전)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객실팀 GRO(전)

▶ 자문위원

이 태 주

-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원장(현)
- 한성대 문화인류학 교수(현)
- ODA Watch 대표(현)
- 외교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현)
- 국제개발협력학회 부회장(현)
-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현)

신 용 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현)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전)
- Unesco Bangkok IMPACT Project Board Member(전)
- University of Waterloo, PhD.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제 1회 연구공모제를 통해 수행한 연구
보고서로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 요약 / viii

Abstract / x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관광과 빈곤퇴치	7
제1절 관광의 영역	7
1. 관광의 정의	7
2. 관광산업의 중요성	8
3. 관광산업의 특징	11
4. 지속가능한 관광과 새로운 트렌드관광	14
제2절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	42
1. 관광의 경제적 효과 및 역할	42
2.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 및 역할	45
3. 관광의 환경적 효과 및 역할	4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8
1. 사회·지역개발학적 접근	48
2. 경제·경영학적 접근	49
3. 범분야(인권) 연구	50
4. 정책·공공협력 분야 연구	51
5. 환경적 접근	52

제3장 주요 관광지원사업 원조기관 사례분석	53
제1절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53
1. 기관의 개요	53
2. 대표사례	55
제2절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	62
1. 기관개요	62
2. 관광개발 사업부문	63
3. 대표사례	66
제3절 기관사례를 통한 시사점	72
 제4장 관광부문 ODA사업적용 타당성 평가항목 도출	74
제1절 OECD DAC의 평가기준	74
제2절 초기 델파이 항목도출	78
1. 적절성	78
2. 효율성	81
3. 효과성	81
4. 영향력	84
5. 지속가능성	85
 제5장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 도출	86
제1절 델파이 분석	86
1. 델파이 분석 기법	86
2. 패널 선정	87
3. 조사도구	88
4. 자료수집 및 분석	89
5. 분석결과	89
제2절 현지조사	104
1. 연구내용 및 방법	104
2. 연구지역 선정	104

3.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105
4. 연구문제 및 분석틀	106
5. 연구의 엄정성	108
6. 현지조사 결과	109
제3절 지표의 활용	125
1.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최종 지표	125
2. 지표의 활용 예시	129
 제6장 KOICA 관광 ODA사업모델 발굴	136
제1절 관광 ODA사업의 스펙트럼	136
제2절 관광 ODA 사업모델 발굴	138
1. 관광매력물 ODA 사업	138
2. 관광편의서비스 ODA 사업	141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ODA 사업	146
4. 관광교통 ODA 사업	148
5.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	151
6. 관광지원정책 ODA 사업	153
 제7장 결론	157
제1절 결론 및 제언	157
 참고문헌	161
 부록	
부록1. 1차 델파이 조사지	169
부록2. 2차 델파이 조사지	176
부록3. 항목제거 전 2차 델파이 분석결과	187
부록4. 잠재적인 관광 ODA 사업 추진기관 리스트	192

표 차례

<표 1> 국제 여행자 수	10
<표 2> 지속가능한 관광과 대중관광	16
<표 3>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준	20
<표 4>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에 관한 논의 내용	25
<표 5> PPT 전략의 세 가지 유형	31
<표 6> 농산촌 체험활동	40
<표 7>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 전략	44
<표 8>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	46
<표 9> 관광의 환경적 효과	47
<표 10> JICA의 관광분야 주요 프로젝트	54
<표 11> 가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개발 사업의 개요	55
<표 12> 그랜드 이집트의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 사업의 개요	58
<표 13> 스리랑카 관광자원개선 프로젝트 사업의 개요	60
<표 14> 스리랑카 관광자원개선 사업의 평가지표	61
<표 15> NZAID 관광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	63
<표 16> NZAID의 관광개발 사업부문 핵심 지원유형	63
<표 17> NZAID 2002~2010년 관광개발 관련 자금지원 현황	64
<표 18> 2011~최근 NZAID지원 관광사업	65
<표 19> NZAID Nam Ha Eco-tourism 자금지원 현황	67
<표 20> OECD DAC 평가기준	75
<표 21> 적절성 평가요인	78
<표 22> 효율성 평가요인	81
<표 23> 효과성 평가요인	82
<표 24> 영향력 평가요인	84
<표 25> 지속가능성 평가요인	85

<표 26> 델파이 기법 단계	87
<표 27> 패널 집단별 선정기준 및 최종 응답 인원수	87
<표 28> 델파이 조사도구	88
<표 29> 전문가 패널의 특성	90
<표 30> 적절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91
<표 31> 효율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92
<표 32> 효과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93
<표 33> 영향력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94
<표 34> 지속가능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95
<표 35> 델파이 1차조사 결과 반영 사항	96
<표 36> 적절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98
<표 37> 효율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100
<표 38> 효과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101
<표 39> 영향력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102
<표 40> 지속가능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103
<표 41> 인터뷰 대상자 및 주요 답사지역	105
<표 42>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	126
<표 43> 관광 ODA 사업선정지표 개발 관련 참고자료(설문응답지)	129
<표 44>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_현지사무소용	133
<표 45> 관광구성요소와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잠재적 관광ODA사업	155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그림 2] 불런투어리즘의 개념도	34
[그림 3] 생태가이드 서비스 수입의 분배	70
[그림 4] Laos 1990~2012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71
[그림 5] 초기 텔파이 항목 도출 과정	77
[그림 6] 평가기준 영역별 평균값 비교	97
[그림 7] 연구 분석 틀	108
[그림 8] 보전-개발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따른 잠재적 관광ODA스펙트럼	137
[그림 9] 에코 투어리즘 코스개발	139
[그림 10] 수공예품과 관광상품 연계 판매	139
[그림 11] 하롱베이 전경	140
[그림 12] 사해 파노라마 콤플렉스	141
[그림 13] 요르단 국립박물관	141
[그림 14] 나미비아 지역주민 장신구 기념품 제작 훈련	142
[그림 15] 스리랑카 관광학교 및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진	142
[그림 16] 네팔의 쓰리시스터즈 어드벤처 트레킹	143
[그림 17] 화장실 조성사업	144
[그림 18] 마을기반 관광개발 전통 홈스테이 조성	144
[그림 19] Fez central bazaar 의 전경	145
[그림 20] 투시타 호텔	145
[그림 21] 나미비아 관광홍보 웹사이트	147
[그림 22] 탄자니아 Pangani-Saadani 관광정보센터	147
[그림 23] 펠버른 종합안내센터	148
[그림 24] 톤레삽 호수가 교통수단 보트	149
[그림 25]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1	150

[그림 26]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2	150
[그림 27]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프로젝트 계획안	151
[그림 28] 프로젝트 발주식	151
[그림 29] 캄보디아 CBT & 에코투어 사례탐방1	152
[그림 30] 캄보디아 CBT & 에코투어 사례탐방2	152
[그림 31] 태국의 치앙마이 코끼리 자연공원 자원봉사관광1	153
[그림 32] 태국의 치앙마이 코끼리 자연공원 자원봉사관광2	153
[그림 33] 관광관련 종사자 양성교육의 예	153
[그림 34] 호텔종사자 양성교육의 예	153
[그림 35] 몽골 식량농업부장관, 축산위생 검역능력 제고 사업 성공적 수행 표창	154
[그림 36] 국가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관광기관 지원	155
[그림 37]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지원에 대한 교육실시	155

<국문요약>

관광은 세계 최빈국 50개국과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적인 개발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적인 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관광-빈곤퇴치(ST-EP) 프로그램, 친빈곤관광(Pro-Poor Tourism: PPT)과 같은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착수함으로써 빈곤퇴치를 포함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UNWTO ST-EP재단,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기관들이 개도국의 관광관련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빈곤과 관광에 대한 이슈의 복잡성과 정보 및 통합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와 유형이 매우 제한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관광은 본래 개발과 보전,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망라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관광은 다양한 분야와 상호교류가 가능하고, 관광공급자인 관광사업체와 관광수요자인 관광객과의 이해와 교류가 동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자 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가 있는 관광지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관광객까지도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변화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관광분야의 ODA 사업은 타 분야와는 달리 관광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의 초기단계인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관광의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선정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관광 ODA 사업은 원조사업 분류에서 산업에너지에 분류되어 관광만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 오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관광 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관광 ODA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 ODA 사업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잠재적인 관광 ODA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의 관광분야 ODA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광의 영역과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관광 분야에서 빈곤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관광산업은 전 세계 8.7%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대중관광의 형태를 벗어나 대안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산업은 부를 재분배하고, 쿼터나 관세가 없는 무역장벽이 없는 산업이며, 그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공공재적 가치로 보고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과 빈곤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후방연관효과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반시설을 향상시키고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관광개발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만을 지닌 것은 아니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관광산업은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게는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관광지의 문화,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산업에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및 New Touri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는 생태관광, 공정 관광, 커뮤니티 기반 관광, 친빈곤관광, 슬로우 투어리즘, 자원봉사관광, (소수)민족관광, 저탄소녹색관광, 농촌관광 등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과 빈곤퇴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관광분야의 최근 연구들을 i) 사회·지역개발학적 접근, ii) 경제·경영학적 접근, iii) 범분야(인권) 연구, iv) 정책·공공협력 분야 연구, v) 환경적 접근 등의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특히 빈곤퇴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방법에 있어 수원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통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관광분야 ODA 사업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일본과 뉴질랜드의 원조기관 사례분석을 통해 1차적인 평가지표 항목 도출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JICA와 NZAID의 기관개요, 관광개발 사업부문, 대표 관광 ODA사업 사례를 검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자국 관광산업의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ODA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하드웨어적 사업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해당 지역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안정화하였으며, 때로는 원조국 민·관·학의 참여를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관광개발에 앞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관광 ODA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공요인과 제약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차적인 평가지표 항목초안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OECD/DAC에서 권장하는 ODA사업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큰 틀로, 도출한 1차 항목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구성하였으며, 델파이 조사에 앞서 연구팀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통해 조사도구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ODA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국제개발 담당자 및 관련분야 공무원, 국제개발 및 관광 관련분야 연구원 및 관광 관련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평가기준별 평균값,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내용타당도의 검증과정을 통해 적절성 평가항목 16개, 효율성 평가항목 10개, 효과성 평가항목 13개, 영향력 평가항목 10개,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16개로 구성된 최종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를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된 관광부문 ODA사업선정 평가지표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지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현지의 총체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특성과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 사업선정 평가지표요인들 중 일부가 현지사무소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를 필수평가지표와 선택적용 평가지표로 분류하고, 각각의 ODA 사업에 적합한 항목을 구성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의 현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산업은 캄보디아의 핵심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앙코르왓이 위치한 시엠립 지역이 최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는 점, ODA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하여 사업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사업을 시행할 기관들의 참여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는 향후 관광 ODA 사업이 지역주민 참여 및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고 사업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수행 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되어 정책논의 과정에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향후 KOICA에서 수행할 수 있는 관광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관광 ODA 사업의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스펙트럼을 따라 관광 ODA사업의 유형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자원 개발적인 사업과 자원 보전적인 사업의 특성으로 분류되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양극단으로 관광 ODA 사업은 관광도시, 관광단지, 리조트 등의 하드웨어적이면서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부터 공정관광, 생태관광, 민족관광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이면서 보전 위주의 사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넓은 관광분야 ODA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광매력물, 관광 편의서비스,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교통, 관광객 그리고 관광지원 정책별로 ODA사업의 전략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하여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과 빈곤퇴치를 포괄하는 ‘빈곤퇴치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과 빈곤에 대한 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관광분야 원조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광부문 ODA 사업 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사업 선정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현실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절대빈곤층에 대한 식수, 식량, 에너지 등 기초적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탐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선정지표를 현지사무소, 지역주민 및 ODA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성과정 없이 ODA사업이 선정되고 발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국의 빈곤완화를 위해 최대한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ODA사업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콘텐츠 중심의 관광분야 ODA 사업모델은 효과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 사용되어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이 관광분야 ODA 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ourism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n effective poverty reduction aid, particularly in the world's poorest nations, as it is seen as helping a country stand on its own in order to establish its own financial found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WTO, WTTC, World Bank, and WTO have all tried to contribute to the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cluding antipoverty reduction, by engaging in various development programs in such instances as ST-EP (Sustainable Tourism-Eliminating Poverty) and PPT (Pro-Poor Tourism). On the domestic fron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WTO ST-EP, and KOICA, have all pushed towards the advance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but the scales and types of ODA projects have been relatively restrictive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an integrated understanding, as well as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at hand with respect to poverty and the tourism sector. In fact, tourism can operate in tandem with various industries, as well as providing a wide range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encompassing development, preservation, hardware, software, business, and so forth. Furthermore tourism can be a business. And more of this business phenomenon needs to be combined with understanding and interchange from the tourist service establishment (provider) and the tourist (consumer) to succeed. From this vantage point, aid projects in the tourism sector should be considered in economical, environmental, and socio-cultural aspects, unlike other sectors, having overall project selection indicators in order to consider the preliminary project selection phase in the early stages, due to the multifaceted nature of tourism. Tourism aid projects in Korea however have not until now been selected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ourism, due to the fact that these aid projects are still classified within the 'energy sector' in project classification types of aid thus far. To be able to achieve the success of ODA projects in the tourism area, it is first necessary to create an overall index to evaluate the business proposals for the

selection of tourism aid projects, as well as other ODA projects, in relation to tourism of the recipient country. This study suggests a framework to build a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indicator' in the selecting of tourism aid projects, and to propose a potential business model for tourism ODA project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new possibilities, and alternatives to the current tourism aid projects offered through KOICA for the future.

To do the aforementioned, this study looked into the role tourism takes towards poverty reduc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overall impact, as well as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the literature related to poverty with respect to the tourism sector. The overall results in regard to economical,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its ripple effects, showed that the tourism sector has largely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in many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having a total impact of 8.7% on employment in creating jobs worldwide. Recently the tourism sector has evolved into 'alternative tourism' and 'sustainable tourism' subsections, emerging from its previous collective 'mass tourism.' The tourism industry has the potential to promote wealth re-distribution, superseding trade barriers with no quota tariffs, and to increas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varying domain-based natural resources. Furthermore, tourism can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poor and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workforce, more than any other economical sector; it also provides a 'backward-linkage' effect throughout a regional economy. Benefits can be seen for both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as the local infrastructure is improved and the location is prepared for tourism receptiveness. The impact of tourism however, has inevitably positive and negative gains. Therefore the issue of 'sustainable tourism' and 'new tourism', which are bringing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by minimizing expenses,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s and culture of the local constituency, needs also to be actively discussed. In particular, it is more frequently seen in 'up-and-coming' new tourism research areas, such as 'eco-tourism', 'fair tourism', 'community-based tourism', 'pro-poor

tourism', 'slow tourism', 'volunteer tourism', 'ethnical tourism', 'low carbon green tourism', 'rural tourism', and so on. This study set to examine how recent research uses categorical distinctions based on i) social · regional development approach, ii) economic · management approach, iii) ICT research (human rights), iv) policy and public cooperation research, and lastly, v) environmental approach. The studies covered a wide range of topics, and basically provided the economic opportunity for poverty reduction. As such, emphasis on the need for development strategies, premi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society of the recipient country, provides an integrated understanding in order for it to last environmentally.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appropriate evaluation indicators based on ODA projects and to propose a business model to analyze ODA cases of aid organizations, namely JICA (Japan) and NZAID (New Zealand).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emerged: For both JICA and NZAID, the business sector of tourism development and representative tourism aid projects showed that organizations have expanded their aid projects through the experiences and strengths of the tourism sector. The kinds of businesses varied from hardware businesses to software businesses. The organizations in fact revived the local economy and stabilized their businesses through initiating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local community, and sometimes even strengthening the local community's capacity through private-governmental participa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y took into account the great importance the impact of the business would have on their local culture and environment prior to th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Due to attachment on this importance, how this sustainability was able to be integrated into a long-term business model was considered.

Through this study, factors for success and constraint of tourism aid projects emerged, based on an overall literature review of the area, focusing specifically

on previous case analysis. These factors were used in developing primary items for evaluation criteria of ODA projects. The evaluation criteria followed the 'Five DAC Criteria' conceptual framework recommended by the OECD/DAC: relevance, effectiveness, impact, efficiency, sustainability. Research tools were created by seeking advice from experts in the field, and through consultation with a research team before surveying. A two roun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glean expert opinion on selected items. Collected data went through the entire verification process for the evaluation criteria, including: average mean, standard deviation, inter-quartile range, and content validity. Finally 'aid project selection indicators' for the tourism sector emerged, which consisted of 16 evaluation items for relevance, 13 evaluation items for effectiveness, 10 evaluation items for impact, 10 evaluation items for efficiency, and 16 evaluation items for sustainability.

This study also included a field survey method because evaluation for aid project selection within the tourism sector should be tested through conformity assessment as to whether it can be useful in real practice. We evaluated the conformity of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a field survey and its influence on overall tourism development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e Cambodian field survey results, we divided the aid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indicators into an 'essential evaluation index' and an 'optional evaluation index', and suggest when to use the appropriate content items accordingly to the aid project. It was discovered that a par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are not able to be evaluated in the local office. The field survey indicated the following: Tourism is a key industry in Cambodia, thus local workers generally take a positive view of it. Nevertheless, there were quite a few problems because 'Siem Reap' is the poorest city in Cambodia, despite it being a major tourist destination. This shows that selection criteria on cultural heritage tourism projects are largely being dec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project management authorities have not been involved in this process at all. It further indicates that tourism aid projects

need to be guaranteed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even-distribution in this participation, especially participation in the business selection process with a consortium, including the business execution authorities, related field experts, as well as the community.

We suggest a spectrum of tourism aid projects based on prior future business models for KOICA. According to this spectrum, the type of tourism aid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hardware businesses & software businesses, and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es & resource conservation businesses. As tourism aid projects can encompass both types of division, it can be put into operation in various ways from hardware-oriented businesses, such as a 'tourism city', 'tourism facilities complex', or 'resorts', to software-oriented businesses, such as 'fair tourism', 'eco tourism', 'ethnical tourism', etc. Thus we suggest a strategic direction and detailed business plan, depending on the tourism attraction, tourism amenities, promotion and marketing, transportation, tourist and tourism policies, in order to develop aid projects in the tourism sector. This research shows that in real practice each project can be divided into small, medium, and/or large scale,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type.

This study has extensively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and poverty in terms of 'poverty alleviation tourism,' which is undefined as of yet in terms of a conceptual definition, and to present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indicators' for tourism aid in order to systemize aid project selection in the tourism sector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ever, we want to emphasize that these aid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applied in context, with the reality of the recipient country, rather than rely on the suggested indicators alone,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field prior to beginning such a project. Besides in the tourism industry, various approaches are needed due to its high correlation with other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general support needs to be explored in order to address problems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such as drinking water, food, and power for the absolute poor. In this regard, it is suggested that project selection indicators can be used as a guideline, in conjunction with discussion of the many stakeholders involved, such as the local office, residence, and ODA experts. Through such a process, we expect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select an appropriate aid project for poverty reduction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tourism aid business models’ in the ‘contents-oriented’ tourism sector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enchmark research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business model and aid project selection, thereby contributing to expand to future aid projects, beyond the aid projects currently offered by KOIC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오늘날 빈곤문제의 해결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2010년, 목표일인 2015년까지 5년이 남은 상황에서 국제연합(UN)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행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요청하는 MDG 보고서(2010)를 발표하였다. UN에서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는 i)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퇴치, ii)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iii)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iv) 유아 사망률 감소, v) 임산부 건강 개선, vi) 질병퇴치, vii)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viii)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으로 2015년까지 8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제연합의 관광전문기구인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역시 MDGs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관광-빈곤퇴치(ST-EP) 프로그램, 친빈곤관광(Pro-Poor Tourism: PPT)과 같은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착수함으로써 관광을 개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최빈국 48개국과 개도국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업이 생계의 주요 산업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화·지방화 촉진, 국제적 이해관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ILO(2010)의 자료에 따르면, 최빈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세 배로 급증하여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48개의 최빈국 중 29개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관광이 선택되었으며, 국제관광은 상위 3가지 외화수입 중 하나로 관광이 지구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개도국을 위한 관광의 중요성은 국제개발에서 폭넓게 논의되는 주제지만, 대부분 경제수익발전에만 기여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어 특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지문화 및 환경, 계획단계에서의 지역사회 역할들을 배제한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Carbone, 2005). 또한, 영국국제개발부(DFID)에 따르면, 관광개발에 따른 불평등한 이익의 분배와 낮은 수준의 권한 문제를 개도국이 겪게 되면서 관광사업에서 권한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Deloitte & Touche et al., 1999; 김미옥·김민주, 2010 재인용). 일부 연구결과, 관광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의 10% 이하만이 빈곤층에게 분배되며(Mitchell & Ashley, 2007), PPT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대부분 타 국가나 소수의 영향력 있는 수원국의 이익집단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shley, Roe, & Goodwin., 2001). 윤여일(2010)과 임영신·이혜영(2009)은 현지의 관광산업이 개발되면서 현지인의 생활은 궁핍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보고하고 있고, 실제로 동남아 등에서 이뤄지는 변질된 해외 원정 관광은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 및 성매매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매일경제, 2011).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짚어볼 때 관광분야의 ODA 사업은 타 분야와는 달리 관광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의 초기단계인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관광의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선정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관광 ODA 사업의 경우에는 원조사업 분류에서 산업에너지에 분류되어 관광만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 오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관광분야 ODA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이후 양자간 ODA사업으로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개도국의 관광관련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관광부문의 양자간 원조의 수치를 살펴보면, 1998년 2만 불, 1999년 4만 불, 2000년 7만 불, 2002년 13만 불, 2003년 6만 불, 2004년 10만 불, 2005년 21만 불, 2006년 20만 불, 2007년 387만 불, 2008년 52만 불, 2009년 36만 불, 2010년 28만 불, 2011년 43만 불로 매우 적은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2). 또한 개발도상국의 관광발전을 지원하는 UNWTO ST-EP재단 사업은 매년 평균 7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3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문화부 전체 ODA 예산의 약 10%정도에 해당된다. 한편, 무상원조 전담기구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에는 관광분야

ODA 사업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관광 ODA 사업으로는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시설 개선사업(2006~2008), 카자흐스탄 관광산업진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07년~2009년), 필리핀 맹그로브 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2009~2010),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생태관광 개발 프로젝트(2009년),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시엠립 한국순환도로 건설(2011), 베트남 후에시 종합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1), 베트남 라오까이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4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관광부문의 ODA 사업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전개되고 있으며, 관광을 통한 ODA 사업의 유형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빈곤과 관련된 이슈의 복잡성과 관광개발에 대한 정보 및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관광분야 ODA 사업은 공항시설 개선사업, 한국순환도로 건설과 같이 하드웨어 중심에서부터 관광산업진흥 마스터플랜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유형과 규모가 타 분야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광은 본래 개발과 보전,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망라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산업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관광은 다양한 분야와 상호교류가 가능하고, 관광공급자인 관광사업체와 관광수요자인 관광객과의 이해와 교류가 동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자 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가 있는 관광지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관광객까지도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변화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 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관광과 관련된 다양하고 스펙트럼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관광 ODA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관광분야 원조사업의 부정적인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KOICA가 관광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관광ODA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의 영역, 관광과 빈곤퇴치와의 관계 및 타 원조기관의 관광분야 ODA 관련

사례, 사업선정 평가지표 사례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타당성 평가 지표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평가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관광ODA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도출한다.

셋째, 개도국 현지조사를 통해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설문항목의 적합성과 현실가능성을 평가하고, 관광부문 ODA 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 시행착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델파이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현지의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원조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관광산업의 특성과 기존 수원국에서 시행되었던 관광관련 ODA사업의 사례 등을 통해 KOICA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관광ODA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지표는 관광분야의 ODA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빈곤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합하면서도 효과적인 사업 선정과 더불어 관광개발의 부정적인 문제점을 사업초기단계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잠재적인 관광 ODA사업은 KOICA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ODA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MDGs를 달성하는데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기초연구단계,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실시 단계, 결과분석 단계로 구성된다. 각 부분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광의 영역에 대한 고찰과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기존 관광 분야에서 빈곤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실시 단계에서는 관광분야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 항목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와 현지조사에 앞서 주요 관광지원사업 원조기관 사례분석을 통해 조사도구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팀의 협의를 거쳐 조사도구를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관광분야 및 ODA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며,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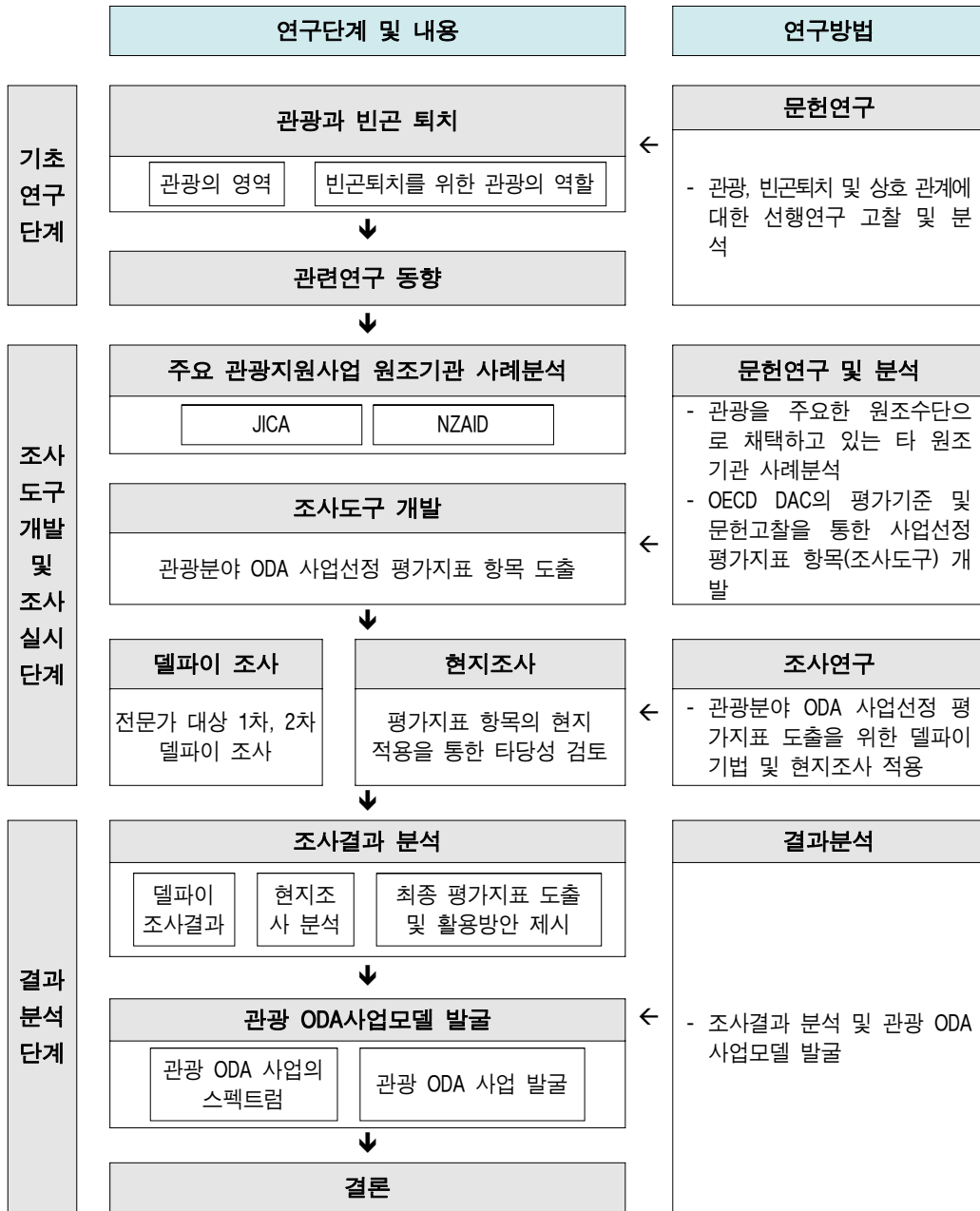
셋째, 결과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델파이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며, 현지조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며,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의 시사점을 통해 관광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은 문헌연구를 통한 2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델파이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한 1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차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관광과 빈곤퇴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동향 분석은 국내외 학술서적, 논문 및 국내외 관련 보고서의 수집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다. 또한 주요 관광지원사업 원조기관 사례분석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 자료인 델파이 조사는 관광분야 및 ODA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관광분야 ODA사업선정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관광과 빈곤퇴치

제1절 관광의 영역

1. 관광의 정의

관광은 인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인류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온 사회현상이다. 사회현상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인간은 일상생활로부터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행 및 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관광은 사회적으로 인류의 발달사와 함께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는 인간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재미(fun)와 즐거움(pleasure)을 추구하는 기제가 깔려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하위징아(Huizinga)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즉, 인간은 유희(遊戱)를 추구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Huizinga, 1968). 관광객도 ‘유희하는 인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의 정의는 각 부문의 연구영역 특성에 따라 많은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이라 함은 ‘개인이 즉, 관광객이 일상 생활권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의향을 갖고 스트레스 해소, 진정성(authenticity), 신기성(novelty), 향수(nostalgia), 교육 등과 같은 동기를 추구하면서 비일상적인 곳에서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광객은 경제적 편익을 획득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인 소비를 한다(김남조, 2014).

한편, McIntosh와 Goeldner(1990)는 관광을 “관광객을 유인하고 수송하고 숙박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관광사업자, 관광지역정부, 관광지역주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관계와 현상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는 “관광을 여가, 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1박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비일상적인 곳에서 여행하고 체재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관광학회가 발간한 관광학총론(2009:28-29)에서는 관광을 “개인이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관광대상

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즐기는 여가활동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관광을 그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한 사회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동안, 비록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지만, 오직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생활권 주변의 환경이 악화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된다. 그 이후, 그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환경 악화와 가중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부문에서 대중관광(mass tourism)과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에 대한 이슈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김남조, 2014).

2. 관광산업의 중요성

1) 관광산업의 성장 및 파급효과

지난 20년간 관광산업은 많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타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월등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산업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화·지방화 촉진, 국제적 이해관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은 경제에 기여한다.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서 발간하는 The Comparative Economic Impact of Travel & Tourism(2013)에 따르면, 관광산업을 통한 GDP는 6조 3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9.1%에 해당되며, GDP 창출에 2조원 가량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광산업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유발한 효과는 2011년 총 GDP의 6

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자동차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7.9%, 광산업이 8.0%, 그리고 화학이 9.0%인데 반해 관광산업은 세계 GDP 9.1%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WTTC는 앞으로 10년간 광산업,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관광산업이 1.2%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계경제에 대한 관광산업의 직접적인 기여도는 평균 4.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다른 산업 부분의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관광산업은 전 세계 일자리 11중 1개가 관광과 관련된 것으로 8.7%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TTC, 2013). 이에 따라 관광산업은 세계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억 6,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보다 6배, 화학산업 보다 5배, 광산업보다 4배, 커뮤니케이션분야보다 2배, 금융서비스산업에 비해 3배가 많은 수치이다. 관광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 이주 노동자와 농촌주민에 대한 개발 및 고용의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발전과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아울러 총 관광인력의 절반이 25세 미만의 청소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및 젊은 청년층이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인력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광산업은 전 세계에서 유인되는 소비와 외래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수출액의 5%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세계무역의 필수적인 구성체계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총 수출점유율을 보이고 있다(UNWTO Annual Report, 2011). 또한 관광산업은 2011년 터키와 UAE 수출부문(오일포함)에서 각각 15%와 10%를 차지했으며, 영국, 호주,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의 경제성장 국가들의 2011년 관광산업은 여전히 총 수출의 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문객을 통한 수입은 특히 신흥경제에 대한 외환 및 재무 안정성, 전 세계 국가의 서비스 수출의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UAE, 자메이카, 터키, 남아프리카, 멕시코, 프랑스의 모든 서비스수출의 절반 이상이 관광산업을 통해 발생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국가들의 관광산업을 통한 서비스수출은 25%에서 5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관광과 관련된 소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은 관광지역과 지역 국가 내에서의 관광을 하며 필요한 생필품과 그 외 소모성 제품 등의 다양한 소비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관광은 관광 이외의 타 산업의 소비

를 증가시킴으로써 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1차 산업분야에 지출된 소비가 그 산업과 관련하여 연계되는 산업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 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은 다시 생필품을 중심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지출이 되면서 연속적으로 타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게 된다. 특히, WTTC에서 발간하는 The Comparative Economic Impact of Travel & Tourism(2012)에 따르면, 20개 국가(일본, 인도, 영국, 브라질,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프랑스, 멕시코, 터키, 한국, 자메이카, UAE)들의 투입산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산업과 타 산업 간의 간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UAE, 자메이카, 터키, 남아프리카, 멕시코, 프랑스의 모든 서비스수출의 절반 이상이 관광산업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이들 20개 국가들 중 18개 국가들은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외화창출이 다른 경기 내에서 발생하는 평균 외화창출보다 총 경제 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광을 통한 달러의 자금투입이 경제적 혜택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예측이다.

2) 관광산업의 동향

전 세계에 걸쳐 여행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orld Tourism Barometer (2013)는 2003년 6억9천7백만 명이었던 세계 관광인구가 2013년 10억8천7백만 명을 넘어섰고 많은 여행객들이 동남아 및 개도국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국제관광객수는 1995년과 2010년 사이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관광산업 발전이 그 국가의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인 소득향상, 여가시간의 증가, 접근성이 개선된 교통시스템, 마케팅을 이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관광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향상,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얻는 국가들의 정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 국제 여행자 수

단위 : 백만 US\$

연도	1950	1980	2000	2003	2008	2010	2012
국제여행자 수	25	277	675	697	922	940	1,035

* 출처: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2013)

저소득 국가들이 기존에는 농업과 자연자원의 추출에 크게 의존했다면, 관광산업은 특히 국가 내 농촌발전 및 저소득 국가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관광개발은 대개 문화유산과 같은 기존의 전통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용과 소득을 생성하는 이중적인 장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ILO(2010)의 자료에 따르면, 최빈국 관광객이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세배로 급증하였고, 해마다 1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48개의 최빈국 중 29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관광이 선택되었으며, 국제관광은 상위 3가지 외화수입 중 하나로 관광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관광산업의 특징

1) 관광산업의 장점

관광개발의 목적은 부의 창출을 위한 경제적 향상, 건강·교육·안전·고용과 주택 보급의 향상과 같은 사회적인 삶의 질의 향상, 문화적 정체성의 보호와 자존감의 확인과 같은 문화적 경험의 제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환경적 지속성을 지향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의 고양, 일생동안 한 사회의 의미 체계 및 상징과 신념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패러다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에 맞는 독특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산업의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왜 전 세계가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규모는 7,600억 달러이다. 이는 전 세계 투자액의 5%로 상당히 큰 규모라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해당국가의 국내경제와 연관이 있다. 20개 국가(일본, 인도, 영국, 브라질,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프랑스, 멕시코, 터키, 한국, 자메이카, UAE)들의 투입산출 데이터 분석에서도, 관광산업과 타 산업 간의 간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 국가들 중 18개 국가들이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외화창출이 다른 경기 내에서 발생하는 평균 외화창출보다 총 경제 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관광으로 발생된 관광달러의 자금투입이 경제적 혜택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 국가의 또는 한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바람직한 발전을 이룩하는 국가나 사회는 그 국가나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사회에서 관광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는 관광으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관광으로 인한 영향은 지역의 사회적·자연 환경적 특성에 달려있다(Mathieson, & Wall, 1993; Godfrey & Clarke, 2000:4).

Muhanna(2007)는 지역사회의 개발을 주도하는 관광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

- 관광은 부를 재분배한다.
- 관광은 생산이 일어나는 곳에서 소비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은 부가적 상품(수공예품과 기념품), 서비스(가이드, 음악, 댄스)를 판매한다.
- 관광은 그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공공재적 가치로 보고 이용한다.
- 관광은 무역장벽이 없다. 쿼터나 관세가 없다.
- 관광은 많은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서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다.
- 관광은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다. 지역주민은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박, 농장에서의 수공예품 생산, 관광객을 위한 농산물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 관광은 노동집약적 영역이다. 관광노동력은 여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빈곤한 사람이나 비숙련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여성과 빈곤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으나 반대로 여성과 빈곤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단점도 동시에 갖는다. 볼리비아의 경우 여성고용이 60% 이상이고, 이슬람국가에서는 10% 이하로 나타난다.
- 관광은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후방연관효과를 제공한다. 제3세계국가에서는 관광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타산업의 증흥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와 고용의 넓은 범위에서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많은 분야와의 연계가 가능하여 전 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관광산업을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 관광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향상시키고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게 한다. 이러한 시설은

1) 김남조(2014). '관광과 개발: 잠재적 관광ODA 사업의 모색'에서 발췌함

비단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편익이 된다. 생태관광과 같은 관광상품을 지속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되고, 결국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정당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관광객에게 보여주거나 판매하게 위해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게 되고 공예품을 제작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2) 관광산업의 단점

모든 관광개발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국가 및 특정 지역사회는 관광개발로 인해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혜택을 얻는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도 유발되기 때문이다(Mathieson, & Wall, 1993; Godfrey & Clarke, 2000:4).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관광산업은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관광이 선진국의 부를 개발도상국에 재분배하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관광개발은 국제적인 관광기업에 의해 좌우된다²⁾. Britton(1989)의 종속이론에 의하면 주변부 경제(호스트)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우선, 국제적인 다국적기업의 현지 소유권과 패키지투어상품 등은 현지의 지역사회에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있는 국가로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송금되므로 호스트국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제3세계국가의 현지고용인을 다국적기업에 취업시킴으로써 고용으로 인한 임금을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만 다국적기업의 고위직급은 오랫동안 다국적기업의 본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빈곤한 지역사회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에 종속되는 경제적 현상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 결국 재화와 서비스가 변변치 못한 제3세계국가의 관광산업은 그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출(leakage)되게 되는 것이다.

WTO(1995:55)에 의하면 누출효과는 소규모 경제(개발도상국)의 경우 총관광수입의 40~50%이며, 선진국이나 다양한 경제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경우 10~20% 정도로 나타난다. 태국의 경우는 관광객이 소비한 지출 중에서 70%가 누출되는데, 대부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여행사, 항공사, 호텔, 수입한 식재료 및 음료수 등에 기인한다. 카리브해의 국가의 경우 80%, 인도의 경우 40%가 누출된다고 알려져 있다(Cottrell, 2001:1). 최근 미얀마 관광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데, 2012년 미얀마 양곤(Yangon)에는 204개의 호텔이 9,0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2,000여 개는 국제기준의 객실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소유권

2) 김남조(2014). '관광과 개발: 잠재적 관광ODA 사업의 모색'에서 발췌함

을 100%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태국, 일본의 관광기업들에 의해 최고의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Travel Impact Newwire, 2014.2.6.).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은 자원접근성의 손실, 농업용지의 대체와 사회문화적 붕괴와 착취를 통해 빈곤한 사람들에게 비경제적 비용을 부과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관리와 계획이 필요하고 거버넌스와 같은 조직의 구성도 필요하다.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수용력에 대한 이슈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관광은 경제상황에 민감하다. 국제관광객은 관광목적지의 정치적인 소요사태,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의 빈번한 발생, 목적지의 자연재해 등에 민감하다.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관광객의 입국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결국 그 국가는 국제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의 손실을 입게 된다. 둘째, 관광부문에서도 성장의 불균형이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세 국가(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부터 대륙을 이용한 국제관광객이 52%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991), 여기에 알제리, 케냐,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더하면 7개 국가로부터 76.9%에 해당하는 국제관광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Brohman, 1996:52). 셋째, 관광은 높은 수준의 정교한 홍보 및 마케팅을 요구한다. 관광객은 관광목적지를 결정하기 전에 잠재적인 관광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때 제공되는 관광정보는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3세계국가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에 투입되는 재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관광매력물을 국제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3세계국가는 국제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관광지의 문화 및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산업에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관광으로 지역사회, 자연환경, 관광산업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광의 시각인 지속가능한 관광과 New Touri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일·박석희, 2001:16).

4. 지속가능한 관광과 새로운 트렌드관광

1) 대중관광과 대안관광

근대관광시대는 크게 근대관광의 태동기와 근대관광의 중흥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관광의 태동기는 1840년대 초부터 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시기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행업의 출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의 관광은 주로 특권층과 부유층에 의해 행해졌으며, 주된 관광의 동기는 지식의 확대였다고 볼 수 있다.

1841년 토마스 쿡(Thomas Cook)은 570명의 단체여행객을 이끌고 당일치기 철도여행을 시작으로 패키지관광시대를 열었다(빈프리트 뢰쉬부르크, 1997).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근대 대중관광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다(조광익, 2007). 근대관광의 중흥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다. '점보 747 제트 여객기'와 같이 많은 수의 관광객을 매우 빠르게 전 세계의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대용량의 운송수단은 본격적인 대중관광시대의 문을 열게 하였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관광은 더 이상 특수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정착되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교통통신의 발달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간의 관광욕구는 강화되었고, 여행업계는 서비스 효율의 극대화 차원에서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김홍운, 2008).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학자들은 대중관광(Mass tourism) 혹은 대량관광이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대중관광은 대량관광, 패키지관광, 표준화·동질화, 단기간 다 지역 주유형의 특성을 갖는 생산자 중심적 관광 상품과 한정된 소품종이라는 특성을 띄고 있다(Poon, 2003). 대중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과 이들로 인한 대량관광소비는 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여가시간의 증가와 가처분 소득의 증대에 따른 늘어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관광개발에 의한 대량관광소비는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외래방문객과 국내관광객 양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관광단지·콘도미니엄·골프장 등과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량관광개발에 의한 대량관광소비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는데,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관광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광공급이나 관광서비스는 여전히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켜 대중관광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상실되었다. 문화유적지가 훼손되거나 반달리즘(vandalism)이 유발되고 농작물 훼손, 쓰레기 문제·교통혼잡, 수질·대기오염, 인플레이션이 지역사회에서 발생되었다. 이로써 각종 사회적·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반기를 든 관광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대안관광이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관광형태이다.

이와 달리 대중관광 혹은 대량관광시대의 관광을 구관광(Old tourism)이라고 한다면, 대량관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고 대량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관광을 신관광(New tourism) 또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관광은 근대의 대중관광을 대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탈 근대관광(Post modernism tourism)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Smith는 신관광을 지역사회, 자연적, 인공적, 문화적 환경과 지역주민, 내방객, 관광산업, 정부 등과 같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모든 형태의 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WTO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성이 있고 환경을 의식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2> 지속가능한 관광과 대중관광

특성	대중관광	대안관광
수요	- 조직화된 단체관광 - 한정된 시간: 단기여행 추구 - 이미 제공된 여행일정에 따름 - 관광공급자(예: 여행사)가 결정 - 보는 것 위주 - 수동적 행동 - 폐쇄적 접근 - 가격 지향적 인식 - 양적 관광 - 일반적인 경험(4S: sun, sea, sand, sex) 추구 - 요란한 관광활동 - 사회, 문화, 환경적 무책임	- 혼자, 가족, 그리고 친구와 여행 - 시간적 여유가 있음: 장기 여행 추구 -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결정 - 관광자가 결정 - 체험이 중심 - 능동적 행동 - 개방적 접근 - 가치 지향적 인식 - 질적 관광(적극적인 경험 주요시) - 새로운 지식 추구(3T: travelling, trekking, trucking) - 조용한 관광활동 - 사회, 문화, 환경적 책임
공급	- 개발속도가 빠름 - 대규모로 단계적으로 진행 - 최대화(maximization)가 목표 - 물리적 수용력 제고 - 통제되지 않은 비계획적 관광개발 - 기존 정주권 밖에서의 개발 - 가장 훌륭한 경관지역의 집약적 개발 -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수요를 위한 개발 - 외부개발업자에 의해 개발 - 경제적 배경에서만 검토	- 개발속도가 느림 - 소규모로 단계적으로 진행 - 적정화(optimization)가 목표 -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 제고 - 통제되고 계획된 관광개발 - 기존정주권 내에서의 개발 - 훌륭한 경관의 보전 - 확고하고 제한적이고 밝혀진 수요를 위한 개발 - 지역개발업자에 의해 개발 - 생태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 출처: 김남조·최석호·최승담(2007). 『네오투어리즘 이론체계 정립』에서 정리.

2) 지속가능한 관광³⁾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감에 따라 자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Dominant Social Paradigm: DSP)과 배치되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밀브래스, 1989:219).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회문화의 보존에 가치를 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귀결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환경과 사회문화의 지속성은 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개발의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의 개념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관광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 향상과 방문객에게 양질의 관광경험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와 방문객을 위한 양질의 환경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Owen, Witt와 Gammon(1993)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역사회와 방문자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물리적 문화적 환경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관광개발의 규모와 속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수를 위한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적정 편익이라는 목표가 추진되어야 하며, 관광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사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개념은 1987년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의 Brundtland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비롯되었다. 이 개념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류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지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지구를 빌린 것이다’(we do not inherit the Earth from our forefather, but borrow it from our children)란 의미로부터 출발하였다(Murphy, 1985). WTO(1996)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차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고양하면서 현재 관광객과 방문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개발”⁴⁾이라고 정의하고 이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크게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내포

3) 김남조·조광익(199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함.

4) 원문: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meets the needs of present tourists and host regions while protecting and enhancing opportunity for the future"(WTO, 1996: 30).

하고 있다(WTO, 1993). 먼저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필수불가결한 생태과정, 생물다양성, 생태자원의 유지와 양립할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높이고, 문화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가치와 양립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개발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개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諸자원을 관리·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이라 함은 ‘문화적 고결성,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명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사회적·심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모든 자원의 관리를 이끄는 관광’이라고 하겠다(WTO, 1996: 30; WTO Report, 2002:7).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sustainable tourism products)은 “지역환경과 지역사회, 문화가 관광개발의 희생물(victims)이 아니라 영원한 수혜자(beneficiaries)가 되도록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상품”이다⁵⁾.

많은 연구들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유용성을 들고 있다. Klemm(1992)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대규모 관광개발 시에 나타나는 지역의 혼잡, 물리적 환경 및 역사적 자원의 훼손,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지역주민의 적대감 유발, 개발 시 파트너 간의 협력 결여, 매력물 및 이벤트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소규모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나 랑그독 루시옹과 같이 공공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계획적으로 도입한 경우는 대규모 개발의 경우라도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llen, Hafer, Long과 Perdue(1993)의 주장에 따르면,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관광지의 주민이 관광객으로부터 시달리는 경험, 범죄, 폭력 등과 같은 관광객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사회와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유래된다고 보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llen 외(1993)는 멕시코의 예를 들면서 사회적 영향 완화방법으로 훈련프로그램, 협동조합을 위한 기금조성, 의료와 건강서비스, 치안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정보와 대화, 대중 집회, 마을건설, 하부구조, 새로운 학교 건립, 보상금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관광부문이 지속가능성을 채택하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알려진 바와 같이 첫째, 관광은 자연자원이나 사회·문화자원과 같이 현존하고 있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5) 원문: "Sustainable tourism products are products which are operated in harmony with the local environment, community, and cultures, so that these become the permanent beneficiaries not the victims of tourism development"(WTO, 1996: 30).

비재생자원을 소비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둘째, 관광은 커뮤니티에 있는 자원, 문화, 전통, 상점, 여가시설 등이 관광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자연·문화와 같은 자원의 사용이 비소비적이고 재생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원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훼손되지만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넷째, 관광은 빈곤을 줄이는데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관광은 비교적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몇 차례의 교육·훈련으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다섯째, 관광은 문화와 전통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역문화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잊혀 지거나 비 활성화된 지역문화를 복원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은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수입은 지역문화를 보존하거나 활성화하는데 재투자될 수 있다. 결국, 관광은 자연과 문화자산을 보전하는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은 지역주민과 방문자 간에 이해를 돕는데 이바지 한다. 물론 외부인에게 지역사회의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 방문자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지만, 역으로 지역문화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외부인들에게는 지역사회를 방문할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관광의 행동수칙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할 때도 있다.

Owen, Witt와 Gammon(1993)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역사회와 방문자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물리적·문화적 환경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관광개발의 규모와 속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수를 위한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적정 편익이라는 목표가 추진되어야 하며, 관광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지역의 환경이 보전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점은 다음과 같다⁶⁾.

첫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방문자 또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공히 의존하는 환경의 질을 유지한다.

6) 김성일·박석희(2001)의 '지속가능한 관광'에서 발췌함

〈표 3〉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준

기준	기준에 대한 설명
경제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편익을제공해야 함 사회경제적인 편익이 관광 지역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되어 관광누수는 작아지고 편익은 극대화되며, 편익을 얻는 지역주민들은 관광을 지지하게 됨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잃지 않고 지역경제에 계속적인 올바른 편익이 제공되는 관광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함
사회문화적 지속성	관광산업과 관광객, 지역사회, 관광자원 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여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하는 관광임
환경적 지속성	관광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화보존, 생태계과정유지, 생물다양성, 생명부양체계를 유지하여 미래세대의 자원이용 기회를 보존시키면서 관광객과 지역사회의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광임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관광산업이 의존하는 자원의 보존과 자원의 올바른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편익분배, 관광과 다른 경제부문과의 통합, 개발패턴 조절요소등은 통합적 관광계획 수립으로 올바르게 추진됨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	관광과 환경과의 관계,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인식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환경윤리의식을 고취시켜야 함
전문인 양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전문가 훈련과 양성교육이 필요함
대안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준수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관광의 개발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광을 이룩함
모니터링과 연구	지속가능한 관광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와 관광의 환경, 문화, 경제적 영향과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지표개발과 수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속가능한 관광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의 질에 기여하고 관광대상지의 사회문화부흥을 가져와야 함
관광객 안전	관광객에게 국가와 지역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음
정보교환	국가 간, 지역 간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보, 기능 및 기술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정부 정책과 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관광편익과 비용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수단이 개발되어야 함
지역참여	지역주민들이 관광계획과 개발에 최대한 참여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편익이 골고루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함
협력	정부-지방정부, 공공-민간, 지역정부-관광산업-관광관련기관 간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함

* 출처: 김성일·박석희(2001). 『지속가능한 관광』에서 정리.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속성, 형평성과 미래지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유, 평등, 정의 등의 비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사회적 지속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은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명 지원체계를 유지한다(WTO, 1993; 1996).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은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지역의 환경이 보전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3) 새로운 관광트렌드

그 동안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오면서 관광객의 관심은 자신의 여행기간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며 대접을 잘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행이 더 이상 자기만족적 소비가 아니라 현 지 지역 주민과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성의 일환인 생태관광, 공정 관광, 커뮤니티기반관광, 친빈곤관광, 슬로우투어리즘, 자원봉사관광, (소수)민족관광, 저탄소녹색관광, 농촌관광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비록 대중관광에 비해 그 규모는 적으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으므로 많은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유형의 관광을 육성하고 있다.

(1) 생태관광(Eco Tourism)

생태관광은 생태계 보전이라는 개념적 틀 속에서 관광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대안적 관광의 한 형태이다. 생태관광은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 있는 여행으로, 생태자원의 이해를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목적의 관광으로 정의된다. 생태관광은 주로 생태자원을 관광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생태자원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인문환경 및 문화유산까지 관광대상으로 한다. 즉, 생태관광객은 신비로운 생태계를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부수적으로 그러한 생태자원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삶의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물론 이때 생태관광객은 지역사회의 문화와 사회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받는다. World Conservation Congress(1996)는 생태관광을 환경 보전을 촉진하고 관광으로 인한 방문객들의 부정적인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 생태관광은 혁신적이거나 새롭게 출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 개념으로부터 발전되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생태관광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문화의 체험이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우려에서 발생한 제관심의 융합체라고 볼 수 있다(김남조·유기준, 2011). 생태관광의 본질은 자연환경의 원시상태를 가급적 그대로 보전하여 관광객들이 자연환경 그 자체를 관광·휴양 및 교육의 대상으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이용주체인 관광객들 역시 자원보전의 책임을 공유하는데 있다. 생태관광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관광개발과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생태적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환경친화적인 관광형태라고 볼 수 있다.

생태관광과 대량관광의 근본적 차이는 자연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대량관광이 이용을 목적으로 한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인위적인 힘에 의해 개발된 목적지에 의존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단순히 이용대상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경외감과 환경보전 의식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관광개발의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의 유지 속에서 관광개발과 환경의 질을 함께 추구하면서 보완,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관광이란 용어의 출현배경은 1965년 Hetzer가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한 것이 최초였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83년 멕시코의 PRO-NATURA라는 비정부조직의 회장과 도시개발생태부(Mexican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Ecology)의 총재를 지낸 Ceballos-Lascurain이 멕시코의 열대우림지역의 보전 운동에 따른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생태계 보전에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사용되었다. 생태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는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지역, 환경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지역사회에 배려라는 세 요소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결국,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 및 인문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대상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제고하는 관광의 한 형태로 광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사회·인문환경, 서비스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은 생태관광의 유인적 요소가 되는데 비교적 도시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자연공원, 생태보전지역, 산림지역, 도서 등으로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가 주요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생태자원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과 산업적 자원 등은 생태관광객의 흥미를 더욱 돋운다. 서비스환경은 관광대상물과 생태관광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접근수단, 시설물, 이용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환경의 제공에는 일반 관광지와는 달리 생태관광의 기본적 취지에 따른 엄격한 규제 및 제한이 요구된다. 즉, 자연생태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한 엄격한 개발 방향과 관리지침을 설정하고 개발자, 관리자,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지켜나가는 것이 생태관광지 유지의 관건이다. 결국, 성공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성공 여부는 이들 세 환경의 체계적인 연결에 의해 좌우된다.

생태관광 개발의 목적은 지역환경 보호와 보전을 위한 올바른 이용 유도를 통해 지역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휴양·관광 경험의 질적 증대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가능한 한 개발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하는 관광수입은 외부 누출 없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과 인문자원의 효율적인 보호·보존효과,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및 환경개선 효과, 생태관광객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관광·욕구에 부합되는 관광경험의 충족과 환경교육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 생태관광의 기본개념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생태관광은 대중자연관광(mass nature tourism)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관광의 기본목적 충족이 아닌, 오히려 지역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김남조·유기준, 2011). 또한 생태관광은 일반 대중관광과 비교하여 실제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경제적 편익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데, 이는 생태관광이 지닌 낮은 수용력과 서비스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결국 생태관광의 기본개념과 수용력을 고려치 않은 개발과 지나친 상업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기존 대중관광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사회, 문화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은 보전에 기여하며 지금까지 대중관광이 야기한 문제점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은 환경 교육 혹은 해설 프로그램을 동반하므로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공정관광(Fair Tourism)

공정관광(fair tourism)은 관광목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관광형태이다. 공정관광은 공정여행을 시행한 NGO단체나 의식 있는 여행사에서 시작되었다. 공정관광의 개념적 체계는 관광목적지의 환경파괴에 대해 여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의 개념체계를 따르고 있다. 책임관광은 1989년 WTO의 대안관광 관련 세미나에서 대두된 개념으로(김난영, 2010), 지구온난화, 사회적 불평등, 자연자원의 훼손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과 독특하고 진정성 있는 경험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한다(Booyens, 2010), WTO(1989)는 책임관광을 현지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비롯하여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이익을 존중하는 관광의 형태로 정의하였다(Smith, 1990). 책임관광은 미국의 글로벌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 1988), 영국의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 1998)), 네팔의 세 자매트레킹 여행사(1994), 리스폰서블트래블닷컴(responsibletravel.com; 2011)에서 시행한 후 넓게 확산되었다(임영신·이혜영, 2010; 이영진·송영민·윤지환, 2012 재인용).

공정관광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영미권에서는 공정관광을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도덕관광(Ethical Tourism) 등의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지속가능한 관광, 대안관광, 생태관광 등 비슷한 뜻을 내포하면서도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것은 관광의 유형을 추진하는 기관과 그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임관광은 10%를 책임지더라도 책임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공정관광은 관광과 관련되는 어느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공정하고자 하는 위미를 내포하며(Goodwin & Roe, 2009), 관광객의 견해에 사회적 정의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것이므로(Cravatte & Chabloz, 2008) 공정관광(Fair Tourism)이란 별개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기에 충분하다(조명환·정선자, 2012:95-96).

공정관광의 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으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또는 관계가 되는 이해관계자 모두 평등하다는 뜻이다(조명환·정선자, 2012). 공정관광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공정관광은 '관광이 발생하는 지역의 사람들, 자연환경과 경제를 위해 장기적인 편익을 발생시키는 지속성을 개발하는 관광'으로 보고 있다(<http://www.fairtourism.org>; 이영진 외, 2012). 오익근(2011)은 공정관광을 불공정 관광거래의 반대개념으로써 공정한 관광거래라는 개념을 통해 관광사업체와 관광자의 관계에서 공정성 있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관광과 공정여행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공정여행은 지역(또는 지역주민)과 여행자(또는 관광객), 여행자와 문화 및 환경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정한 거래를 의미

한다. 반면, 공정관광은 이보다 좀 더 넓게 소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관점까지 거래의 형평성과 불공정 거래, 분배, 관광기획 등의 관점에 더 초점이 맞춰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영진 외, 2012:40).

아울러 공정관광은 관광객의 윤리적 소비(또는 착한 소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윤리적 소비는 개별적·도덕적 신념에 의해 절제된 의식적이고 신중한 소비행동으로 정의된다(Crane & Matten, 2003). 홍연금(2009)은 윤리적 소비행동을 친환경적 소비, 자발적 간소화, 불매운동과 같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과 공정무역, 지역산물 구매, 공정관광 및 나눔기부와 같은 동시대 인류를 위한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명환·정선자, 2012 재인용). 윤리적 소비자는 평소 지구환경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빈곤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관광목적지에서 윤리적인 소비행동을 지향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영진 외(2012)는 관광에서의 공정성을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과 관광의 매체인 관광사업(또는 지역사회) 간의 관광현상이 발생하는 곳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관광기획과 편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4>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에 관한 논의 내용

관점	분류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을 위한 제안
지역편익 공정성	지역과 관광개발사업체	· 지역에 대한 기업의사회적 책임 · 관광사업자의 도덕적, 윤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 · 관광개발 이기의 지역 재투자 · 관광활동 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지역과 관광객	· 지역민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관광자의 자유로운 행동 ·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보편적 인권 존중 · 유통단계를 줄인 책임관광을 통한 정당한 가격 책정과 관광개발사업체의 사회 환원 · 지역주민 및 관광사업체에서의 착한가격 형성 · 중간 유통업자를 고려한 공정거래
	지역, 사업체, 관광객	· 관광객의 합리적인 가격 지불의사에 따른 지역과 관광사업체의 공생 · 관광사업체에 대한 사이버 감시
관광공급 공정성	관광사업체간 불공정 거래	· 호혜성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인정 · 관광 및 여행알선 수수료의 양성화 · 공정가격에 대한 관광객의 지불의사 · 관광콘텐츠 등의 모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광객의 비윤리적 행동과 관광사업체	· 관광객의 책임있는 윤리적 행동 · 관광객의 소비행위가 환경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고취

* 출처: 이영진·송영민·윤지환(2012:52).

최근 공정관광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관광현상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집단들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ODA 사업을 시행하는 빈곤국가에서의 공정관광의 경우 수요자인 관광객이 지역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에 대해 공정한 태도와 행동을 추구하도록 계도하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 빈곤국가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진정한 경험을 제공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공정관광객은 지역의 역사, 환경,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자원을 공유하며,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객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 등을 위한 규범적 행동양식을 따르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3) 커뮤니티 기반 관광(Community Based Tourism : CBT)

커뮤니티 참가의 개념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여 스스로의 개발에 참여하고, 그들 자신의 요구들을 정의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Stone, 1989). Murphy(1985)는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지역주민이 주도하는(community-driven approach)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에 의해 지역공동체의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지속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N에 의하면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체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조건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자족(self-sufficiency)과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이다. 특히 커뮤니티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自助, 생태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의 통제, 개인요구의 충족, 지역사회 문화의 창달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강한 유대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커뮤니티 개발이 갖는 의미 체계를 관광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관광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귀속되는 형태의 관광을 의미한다. 강신겸(1998)은 커뮤니티관광개발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성을 부각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전략’으로 보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주장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자립을 통해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특히 관광·문화예술·교육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강신겸, 2007). Blackstock(2005; 유인혜·고동완, 2009 재인용)는 지역사회가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식성(awareness), 연대감(unity), 권한(power)의 강화가 있어야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개발이 성공을 이룬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의식성은 ‘개발의 복잡성과 잠재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연대감은 지역주민이 일치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연대적 책임을 함께 하는 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권한은 지역주민 스스로 권한을 갖고 지역과 관련된 개발 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지역사회 자체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적·사회문화적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관광개발의 경험을 두고 볼 때, 커뮤니티가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은 커뮤니티 관광개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먼저, 커뮤니티 관광개발의 대부분이 관광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소외됨으로써 지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사업의 주도권은 많은 경우에 있어 커뮤니티가 아니라 당해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권이 행사되었다. 셋째, 커뮤니티 경제개발의 주도권은 공장폐쇄와 같이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에서 생겨나지만, 커뮤니티 관광개발은 그 자체로 정부지원이나 개발우선권(development priority)의 형태로 표현되는 기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상급 정부들은 관광의 경제적 잠재력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개발계획은 대체로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넷째, 커뮤니티 관광개발에서는 지방세 납부자(ratepayer)나 주민행동조직 등과 같은 커뮤니티의 많은 이해집단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고위층의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소수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해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커뮤니티 관광개발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사실,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관광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 관광은 몇 가지 이유에서 실패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을 외치는 지도자들조차도 결국 현지 지역주민의 권한 강화보다 오히려 관광산업의 장기 생존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질됨으로써 변화 의지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안에서도 내부 투쟁과 경쟁적인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야 하나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은 관광개발이 진행될수록 과거의 모습을 잊고 현실적인 상업화의 과정 속에 묻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외부 이해집단이 개입하는 압력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외부적인 힘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Blackstock, 2005; 유인혜·고동완, 2009 재인용).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 기반 관광개발에서 커뮤니티는 관광잠재력을 위해 개발되거나 이용될 자원으로 간주되는데, 관광개발이 진행될수록 지역사회의 고유성이 변화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됨에 따라 그 매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그 자체가 관광매력물이 되는데, 지역사회는 커뮤니티의 자연적 모습 그 상태(naturalness), 즉 그들의 삶의 양식, 제도, 문화 등이 어느 순간 상품화의 과정 속에서 사고 팔리며, 또 어떤 커뮤니티는 관광자의 소비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구조화된다. 이러한 상품화의 과정이 결국 그 지역사회를 상업화 세속화시켜 지역의 고유성을 잃게 만들고 그 지역사회는 더 이상 방문할 가치가 없는 곳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의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개발·관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는 관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예: 수공예 제작 및 상품화교육, 최소한의 관광서비스교육, 체험프로그램운영교육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스스로 자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때까지 외부의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거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지역개발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체계의 구축, 즉, 관광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지역 하부조직에서의 정부 간의 파트너십, NGO와의 파트너십, 지역의 관광 관련자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지역대학·지역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특정지역의 지속성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성공적인 운영은 커뮤니티 기반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없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스스로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친빈곤관광/빈곤퇴치관광(Pro-Poor Tourism; PPT)

친빈곤관광(PPT)은 빈곤층의 순편익을 향상시키는 관광의 형태로 관광사업과 빈곤층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빈곤층이 더욱 효과적으로 상품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빈곤 경감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친빈곤관광은 빈곤국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빈곤 퇴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광개발과 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을 의미한다(김철원·윤혜진, 2007). 즉, 친빈곤관광은 빈곤국가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정책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친빈곤관광은 관광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경제적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생계편익 측면에서도 친빈곤관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Ashley, Boyd & Coodwin, 2000). 세계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는 경제적 성장이 반드시 빈곤완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빈곤층을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빈곤관광은 빈곤계층에게 관광부문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관광개발의 전략이 맞춰져 있다. 친빈곤관광은 특정한 상품이나 틈새 부문이 아니고 관광개발과 관리에 대한 접근이다(www.propoortourism.org.uk).

대부분의 정책들은 경제적 성장이 빈곤층에게 자동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빈곤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및 사회적인 문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빈곤완화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은 경제성장의 이익이 빈곤층에게 직접 재분배되거나 고용과 사업 성공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관광으로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는 관광이 빈곤층의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지역사회의 애착심 제고, 취약한 분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빈곤은 낮은 소득·건강·교육·깨끗한 물에 대한 낮은 접근도, 그리고 무능력함, 불안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을 의미한다. 빈곤층을 위한 다른 경제적 성장전략과 비교하여 보면, 관광은 비교적 저비용과 저수준의 기술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이 관광부문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은 지역이 갖고 있는 원래상태 그대로의 환경적·사회문화적 자원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WTO는 빈곤감소효과가 지속가능성의 평가에 있어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기구에서의 지속가능성의 기본적인 전략목표는 빈곤층의 복지와 환경으로, 관광이 지속가능

한 개발과 빈곤을 위한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WTO(2002)는 관광을 이용한 빈곤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목표시장을 잘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빈곤국가에서는 국제관광보다 내국인 관광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지역내 관광(intra-regional tourism)이 크게 성장하여, 아프리카관광의 40%가 이웃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임을 보고하고 있다. 지역내관광은 문화적 가치의 공유와 사회적 체계의 유사함으로 인해 빈곤층을 위한 관광(pro-poor)에 있어 매우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빈곤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빈곤층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 정부협업체, 빈곤층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생산력 향상, 신용·지식·인프라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 향상과 인적자본의 투자가 교육과 건강부문에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빈곤국가에 체재하는 관광객 체재기간의 증가, 관광객 지출의 증가 등에 전략이 맞춰져야 하며, 관광객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지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설을 포함한 관광활동, 매력성의 증가, 문화와 전통, 요리법 등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프로그램은 고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체재기간과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자연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이용과 세심한 자원관리는 빈곤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자원 보존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

보완적인 관광상품(complementary products)의 개발은 목적지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매력의 상승과 관광객의 기호를 증가시켜 체재기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관광 서비스(가이드, 예술공연) 및 재화(수제품, 지역특산물)와 같은 보완재는 관광지의 매력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보완재는 드럼과 댄스 교습, 구연동화, 머리 빗기, 미개지에서 살아가기(bush craft), 조류관찰, 식물관찰과 의료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 수제품과 요리 교습, 마을과 농업 관광, 언어 교습, 학교 방문, 수제품 노동자 방문, 마을의 가족과 식사, 역사 관광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관광의 편익을 확산시키는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 문화지역, 세계유산지역은 빈곤국가에서 중요한 매력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멀리 떨어진 오지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패키지 투어나 크루즈관광은 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제도적으로 관광형태에 대한 변화를 줄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과 관광개발계획은 빈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큰 기여를 하며, 관광에 사용되는 도로, 전화, 전기, 수도시설 등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와 관광개발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발전

시킬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김철원·윤혜진(2007: 297-299)은 19개의 PPT Working Paper를 분석한 연구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관광사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현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경제적 혜택을 위한 전략, 빈곤국의 자생력 강화 전략, 참여와 파트너십 강화 전략을 들었다.

〈표 5〉 PPT 전략의 세 가지 유형

경제적 혜택 향상 전략	자생력 강화 전략	참여와 파트너십 강화 전략
- 현지고용과 임금 제공 - 현지기업에 기회 제공 - 공동 소득의 기반이 되는 요금, 수익 등을 창출해야 함	- 개발도상국 능력 강화, 훈련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자연자원의 경쟁사용 제한 - 개선된 사회, 문화적 영향 - 인프라와 서비스에 있어 현지의 접근을 증대시킴	- 지지가 되는 정책 또는 계획기구를 만들 - 정책결정시 빈곤층의 참여 증대 - 민간부문과 빈곤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교류 증가

* 출처: 김철원·윤혜진(2007: 297-299)

(5) 슬로우 투어리즘(Slow Tourism)

슬로우 투어리즘(Slow Tourism)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형태로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음미하자는 현대인의 인간다움 회복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슬로 시티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에서 1999년 10월 현대사회의 상징인 패스트 푸드에 대한 저항으로 슬로푸드 먹기와 느리게 살기(slow movement)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의 전 시장인 파올로 사투르니니(Paolo Saturnini)를 비롯한 몇몇 시장들이 모인 가운데 위협받는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의 미래를 염려하여 '치따슬로(cittaslow)', 즉 슬로시티(slow city)운동을 출범시킨 것이다(치타슬로 코리아네트워크; <http://www.cittaslow.kr>). 이 마을에는 자판기, 패스트푸드 가게, 백화점, 할인점이 없고, 주민들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광장의 보도벽돌도 주민들이 그 고장 흙으로 구워 만든다고 한다. 순전히 이곳은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형적 형태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외부에 알려져 그 자체가 지속가능한 관광지의 형태를 띤다.

슬로우 투어리즘은 slow food에서 앞 단어 slow를 가져왔고 rural tourism에서 뒷 단어 tourism을 가져와 Slow Tourism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들이 슬로우 푸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구입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

뿐만 아니라,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문화와 인근 지역의 전통문화재 탐방을 비롯한 일체의 체험활동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모든 관광행위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슬로우 투어리즘은 주로 농촌관광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신명석·서정태, 2007).

슬로시티는 1999년 국제슬로시티운동이 출범된 이래부터 현재(2013년 6월)까지 27개국 174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한국도 10개의 슬로시티가 가입되어 있다. 슬로시티 지정요건으로는 인구 5만명 이하 중소도시, 전통수공업과 요리, 자연친화적 농업 및 에너지 사용, 문화유산 지키기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치타슬로 코리아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슬로시티 인증도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치타슬로 코리아네트워크; <http://www.cittaslow.kr>). 국제슬로시티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제시하는 5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일정 수준에서 통과해야 한다.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철학은 성장에서 성숙, 삶의 양에서 삶의 질로, 속도에서 깊이와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느림의 기술(slowware)은 느림(Slow), 작음(Small), 지속성(Sustainable)에 둔다. 슬로시티운동은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섬기는 ‘속도 숭배’를 ‘느림 숭배’로 대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 로컬과 글로벌,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조화로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과 정보 시대의 역동성을 조화시키고 중도(中道)를 찾기 위한 처방이다(치타슬로 코리아네트워크; <http://www.cittaslow.kr>).

슬로시티 인증제도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또는 작은 소도시)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인증(certification), 즉,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라벨’ 또는 ‘슬로시티 라벨’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슬로시티 인증마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슬로시티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에 있다. 슬로시티(치타슬로)가 담고 있는 개념적 구성은 단지 느림이란 용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철학적 의미를 제외하고는 기존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체계를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슬로시티에 대한 관심이 점점 국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슬로시티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지역으로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문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슬로시티 인증제도에서 제시되는 일정한 수준의 기준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기반시설정책, 도시의 품질을 높이는 기술과 설비, 지역전통 산업과 슬로푸드, 방문객 환대능력, 주민들의 의식수준 등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수준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슬로시티 인증을 받으려는 커뮤니티(또는 지역)나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는 이 기준을 맞

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결국 그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ODA사업은 주로 커뮤니티 기반의 관광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슬로시티와 같은 유명한 브랜드를 갖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좋은 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

(6) 자원봉사관광(Volunteer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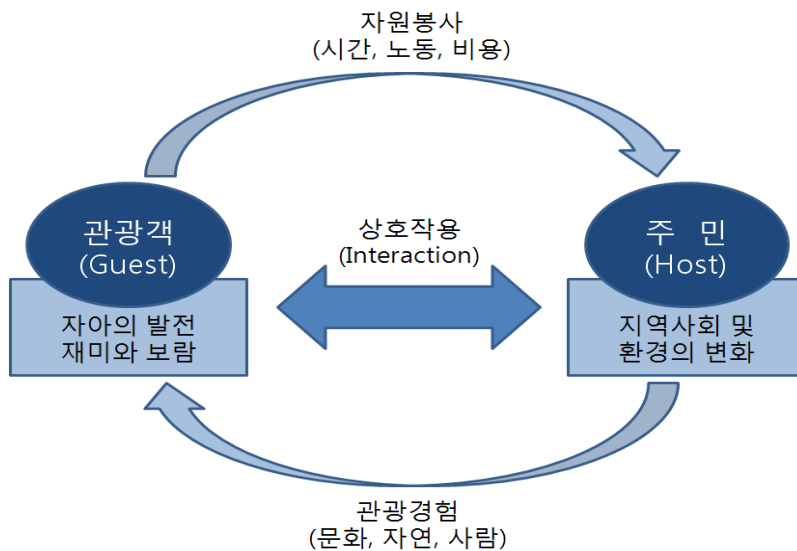
자원봉사관광(볼런티어관광)은 형편이 어려운 관광목적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화된 사회적·환경적 봉사활동을 수행하지만, 별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관광활동을 의미한다(Weaver, 2006). Wearing(2001)은 자원봉사관광을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방식으로 휴가를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물질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환경 복구 작업, 관련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McGehee & Santos (2005)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상적인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여행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과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Brightsmith, Stronza & Holle(2008)은 자원봉사관광을 생태관광의 한 형태로서 보고 환경보호 관련단체와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단체가 봉사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가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하였으며, 최영희(2009)는 관광객에게 타인과 다른 지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등 자아 발전의 기회와 관광지역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선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겸목적 관광으로 정의하였다(이원희, 2011: 재인용). 결국 자원봉사관광은 자원봉사자들이 대체로 빈곤한 지역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여가시간에 주변지역을 여행하는 관광형태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자원봉사관광의 기원은 영국과 유럽의 그랜드투어(Grand Tour)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호주 미국으로 전파되었다(Wearing, & McGehee, 2013). 자원봉사관광은 1990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천 6백만 명이 자원봉사관광프로젝트에 참가하여 8억 32백만 파운드에서 13억 파운드를 소비하고 있다(Tourism Research & Marketing, 2008). 개별적인 관광조직체도 자원봉사관광에 참가하여 최근 크게 성장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Earthwatch를 들 수 있다. Earthwatch는 1971년부터 2008년까지 과학적인 현장업무를 위해 120개국 1,350프로젝트에 9만명이 참가하여 6천 7백만 달러를 소비하고 1천 1백만 시간을 투입하였다.

자원봉사관광은 대체로 관광객 송출지역의 환경단체, 종교단체, 사회적인 비영리단체(NGOs)와 관련이 있다(Weaver, 2006). 주로 US-based Earthwatch Institute, Habitat

for Humanity, the Gibbon Rehabilitation Projects in Thailand, Conservation Volunteers Australia, US-based British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 Canadian-based Youth Challenge International, Volunteer for Nature programs 등의 단체가 자원봉사관광을 많이 수행하였다.

자원봉사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guest)은 방문 지역사회와 환경을 돕기 위한 이타적인 동기에서 일정시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과 노동, 비용을 제공하게 된다. 방문지역에서는 관광객(guest)과 주민들(host) 간의 친밀한 교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관광활동과 차별화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생태를 체험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재미있고 보람된 관광경험을 통해 보다 성숙된 자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이원희, 2011).



[그림 2] 볼런투어리즘의 개념도

* 출처: 이원희(2011), p.15.

자원봉사관광은 관광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또는 자연환경)을 위한 가시적인 편익을 즉시 발생시키는데 주력하지만, 반드시 좋은 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관광객들은 빈곤한 관광목적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타적인 동기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기계발을 하려는 자기본위적인 동기로 자원봉사관광에 참여하게 된다. 때

로는 모험적이고 자기이력을 향상시키려는 자기본위적인 측면이 빈곤한 지역사회와 훼손된 자연환경을 향상시키려는 이타적인 측면보다 더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의로움이 걸치레가 되는 이러한 경향은 자원봉사관광 역시 일반적인 대중관광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만든다(Weaver, 2006). 이러한 문제는 자원봉사관광객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훈련을 하지 않고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교체되어 방문하는 자원봉사관광객은 지역사회와 충분히 교감을 하지 않고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관광객에 대한 반가움에서 시작하여 무관심, 심지어는 반감으로도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소수)민족관광(Ethnic Tourism)

문화관광은 예술적,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산물에 의해 동기화된 여행을 의미한다(Moskin & Guettler, 1998; Edgell, 2006 재인용). 관광객들은 지역적인 차이나 인종적인 특성, 역사와 동시대의 표상과 같은 독특함을 경험하기 위해 여행한다. Urry(1990)는 문화관광을 관광객이 이국적인(exotic) 문화적 환경 내지는 분위기(즉, 문화)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형태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근대사회의 관광객이 추구하는 근대화가 침투되어 있지 않은 문화라고 하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문화에는 테마파크, 근대 유산관광, 역사관광과 같은 근대문화를 취급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WTO에서는 협의의 문화관광으로 “공연예술을 비롯한 각종 예술감상관광,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가, 명소 및 기념물 방문, 자연·민속·예술·언어 등의 학습여행, 순례여행 등 어떠한 형태건 문화적 동기에 의한 사람의 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광의의 문화관광으로는 “관광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광객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지식과 경험 및 만남의 기회를 넓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의 모든 관광 이동을 문화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관광정보, 1995).

민족관광(ethnic tourism)도 일종의 문화관광의 범주에 속한다. Wood(1984: 359-362)는 민족관광을 관광객이 독특한(unique)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즉, 민족성; ethnicity)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족성(ethnicity)은 개념적 차원에서 문화의 하위개념내지는 구성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족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ith(1989:4-5)는 문화의 속성에 의해 관광대상(attraction)을 문화관광과 민족관광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족관광이 원주민의 ‘이색적인 모습’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를 뜻한다면, 문화관광은 지방색이나 역사성 아름다움과 같은 인

간의 기억에 남는 생활양식의 흔적 등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관광이란 용어는 주로 한 집단의 전통과 라이프스타일에 중점을 둔 관광을 말하는데, 변모해가는 독특한 지역사회나 고유한 문화를 갖는 소수민족집단을 구경하고 방문하는 관광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민족관광은 근대화가 전면적으로 생활양식에 침투하지 않은 원주민 및 이국적인 풍경(exoticism)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관광 형태이다(임주환·김종은·양덕희, 2001:113).

민족관광은 때때로 다른 민족의 독특한 모습과 주거지를 보기위해 방문하는 호기심(curiosity)이란 관광동기로 기술된다(van den Berghe, 1993). 민족관광은 또한 사회를 비교하려는 동기와, 또는 다른 집단과 개인이 인간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대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찾으려는 것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동기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민족관광은 지역축제 관람, 뜨거운 불에서 걷기(fire-walking), 장례식, 결혼식, 성년식과 같은 특별한 의식에의 참석, 낚시 또는 수공예품 제작과 같은 지역 활동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때때로 민족관광은 지역주민 가족과의 식사, 마을관광, 농원체류, 색다른 길이나 탐방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과의 여행을 포함할 수 있다. 민족관광에서 지역주민과 방문자간의 높은 수준의 접촉은 다음 절에서 기술될 일련의 긍정적·부정적·사회문화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공간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사회가 관광으로 인해 개방된다면, 그 지역사회는 고유성(authenticity)의 상품화(commoditization)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Cohen, 1988; MacCannell, 1999). 관광객은 방문하는 지역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만, 관광개발이 진행될수록 지역사회에서 관광대상인 고유성은 소실되어 가는 경향이 발생한다.

비록 외부에 의해 관광개발을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민족관광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관광대상이 되는 지역사회(host) 스스로 자기들의 문화나 민족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하여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무대화된 고유성(staged authenticity)의 특성을 가진다. 지역사회가 관광객을 향하여 주체적으로 창출하는 현시적 관광공간(emergent tourist space)에 대한 성공사례는 발리(Bali)인, 나바오(Naavaho)인디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사회가 관광을 통하여 근대화나 상품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그 변화하는 상황을 수용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강화하여 재편성된다. 발리는 고유문화와 근대문명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사회적 상황을 잘 표출하고 있다(임주환·김종은·양덕희, 2001:118-120).

민족관광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모형 문화(model culture)를 채택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Stanton, 1989). 모형문화는 관광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한 고유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Stanton(1989)이 하와이 폴리네시아 문화센터(Polynesian Culture Center: PCC)의 운영형태를 소개할 때 제시한 개념이다. 모형문화는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만들어진 모조문화(fake culture)로 '문화의 박물관화'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존의 문화는 항상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인데, 박물관의 문화는 보여주기 위해 진열된 박제화된 죽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고정시켜 버린다(MacCannell, 1984: 388; 임주환 외 2001 재인용).

(8) 저탄소녹색관광(Low-Carbon Green Tourism)

저탄소녹색관광은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모든 관광형태를 의미한다. 저탄소녹색관광은 환경적 훼손이 적고, 가능한 있는 자원을 과도한 변형 없이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탄소발생량을 유발시키는 관광형태이다. 원래 녹색관광은 1980년대 유럽에서 환경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편익을 극대화하는 관광으로 이해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녹색관광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이 농촌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녹색관광은 녹색의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형태를 넘어 더 구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저탄소를 추구하고,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관광이라고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김남조, 2009). 이는 기존 녹색관광이 갖는 의미와 구별하고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모든 관광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하기 위해 저탄소녹색관광이라고 지칭한다.

저탄소녹색관광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위기를 초래하지만 오히려 산업 및 사회발전에서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저탄소화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 환경친화적인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지의 '지속 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이지훈 외, 2008).

UNWTO·UNEP(2008)는 관광을 기후변화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향후 30년 이상 관광은 세계 공동체와 행동을 함께 하면서 온실가스를 저

감시할 수 있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Gunn(1988)의 관광시스템을 저탄소녹색 관광에 적용해 보면, 녹색관광은 저탄소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녹색관광자, 녹색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녹색관광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기업의 노력을 알리려는 녹색마케팅,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기반시설,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관광매력물과 관광사업자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대중관광과 대량소비의 특성을 띠고 있는 전통적인 관광형태에서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관광수요부문(관광객)과 관광공급부문(교통, 매력물, 서비스, 정보·홍보)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이다.

저탄소녹색관광은 수요자측면과 공급자측면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먼저, 공급자측면에서 저탄소녹색관광은 관광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한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관광시설에 저탄소, 저에너지시설, 고효율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LED 조명, 심야전력 활용, 자연채광시설, 화장실절수장치, 중수조시설, 태양열온수기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관광시설모델 개발, 관광지에 친환경건축양식 도입, 탄소제로 관광/여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저탄소녹색관광을 실현할 수 있다(2009). 최근 저가의 태양광발전을 통한 LED조명이 개발됨으로써 전력공급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외딴 곳에 위치한 주택에 자가조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9) 농촌관광 (Rural Tourism)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에 대한 용어는 농촌관광(rural tourism), 농업관광(agrotourism), 농장관광(farm tourism)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용어의 출연 국가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이라는 것이다. 농촌관광은 한 마디로 농경지가 있는 농촌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광을 의미하지만 농촌관광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농촌관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야마자키(山崎光博) 외(1993: 12-13)는 농촌관광을 전형적인 농촌이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서비스의 주체가 농가나 지역주민,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농촌의 생활·문화자원 등 각종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 등을 충족하는 관광으로 보고 있고, OECD(1994)는 농촌관광을 농촌에서 발생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하면서, 농촌성(rurality)이 농촌관광의 핵심적인 부

분이라고 하였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2)는 농촌·농업관광의 개념을 농촌에 머물면서 자연경관이나 생태환경, 전통문화, 농촌생활, 농산물 생산활동 등을 구경, 관찰, 체험해보거나 지역생산물의 매매 등을 통하여 심신의 휴양과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박호균(2002)은 농촌관광은 농촌공간에서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이,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여가행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김남조(2004)는 농촌관광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유무형의 고유한 농촌문화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보전·조성하려는 지역주민의 통제와 노력으로 인해 파생되는 도시민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추구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 강신겸(2007)은 농촌관광이란 농·산·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혹은 농·산·어촌지역의 자연적·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지역주민이 이를 관광매력물로 제공하는 관광활동이라고 하였다.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초반기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이라는 정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들어 농촌지역의 역사, 문화, 관습을 포괄하는 개념적 정의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관광농업에 대하여 류선무(1998)는 농촌의 생산환경,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 자연환경을 유인요소로 활용하여 도시인을 농촌지역에 유치해서 생산(1차산업)+가공(2차산업)+유통(3차산업) 그리고 체험학습+교류가 생산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업농 경영방식의 관광농업(6차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이 농촌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다움(rurality)이 유지된 것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촌만의 자연문화, 농경문화, 전통문화, 농촌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농촌체험관광은 농촌 주민들이 제공하는 체험내용을 방문객의 감각기관과 몸을 직접 이용하여 체험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는데, 박석희(2002)는 농촌체험활동의 유형을 농산촌 지역에서 가능한 활동들을 자연체험, 전원체험, 역사·문화체험, 친수체험, 건강·보양체험, 제작체험, 레포츠체험 등 7개로 대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15개로 중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6〉 농산촌 체험활동

대(大)구분	중(中)구분	활동내용
자연체험	자연학습	야외교실, 자연학습시설 방문 등
	자연탐방	트래킹, 하이킹, 야영, 래프팅, 뗏목타기, 산책 등
	자연채취	버섯따기, 산나물 채취, 밤따기, 도토리따기 등
	생태체험	조류관찰, 야생식물생태관찰, 야생화관찰 등
전원체험	전원감상	시골길·꽃길·강변산책, 실개천, 야생화 감상 등
	농경체험	보리밭기, 파종하기, 감자·고구마캐기, 김매기 등
	생활체험	감자·고구마·옥수수 구워먹기, 모깃불피우기 등
역사·문화체험	지역의 이해	전설듣기, 전시관, 농요 배우기, 문화유적 답사 등
	민속놀이 체험	자치기, 팽이치기, 스케이팅, 그네타기, 널뛰기 등
친수체험	수변활동	야영, 산책, 돌탑쌓기, 강돌밟기, 모래찜질, 시낭송 등
	친수활동	물싸움, 견지낚시, 수석줍기, 뗏목·줄배타기 등
건강·보양체험	이색건강체험	토담집, 온돌방, 황토찜질방, 쑥·인삼탕·마늘탕 등
	보양체험	표고버섯죽, 황기백숙·민물고기 매운탕 먹기 등
제작체험	창작활동	도자기 빚기, 흙공예, 짚공예, 새끼꼬기, 한지뜨기 등
레포츠체험	레포츠 활동	산악자전거 타기, 래프팅 등

* 출처: 박석희·정현영(2001). 농산촌 경관 및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경기대학교 논문집』.

Lane(1994)는 농촌관광의 중요한 요소로 농촌지역, 기능적으로 농촌성을 띤 것(예: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소규모의 사업체, 오픈스페이스, 자연과의 접촉성, 문화유산, 전통사회와 전통기술 등), 지역사회의 활동과 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참여 허용, 개인적 접촉 허용, 건물과 주거지의 농촌성, 느리면서 유기적인 성장, 지역 가족들과의 유대와 같은 전통적인 특성, 농촌의 환경·경제·역사·위치와 같은 복잡한 패턴으로 표현되는 다양성, 지역사회에 편익을 주는 높은 비율의 관광재정 등을 꼽고 있다. 농촌관광의 성공은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광매력물에 달려 있다. 관광지도자는 매력물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관광경제를 계획·관리해야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관광객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사회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갖춘 지도자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

농촌관광은 농업을 기반으로 농산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보전·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도시민과 인적, 물적 교류를 추구하는 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농촌관

광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농촌관광목적지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촌관광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상기내용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해보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과 관광의 관계는 기본적인면서도 매우 복잡한 것으로, 이들 사이에는 종종 ‘공생’이라고 말하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 관광은 양질의 환경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들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받기 때문이다(김성일·박석희, 2001). 이에 일부시각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특히, Wheeler(1993)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이기적인 관광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관광개발에 있어 어떤 유형의 개발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성이 미래에 지속가능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은 불분명하고 그것이 완전히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관광에서 완전하게 추구하지 못할지라도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ODA부문의 관광개발이라면 그 어떤 관광개발보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New Tourism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WT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의 마닐라 공동선언(198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화로운 관광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인간환경보호, 증진·개선은 가장 근본적인 조건들이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관광관리를 통해 물리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 개발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⁷⁾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7) 원문: ‘rather detracts from their moral authority and constitutes an offence to the spirit of authenticity which must pervade tourism as a vehicle for peace, harmony and mutual respect among peoples and for knowledge of the world and its truth,’(WTO, 1982: 2).

제2절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광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되어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관광의 효과는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1. 관광의 경제적 효과 및 역할

관광은 상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유통을 통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통적인 산업영역인 제조업과는 달리, 관광으로 인한 수입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소비에 의해 발생한다. 관광객의 소비는 1차적으로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여객운송업, 서비스업을 통해 발생되며, 이러한 영역을 조성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차적인 농업, 건설업, 공예품 가공업 등과 같은 산업군을 통해 지역 전반에 걸친 후방연관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광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은 통상적으로 긍정적 측면의 편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소득발생, 고용창출, 경제구조개선, 경제발전 도모, 국제수지 개선 등을 통해 발생한다.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관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은 매우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고용창출이 클 뿐 아니라 간접적인 연관 산업도 파생적으로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광은 노동집약적이며 여성 또는 특별히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을 높은 비율로 고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또한, 관광과 관련된 고용분야는 투어가이드, 숙박업,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운송서비스, 여행사, 기념품(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으로 인한 세제수입(tax revenues)은 교육, 건강 및 인프라 개발에 쓰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빈곤경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연관산업의 간접고용효과는 관광산업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이나 각종 시설설치 등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산업의 고용창출을 의미하며, 교통·통신·기반시설, 상하수도, 교육, 공공안전, 문화서비스, 이민과 관세, 숙박과 음식 등과 관련된 연관산업들은 관

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또는 유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고용효과를 나타낸다.

둘째, 관광을 통한 소득증대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관광소득의 직접적 간접적 유발효과는 커지게 되므로, 지역사회의 제품과 서비스를 관광 공급사슬에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WTO(2004)는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 핵심전략중 하나로서 호텔 및 기타 관광 기업에서 수공업품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관광은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관광개발을 통한 토지의 이용의 변화, 관광과 관련된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을 통해 크게 경제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은 관광산업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민박운영, 농장에서 수공업품 생산, 관광객을 위한 농산물 판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관광은 전방위에 걸쳐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한다.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의 관광의 효용성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각광을 받는다. WTO 또한 빈곤한 지역사회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관광의 긍정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고용을 통한 임금 수입: 관광을 통해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발고용
- 상품 판매와 서비스(또는 인과적 노동) 제공을 통한 수입
- 지역 소유의 기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배당금과 이익
- 지역 기업과 토지 임대를 통한 수입, 공동벤처사업을 통한 배당금과 세금: 이러한 소득은 중요한 개발자금을 제공하며 지역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재정이 됨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구축: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지만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

한편, WTO(2004)는 관광을 통해 빈곤을 경감할 수 있는 7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7개의 전략은 관광기업에서의 빈곤층 고용, 빈곤층이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관광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광객에게 빈곤층의 상품과 서비스 직접 판매, 빈곤층의 관광기업 설립과 운영,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수입의 세금환수로 제시되었다. 관광개발은 경제적 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빈곤국의 지역사회의 생활에 관련이 있는 생산, 주거, 교육, 환경 등 지역사회의 전체 생활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 전략

전략	세부내용
관광기업에서의 빈곤층 고용	고용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혜를 늘려야 함 주민들이 관광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생계활동이나 지역활동, 가족부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근무시간과 시간제 노동계약을 제공해야 함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단기 시간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수입과 경제적 이익을 확산시켜야 함
빈곤층이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관광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	호텔 및 기타 관광기업에서 수공업품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 소규모 공급자들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원해야 함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기준과 실천강령을 마련해야 함
관광객에게 빈곤층의 상품과 서비스 직접 판매	관광객의 이동루트와 판매거점 위치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 매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고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함 자금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해야 함
빈곤층의 관광기업 설립과 운영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특히 여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산권리를 명확히 해야 함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광기업의 개발기회를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함 훈련, 자문, 자금지원, 소규모 대출금 등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수입의 세금환수	재원마련을 위해 관광객 관련 과세 등 세금정책을 검토해야 함 관광객 입장료, 과세 등으로부터 빈곤퇴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지역적 수준의 제도를 장려해야 함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협의를 보장해야 함
관광기업과 관광객에 의한 자발적인 기부	여행사 및 관광서비스 공급자들에게 후원과 기부금 모금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기업경영자들이 자발적인 기부제도를 수립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함 다양한 기부제도에 대해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함
관광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빈곤 퇴치	관광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함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규제들을 활용해야 함 국가 및 지역차원의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에서 관광을 고려해야 함

* 출처: WTO(2004). Tourism and Poverty Alleviation: Recommendations for Action.

2.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 및 역할

관광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 사회규범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인구 구성비율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은 직업의 다양성과 교육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관광에 의존하는 저개발 국가의 부모들이 교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등교육의 총 입학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Bricker, Black, & Cottrell, 2012). 또한, 관광은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전문적이고 기업가적인 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정 형태의 관광 개발을 교육에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관광개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과세 수익을 창출하므로 이 모든 것은 초등 그리고 중등학교와 같은 공공 인프라의 제공에 적합하도록 맞춘다(Bricker et al., 2012).

한편,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사회 내 산업구조와 직업구조를 다양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광은 직업종류의 확대와 더불어 직업의 전환, 직업구조의 다양화를 촉진하는데, 특히 여성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로서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 역시 증대시키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관광 노동력의 46%는 여성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가족 구조, 고용 상태, 라이프스타일에서의 급격한 전환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비록 여성이 관광산업에서 오랫동안 유급으로 고용이 되었을 지라도, 여성들은 여전히 종적 그리고 횡적인 성별 분리를 겪고 있으며, 성적인 역할의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며, 보수 역시 관광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다(Bricker et al., 2012). 특히 최빈국 관광산업에서 여성들이 중간 관리자급의 급여를 받으면서 더 높은 관리 책임의 과중한 업무를 하며 남성보다 더 낮은 평균급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Aitchison, Jordan, & Brackenridge, 1999). 더욱이 관광은 종종 성적 착취, 밀매,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학대를 악화시키며, 인간 권리와 양성 평등에 위배되기도 한다(Bricker et al., 2012 재인용). 이에 UNWTO는 관광산업이 아동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기업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관광은 토착문화 및 역사적 유물을 보존시키고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의 상업화를 통해 토착문화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유물 및 유적지가 파괴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개도국 및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사업 계획 시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석중 외(2002)는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 문화적 효과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8〉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

구분		사회·문화적 효과 내용
사회적 효과	긍정적 효과	사회구조변화 : 취업구조변화, 토착품 생산의 발달, 소득격차의 해소, 교육기회 증가 가족구조변화 : 여성지위향상과 역할변화, 자녀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 주민의 시야확대와 외지인에 대한 편견해소 윤리적 태도와 규범의 변화
	부정적 효과	주민의 양극화: 소득격차, 관광종사자의 윤리 등 가족구조 파괴: 이혼증가, 성의 개방 등 소비지향사회: 매춘, 약물과 알콜중독, 퇴폐행위 등
문화적 효과	긍정적 효과	지역문화발전: 민속예술, 박물관 등 역사적 유물과 유적의 보존 현대적 건축양식 도입
	부정적 효과	토착문화 소멸 문화의 상업화 유물, 유적지 파괴 전통적 건축양식과 현대건물의 부조화

* 출처 : 정석중 외(2002), p.393.

3. 관광의 환경적 효과 및 역할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되지만, 환경적 측면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등 대안적인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관광을 통한 긍정적인 환경적 효과는 국립공원 네트워크 및 규율 설정을 통한 자원의 보호, 관광수입을 통한 환경보호 자금 지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빈국의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은 이전에 지역주민과 방문객에 의해 행해지던 화전식 농업, 목재수확, 사냥과 같은 무분별한 환경파괴 위협요소들을 완화할 수 있다. 자원의 조닝(zoning)을 통해 보존의 가치가 더 큰 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분류하여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에 대한 보존기준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에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자연자원에 밀접하게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교육 및 생물의 다양성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광지의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관광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 WTO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표 9> 관광의 환경적 효과

구분	환경적 효과 내용
긍정적 효과	자연환경의 보호, 국립공원 네트워크 개발 경관 및 미개발지역의 고유건축물 보존 세계적 수준의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관심증대 및 기념물 보존기준 설정 관광수입의 자원이 되는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역기후를 고려한 설계,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경관과의 조화
부정적 효과	자연환경의 파괴 조잡한 개발로 인한 경관의 파괴 방문자의 수용능력 초과로 인한 유적지 파괴 현대적 건축양식과 전통적 건물양식의 부조화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빈곤퇴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관광과 빈곤퇴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에 다루어진 관광과 개발협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담론으로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책임관광, 대안관광, 농촌관광, 공정관광 등이 거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관광협력 방안으로 이를 보다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친빈곤관광(Pro-Poor Tourism: PPT)과 커뮤니티기반관광(Community-Based Tourism: CBT)이 제시되고 있다(Van der Duim, 2005). 사실상 관광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곤퇴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초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주로 i) 사회·지역개발학적 접근, ii) 경제·경영학적 접근, iii) 범분야(인권) 연구, iv) 정책·공공협력 분야 연구, v) 환경적 접근 등의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1. 사회·지역개발학적 접근

먼저, 사회·지역개발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로 Scheyvens(2007), Carbone(2005), Novelli & Gebhardt(2009), Zapata, Hall, Linda & Vanderschaeghe(2011), Novelli & Hellwig(2011) 등을 들 수 있다. Scheyvens(2008)는 관광과 빈곤에 대한 관계를 개념적이고 이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관광이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Carbone(2005)는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개발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관광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유형(참여, 윤리, 문화, 사회, 환경,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반적인 관광전략을 통합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Novelli & Gebhardt(2009)와 Zapata, Hall, Linda & Vanderschaeghe(2011)는 지역사회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이론인 커뮤니티기반관광(CBT)모델을 근간으로 실행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CBT가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Novelli & Hellwig(2011)는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에 기여도를 높이고자 관광운영자들을 대상으로 MDGs 8대 목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빈곤퇴치에 대한 그들 개인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임산부 건강과 개선 및 질병퇴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미시적 수준에 중점을 둔 전략 및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개발의 진행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개도국의 관광개발을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초점을 두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관광을 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그치지 않고 타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적 특징에 주력하고 있다.

2. 경제·경영학적 접근

경제·경영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로는 Ashley & Haysom(2006), Spenceley & Goodwin(2008), Nadkarni(2008), Dwyer & Thomas(2012), Scheyvens & Russell(2012), Strambach & Surmeier(2013) 등을 들 수 있다. Ashley & Haysom(2006)는 상업적 관광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이때 대상이 빈곤층이라고 하여 자선방식만을 추구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PPT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잠재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사회라이센스 및 브랜드인지도를 향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Spenceley & Goodwin(2008)은 관광기업들의 고용, 구매습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시도에 대해 논하고, SUNTAT 평가 틀을 이용하여 사회경제학적 개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좀 더 확장시켜, Nadkarni(2008)는 PPT가치사슬에 기술촉진 지식흐름 매커니즘이 빈곤퇴치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매커니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개념적인 지식경영의 의미적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Dwyer & Thomas(2012)는 새로운 관광총수익 측정방법을 개발하고자 PPT의 파급성이 방문객 총수익에 대한 측정방법에 있어 편의를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며, Scheyvens & Russell(2012)는 관광사업 운영의 규모와 수준이 빈곤퇴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차원적 분석인 Ritchie의 통합연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기회, 권한부여, 보안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도출하였다. 최근 Strambach & Surmeier(2013)는 좀 더 경제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공정무역표준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로벌-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미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Ashley & Haysom (2006)과 Spenceley & Goodwin(2008)는 개도국 현지의 경제발전에 관광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윤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최빈국과 개도국의 현실로 인한 빠른 성장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균형 있는 경제개발과 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빈곤완화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범분야(인권) 연구

양성평등, 인권 및 소수민족에 관한 연구는 경영 및 경제학적 접근에 비해 관광과 빈곤 퇴치에 관한 연구에서 비교적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동욱(2011), Theerapappisit(2009), Phommavong & S rensson(2012), Ferguson(2011)의 연구가 이 영역에 해당된다. 이동욱(2011)은 태국 지역 여성들이 생태여행을 통해 어떻게 서구의 여성 방문객과 관계를 맺고 생태와 문화를 보전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아울러 관광산업에서 성적 피해자로 인식되어 온 여성들을 위해 자문화를 소개하고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는 한편 지구화의 진행에 따른 시장 자본주의의 확대에 대항할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erapappisit(2009)는 관광기업이 소수민족사회와 그들의 사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재평가되어야 하며, 빈곤감소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Phommavong & S rensson(2012)는 라오스의 소수민족관광을 대상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에서 노동력의 성별 구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민족적인 신념과 관행이 관광 노동에서의 성별 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CBT 프로젝트의 문화적 보존과 양성평등의 제고 간의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역설하며, 관광 노동에서의 성별에 근거한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 기반한 성별과 민족에 대한 이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erguson(2011)은 개발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으로 기존 관광개발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리뷰했다. 연구결과, 관광개발이 이론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이 양성평등 및 인권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4. 정책·공공협력 분야 연구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정책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에 대한 연구로는 김미옥·김민주(2010), Van der Duim&Caalders(2011), Lapeyre(2011), Chok, Macbeth, and Warren(2007), Winters, Corral and Mora(2013) 등이 있다. 우선, PPT에 관한 고찰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관광정책에 대해 논한 연구로는 김미옥·김민주(2010)의 연구와 Akyeampong(2011)의 연구가 있다. 김미옥·김민주(2010)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 관광협력 활동과 PPT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접근방식인 PPT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 관광협력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kyeampong(2011)는 관광자원은 부유한데 반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가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대, 경험과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여 가나의 관광정책을 제안하였다. Chok, Macbeth, and Warren(2007)은 PPT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정치적 관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PPT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결론적으로 빈곤을 악화시키고 PPT의 시도를 제한하는 구조적인 불공평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PPT의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의 성과와 네트워크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Lapeyre(2011)은 Namibia 지역의 관광분야에서 지역사회-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의 사회-경제학적 영향과 MDGs 목표 성취의 기여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6년, 2007년에 Grootberg lodge 파트너십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Grootberg lodge 파트너십은 자연보존, 빈곤퇴치, 자본구축, 권한부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nters, Corral and Mora(2013)는 빈곤퇴치를 위한 매커니즘으로써 이용되기에 관광과 빈곤 간의 연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나 이를 위한 실증분석이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즉, 둘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관광프로젝트에서 정확하게 통합하여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관광의 역할과 의제를 제시하였다. Van der Duim & Caalders(2011)는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PPT와 관광체인개념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24개 소규모 관광계획을 네덜란드와 코스타리카의 관광사업자를 통합하여 시장을 연계 하였다. 분석결과, 프로젝트 자체 PPT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분석을 통해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관광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토대가 구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빈곤퇴치를 위해 관광과 빈곤 간의 연계와 관광계획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이러한 협력이 사회 및 경제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MDGs 목표 성취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5. 환경적 접근

마지막으로 관광에 있어서 환경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된 연구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개발의 관점에서 환경의 지속성을 논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Mbaiwa(2011)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성취할 수 있는 관광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Okavango Delta, Botswana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개방형, 폐쇄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로 가구를 인터뷰하였다. 연구결과, 커뮤니티 기반 자연자원 관리(CBNRM,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를 통한 관광개발은 빈곤퇴치와 환경 지속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속성은 궁극적으로 빈곤국의 관광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개발 안에서 환경지속성을 논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빈곤퇴치를 위해 관광개발 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빈곤퇴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그 방법에 있어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통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와 통합이 수반될 때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3장 주요 관광지원사업 원조기관 사례분석

제1절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1. 기관의 개요⁸⁾

JICA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경제·사회적 협력을 목적으로 세운 기구로서, 1974년 ‘해외기술협력사업단’, ‘해외이주사업단’, ‘(재)해외농업개발재단’의 업무, ‘(재)해외무역개발협회’의 업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새롭게 ‘국제협력사업단’을 설립하였다. 신사업단 설립을 위한 법률은 1974년 5월 법률 제62호로 공시되어, 동년 8월 1일에 ‘국제협력사업단’이 발족되었다. 2002년 12월 법률 제136호 공시에 이어 다음해 2003년 10월 1일에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발족되고, 국제협력 실시기관으로서 보다 성과 중시와 설명책임이 명확한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JICA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등 세계 전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무상자금 협력, 노동자 원조, 기계 공여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풍부한 재원을 살려 대표 원조기구로 활약하고 있다.

JICA의 발족 당초의 사업내용은 기술협력, 청년 해외 협력대 파견, 개발투융자, 해외이주, 원조인재의 양성·확보 등이었으나, 이후 일본경제 발전이나 기술진보 등에 따라 양적 확대와 협력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업의 규모가 다양해지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JICA는 최근에 들어 관광분야 원조사업을 매우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JICA는 가나, 과테말라, 요르단, 인도,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등의 여러 국가에서 관광분야 민관협력구축 지원, 유물 보존, 관광상품 개발, 지역역량 강화, 인적자원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원조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JICA의 관광 ODA는 한 국가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프로젝트 및 관광 신규 프로젝트 진행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 신용석(2013)의 ‘관광부문 ODA 확대방안’ 보고서와 윤주(2011)의 ‘개도국 관광발전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연구’에서 발췌함

J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표 10> JICA의 관광분야 주요 프로젝트

단위 : 백만 JPY¥

국가	프로젝트명	승인금액	주요금리	운영자
Peru	Amazonas Rural Development Project	2,905	1.6	Regional Government of Amazonas
Egypt	The Grand Egyptian Museum Construction Project	34,838	1.5	The 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Sca)
Sri Lanka	Tourism Resources Improvement Project(TRIP)	2,604	0.9	Ministry of Tourism
India	Uttar Pradesh Buddhist Circuit Development Project	9,495	1.3	Ministry of Tourism, Government of India
India	Ajanta-Ellora Conserv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Project(II)	7,331	1.8 0.75	Ministry of Tourism & Culture, Government of India
Jordan	Tourism Sector Development Project	7,199	2.2	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
Thailan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II)	3,602	2.2 1.7 0.75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Indonesia	Bali Beach Conservation Project	9,506	2.5	Directorate General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Thailan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4,268	3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India	Ajanta-Ellora Conserv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Project	3,745	2.6	Ministry Of Tourism
Jamaica	North Coast Development Program	8,606	3	National Water Commission
Indonesia	Engineering Service For Urgent Bali Beach Conservation Project	279		Directorate General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India	Tourism Development Project	9,244	2.5	Ministry Of Tourism
Thailand	Tourism Development Program	6,252	3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Indonesia	Borobudur And Prambanan Archaeological Parks Construction Project	2,805	3	Pt. Taman Wisata Candi Borobudur Dan Prambanan
Indonesia	Engineering Services For Borobudur And Prambanan National Archeological Parks Project	440		Directorate General Of Tourism, Ministry Of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Tourism
Bangladesh	Dacca International Hotel Construction Project	6,400	4.5	Hotels International Limited.
Bulgaria	Sophia Hotel Project	4,832	4.75	Committee Of Reconstruction And Tourism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Public Of Bulgaria

* 출처: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al Agency

2. 대표사례

1) 가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개발 사업⁹⁾

가나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개발 사업은 2006년 2월 21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이는 관광홍보사업으로 대략 2억 5천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담당사무국은 JICA 가나 현지사무소가 담당하였으며, 파트너 국가조직은 MOTDR(Ministry of Tourism and Diasporan Relations), 타 관련 조직은 가나관광청, 가나관광연합 등이 협력하였다.

<표 11> 가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개발 사업의 개요

프로젝트명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관광개발사업		
국가	가나	협력계획	기술협력 프로젝트
사업분야	관광홍보	예산	255,652,000 Yen
담당사무국	JICA 가나 현지사무소	파트너 국가조직	MOTDR Ministry of Tourism and Diasporan Relations
사업기간	2006년 2월 21일 ~ 2009년 2월 20일	타 관련 조직	가나관광청(GTB: Ghana Tourism Board), 가나관광연합(GHATOF: Ghana Tourism Federation)

* 출처: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al Agency

최근 몇 년 동안, 가나에서는 경제개발 분야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외화를 획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전통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중요한 수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OTDR은 기술협력프로젝트 계획의 관광홍보를 위한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달성하기 위해 JICA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동 사업의 전반적인 목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형성하기 위함에 있다.

이에 동 사업에 대한 일본 측의 투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파견 전문가 투입은 없

9) 본 프로젝트 사례는 중간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후평가 자료(중간/최종투입금액 등)와 다를 수 있음.

었으며, 장비 및 기계 설비를 위한 예산으로 34만 엔이 투입되었다. 단기파견 전문가는 8명이 투입되었고, 현지비용 기준에 1차적으로 80만 엔 정도 투입되었다. 또한 상대 연수생은 8명이 투입되었고, 2차적으로 천만 엔 정도 투입되었으며, 3차적으로 2천만 엔 정도 투입되었다. 가나 측의 인원투입은 7명이 투입되었으며, 개인용 컴퓨터, 전화, 인터넷, 가구 등을 사무실에 배치하였다.

동 사업을 통한 기대산출효과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포럼을 진행시키고, 포럼의 역량을 개발하며 향후 PPP포럼활동계획과 전략을 공식화 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었다.

이를 통한 동 사업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사무국은 프로젝트 첫 해 MOTDR에 설립되었는데, 포럼의 헌법과 조직은 2008년 3월 포럼 사무국에 의해 준비된 양해각서를 통해 정립되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컨셉은 2차년도 포럼미팅에 의해 승인되었다. 2008년 6월, 총 8개의 포럼 미팅이 개최되었으며, 80~100명의 참가자들이 각 미팅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포럼 사무국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 스스로 포럼 미팅을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진행될 포럼의 계획과 전략은 어느 정도 공식화 되었으며, 인력들은 방문자 센터의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계획안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역량도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특정 모니터링 및 포럼을 위한 평가 교육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 회원들과 함께한 인터뷰에 따르면, 포럼의 설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하며,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대화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포럼은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전체 토론을 위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포럼회의에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특히, 포럼 구성원 간에는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가나의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서 평가되었다. 따라서 상기 분석결과를 통해 본 프로젝트의 초기목적은 잘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프로젝트의 사업평가는 OECD DAC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첫째, 동 프로젝트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국가관광개발계획(1996-2010), 5개년 관광행동계획(2003-2007), 국가관광개발정책(2007), 민간부문개발전략(PSDS) 3개년작업계획(2008-2010) 그리고 성장과 빈곤감소전략에서의 빈곤문제(2006-2009)와 같은 가나 국가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일본협력의 방향성 중 민간부문개발은 가나

를 위한 국가지원프로그램 중 주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 연계성이 있다.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 프로젝트 활동에 높은 이해가 있어 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였다는 평가이며, PPP 포럼은 가나의 매스미디어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둘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가나의 정책과 PPP포럼의 평가 간의 일관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산출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중요한 가정 및 저해요인을 찾을 수 없으며,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셋째, 동 프로젝트는 효율성면에서는 높게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8명은 2006년에서 2008년 간 가나에 파견되었으며, 파견기간, 전문성, 성과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적합하였다. 일본의 포럼 구성원으로 선별된 8명에게 2개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보고되었다. 장비는 주로 일상 물류 작업을 위해 설치되었고 완벽하게 활용되었다. 대응인원 7명이 할당되었으나, 프로젝트 책임자와 관리자는 프로젝트 활동에 완벽히 참여하였던 것에 반해 포럼사무국의 일부 직원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넷째, 동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전체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부정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관광명소, 인프라, 인적 자원, 마케팅, 국제표준투자를 위한 실무자들의 활동은 프로젝트 종료 후, 몇 년 안에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서비스의 OJT는 톨립호텔에서 실시되며, 그들은 이미 교육부에 대학 및 직업훈련과정을 제안하였다. 가나관광기금(GTF)과 같은 관광 부문의 재정은 마케팅과 교육을 위해 제안되었다. 이는 2008년 6월에 초안을 통해 MOTDR에 제출되었으며, 2009년에 승인되었다. 일본의 교육을 통한 관광의 필요성 인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투어를 연구하는 것은 참가자 자신들의 마케팅, 관광서비스 및 지역 사회 수준의 관광진흥에 대한 지식습득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가나와 그 지역 이웃나라 간의 관광지 차별화에 더욱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동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중간 수준으로 판정되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가관광개발정책과 PSDS 간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PPP포럼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게 인식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포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지식은 가나 직원에게 모두 전달되었기 때문에 포럼의 운영은 지속가능할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적인 측면을 위해 가나관광기금(GTF)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가나관광기금은 포럼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원천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MOTDR이 좀 더 널리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기관의 능력 강화 및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사무국 직원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이용한 프로젝트 접근은 특정 그룹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PPT포럼으로 파일럿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공공의 리더십과 민간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포럼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포럼이 다양한 부문과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솔직한 토론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특정 계층의 지배적인 혜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상호 신뢰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 3자의 참여 및 협력이 이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하다.

2) 이집트: 그랜드 이집트의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¹⁰⁾

이집트의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 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63개월 간 진행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관광개발의 건설협력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참여기관은 JICA 현지사무소와 이집트 정부뿐만 아니라 SCA(The 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등이 협력하였다.

<표 12> 그랜드 이집트의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 사업의 개요

프로젝트명	그랜드 이집트의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The Grand Egyptian Museum Construction Project)		
국가	이집트	협력계획 (사업분야)	건설협력 프로젝트 (관광개발)
총 사업비용	69,861,000,000 Yen	기관실행 및 관리유지	The 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SCA)
사업기간	2006년 4월 ~ 2011년 6월 (63개월)	대상지역	이집트 Giza 부근 (카이로 남서쪽에서 15km지점)

* 출처: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al Agency

이집트는 관광산업이 에너지수출, 수에즈 운하수입 등과 함께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이며, 관광산업이 4대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집트는 역사와

10) 본 프로젝트 사례는 중간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후평가 자료(중간/최종투입금액 등)와 다를 수 있음.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지로써의 매력을 한층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이집트정부는 역사, 문화 유산, 건물 및 노후된 시설 등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이미 룩소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적합한 지역을 선별하여 박물관 건설을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문화유산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초기 수집 양이 과하게 증가하였고,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건물의 확장이 어렵게 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전시기술을 선보여야 했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적 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래 박물관은 주요관광명소뿐만 아니라, 보존, 복원, 전시, 연구 및 교육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반해, 이집트 정부는 당시 국가 상황에 있어 이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다고 직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이집트의 사회경제 발전의 5년(2002년-2007년) 계획에 지정된 매우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목적은 카이로 남서쪽에서 15km 떨어진 Giza지역의 새로운 박물관 건설을 설립함으로써 이집트의 역사,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 및 보존, 복원, 전시, 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관광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의 기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집트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 사업에 대한 투입은 다음과 같다. 기술력과 그 외 투입된 사항은 박물관 주요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전시 공간 35,000m² 이 사용되었으며, 전시시설의 건설, ICT건설, 보존 및 복구센터의 건설, 토지개간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는 프로젝트관리컨설턴트(운영관리계획, 운영 및 유지시스템의 강화, 지원절차, 건설관리), 건설과 전시를 위한 세부 디자인이 기획되었다.

동 사업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젝트의 수명기간은 2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후, 2013년을 기준으로 측정된 관광객 입장객수는 대략 5백만 명이었고, 입장료는 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복원된 문화재 수는 5천 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수익률을 살펴보면, 재정적 내부수익률(FIRR)의 경우 프로젝트비용, 운영 및 관리비용 대비 입장료와 예산수익 및 기타에서 이익을 창출하며 총 4.1%의 재정적 내부수익률을 달성하였다. 경제적 내부수익률(EIRR)의 경우 프로젝트비용(세금제외), 운영 및 관리비용 대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적인 추가 수익률이 향상되어 총 30.8%의 경제적 내부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리랑카: 관광자원개선프로젝트¹¹⁾

스리랑카의 관광자원개선 프로젝트 사업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56개월 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동 사업을 위해 참여한 기관은 JICA 현지사무소와 스리랑카 정부 및 관광부 외에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이 협력하였다.

〈표 13〉 스리랑카 관광자원개선 프로젝트 사업의 개요

프로젝트명	스리랑카 관광자원개선 프로젝트(Tourism Resources Improvement Project)		
국가	스리랑카	협력계획 (사업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 (관광개발)
지원국가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총 사업비용	3,472,000,000 Yen
실행사무국	관광부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기관	호텔 학교, 도로개발청, 지방도로개발기관, 중앙문화기금, 시의회 등
사업기간	2006년 5월 ~ 2010년 12월(56개월)	대상지역	스리랑카, Anuradhapura, Nuwara Eliya, Begombo, Kandy, and Colombo

* 출처: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al Agency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해변, 불교문화를 자랑하며, 세계 7대 문화유산지로 선정된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스리랑카의 정부는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1966년 관광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관광산업이 외화수입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이는 스리랑카 경제발전에 있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관광지의 인프라 및 인적자원이 부족하였고,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실패함으로써 주변 아시아 국가 보다 소수의 외국인 관광객만이 방문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동아시아, 일본 등의 잠재수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사이트, 루와라 엘리아 리조트 지역, 시기리야, 아루가다푸라 등의 6개 지역에 대한 관광인프라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 사업은 해외 경제 협력 지원에 대한 JBIC의 중장기 전략의 우선 과제로 선정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인적자원개발 지

11) 본 프로젝트 사례는 중간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후평가 자료(중간/최종투입금액 등)와 다를 수 있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관광개발을 통해 스리랑카의 외국인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6대 관광지 인프라를 확장하며 일본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여행 업계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의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 사업은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장비조달 및 서비스를 위해 마케팅 및 홍보(일본시장조사 및 홍보활동), 인적자원개발(관광산업을 위한 호텔학교 장비조달 및 건설, 강사교육 등), 인프라개발(도로건설, 도시미화, 시기리야, 아누라다푸라, 누와라엘리야 등의 문화유산 개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활동(지역주민과 청소캠페인실시, 방문자에 대한 환대교육 프로그램 등),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스리랑카 관광자원개선 사업의 평가지표

Indicator	2004	2013(사업종료 후 3년)
일본관광객(thousands/year)	20	120
관광객(thousands/year)	566	1,452
Negombo	58	148
Sigiriya	99	253
Anuradhapura	6	16
Nuwara Eliya	29	75
관광수익(Sri Lanka) (Rs million/year)	42,000	108,000
호텔투숙객(thousands/year)	4,394	11,250
연수학생(per year)	721	1,081

* 출처: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al Agency

내부수익률을 살펴보면, 재정적 내부수익률(FIRR)의 경우 프로젝트비용, 운영 및 관리비용 대비 호텔학교 졸업생 배출, 수업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증가에서 이익을 창출하며 총 28.5%의 재정적 내부수익률을 달성하였다. 경제적 내부수익률(EIRR)의 경우 프로젝트비용(세금제외), 운영 및 관리비용 대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적인 추가 수익률이 향상되어 총 23.6%의 경제적 내부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수명기간은 25년이었다.

제2절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

1. 기관개요

NZAID(New Zealand Aid programme)는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창구로서 ‘빈곤에서 해방된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라는 비전하에 외교통상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2002년 발족되었다. NZAID는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태평양 지역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외원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의 공적개발원조(ODA) 대 국민총소득(GNI) 비율은 2007~2008년 기간의 0.3%에서 2010~2011년 기간 0.35%까지 증가하였다.

주요 전략방향은 태평양지역 국가, 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경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NZAID에서는 농업, 어업,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상수도 및 위생시설, 민간부문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부문을 통한 개도국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관광을 중요한 개도국 지원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2011/2012년은 전체 지원분야 대비 관광부문 지원은 3.0%로 나타났으며, 2012~2015년 ODA 지출계획 총액은 85,770만 US달러, 이 중 4.0%(5,960만 US달러)가 관광분야에 지원될 계획이다.

이와 같이 NZAID가 관광을 주요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뉴질랜드가 자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관광산업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관광브랜딩 및 마케팅 캠페인으로 유명하며, 관광산업이 186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의 접근으로서 “clean and green”이라는 마케팅 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개도국의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사업에 적합하다. NZAID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부터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관광객 평균 지출액과 훈련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15〉 NZAID 관광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내용
목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부터 수익 창출
기대되는 결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부터 증가된 수익, 소득 그리고 고용
성과지표	관광객 평균 지출액 및 훈련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남성 여성비율)

2. 관광개발 사업부문

NZAID의 관광을 통한 지원은 리더십향상, 각계부문의 합동, 질적으로 우수한 숙박 및 활동지원, 보존 및 환경관리 개선, 관광에 필요한 기량 개선, 시장의 관심 형성,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관광부문에 연결, 자료수집과 연구투자 등 다음과 같이 7가지의 핵심 지원유형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 16〉 NZAID의 관광개발 사업부문 핵심 지원유형

핵심 지원유형	내용
리더십 향상, 각계 부문의 합동	정부 전반적인 관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파트너 정부를 지원하고자 함 파트너 정부가 관광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사업허가와 관련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함 민간 부문이 관광정책개발과 전략적인 관광의사결정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질적으로 우수한 숙박 및 활동 지원	품질규격의 개발을 포함한 질적으로 우수한 숙박시설의 발전을 지지함 숙박공급자가 상업금융으로의 접근을 통해 숙박업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함
보존 및 환경 관리 개선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부문이 관광을 자연 및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지함 유산, 문화 및 자연 장소의 업그레이드와 관리를 도움 생태관광 개발을 지지함 오수관리, 생태계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지지함
관광에 필요한 기량 개선	호스피탈리티 능력 훈련 프로그램, 직장 애착도와 장려제도(특히 여성)을 지지함 비즈니스 관리 훈련 및 관광 관련 훈련을 지지함
시장의 관심 형성	국가 수준의 관광목적지 브랜드, 마케팅 전략 및 캠페인 및 관련 마켓리서치의 개발 및 실행에 자금을 지원함 태평양으로의 전반적인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한 남태평양 브랜드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탐구함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관광부문과 연결	지역 제품 및 서비스의 구입 촉진 크루즈 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관광기회 편익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함
자료수집과 연구 투자	모든 관광 계획은 철저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보증함 지역의 통계수집,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지역의 공동작업 격려

2002~2010년 사이에 NZAID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관광사업에 지원을 하였다. 아래와 같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오세아니아, 필리핀, 사모아, 통가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사업 유형을 통해 지원을 하였다.

<표 17> NZAID 2002~2010년 관광개발 관련 자금지원 현황

단위 : 1,000 US\$

년도	지역	지원 프로젝트 명	지원목적	지원 금액
2007~2008	캄보디아	Angkor Heritage Park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463.0
2006	중국	Regional Tourism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9.7
2003~2004, 2008	피지	Environmental Tourism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096.6
2004	피지	Waisale Reserve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7.6
2002~2005	인도네시아	Gunung Rinjan Nat Park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086.9
2002~2008	라오스	Nam Ha Eco-tourism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401.7
2008	오세아니아	Whale-watching Development in Pacific Island Count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43.6
2003, 2005, 2008	필리핀	National Eco-tourism strategy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101.0
2002~2006	사모아	Tourism Support Fund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433.1
2003~2004	사모아	Tourism Development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85.1
2008	남아프리카	Fair Trade in Tourism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3.5
2008~2010	통가	Support to Tourism Tonga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690.7

* 출처: Resource Mobilization Information Digest(2013). ODA Assistance marked for biodiversity by New Zealand

좀 더 최근인 2012년 NZAID의 관광부문 개발은 다음과 같이 주로 사모아, 바누아투, 통가, 쿡아일랜드, 니우에와 같은 태평양에 위치한 지역에서 관광분야 국가 계획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표 18> 2011~최근 NZAID지원 관광사업

단위: 10,000 US\$

년도	지역	지원유형	지원금액	성과
2012~2016	룩아일랜드	핵심 인프라시설의 개선	1,250	• 2011/12년에 방문객 수가 7.2% 증가했으며, 2012/13년에는 4%가 증가하였음 • 또한 연차서베이에서 방문객 만족도가 꾸준히 94%로 유지되었음
2011~2012	니우에	리조트 객실 시설 및 인테리어 개선사업, 추가적인 숙박업 건설사업, 주차장 개선 사업 등	1,400 (다른부문을 포함한 지원금액)	• 2011년 9월 방문객 수가 2009년 대비 26% 증가했음 • 해외 방문객의 지출액은 2009년 대비 41% 증가함 • 관광객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의 수가 2010년 115개에서 2011년 170개로 증가함
2011~2015	사모아	마케팅 지원 및 상품개발, 훈련, 인프라시설	2,000	자료 없음
2011~2013	통가	통가 관광지지 프로그램	470	자료 없음
		Eua 공항 런웨이 및 터미널 개선	280	

* 출처 : NZAID 홈페이지

특히 민간 전역의 관광 개발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의 다양한 관광개발 제약요인들을 다루고 있으며 지역 수준의 개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인력 개발에 특히 주력을 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NZAID의 주요 관광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유형과 규모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바누아투 포트 빌라 시설 재건 사업으로,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정부는 포트빌라(Port Vila) 지역의 핵심 관광 인프라시설을 재건하고 포트빌라의 국제적인 크루즈 부두가의 공공 및 관광 시설을 개선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지역 모두 심각한 파손상태에 있었으며, 해안가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광객들은 부두에 상륙하기를 꺼려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재건 프로젝트는 상공회의소, 관광국, 경찰의 노력으로 부두가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크루즈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안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뉴질랜드 사모아 학생 호스피탈리티 트레이닝 교육 사업으로, 5명의 사모아 학생들을 선발하여 단기간 호스피탈리티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賞)을 수여하였다.

학생들은 Manukau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의 4단계 인증서 또는 수료증을 완수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직업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뉴질랜드의 ACCOR 호텔의 교육을 받게 된다. 상은 사모아의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공부했거나 이미 고용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최소한의 영어 수준과 선택한 분야에서 공식적인 자격증 또는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사모아로 돌아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모아 관광 분야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 성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니우에 도로 개통 사업으로 막혀있던 니우에의 순환도로의 일부인 Hapuku-Liku 도로를 재개통했으며 이것은 니우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도로는 강력한 관광 인프라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의 개선이 니우에의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대표사례

1) 사업배경 및 개요

사례지역인 라오스의 북쪽 지방에 위치한 Luang Namtha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야생자원인 222,400 헥타르의 남하 국립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거주민들의 무분별한 목재 수확, 화전식 농업, 방문객들의 사냥 등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큰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남하 국립보호구역(National Protected Area, NPA) 관리단은 제한된 연간 예산을 받고 있었으며, 목재를 수확하거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32명의 부족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인적 자원의 부족은 이러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더욱 제한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라오스 국가관광국(Lao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이하 LATA)는 UNESCO의 도움에 의해 1999년에 커뮤니티 기반 관광계획인 ‘남하 생태관광 프로젝트(Nam Ha Ecotourism Project, NHEP)’를 착수하였다. 남하 생태관광 프로젝트는 2002년에 시범사업 단계를 종료한 후, 2005년에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에 의한 기금마련으로 두 번째 사업단계(2005~2010년)를 착수하게 되었다.

라오스의 남하 생태관광의 수혜자는 57개 마을의 3,450개 가구(총 21,227명)를 대상으로 하며, 에스닉 소수민족 마을의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지역 가이드를 훈련하며, 마을에 수입을 제공하고 국립 보호구역의 보존 노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자연자원과 보호구역 관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내용

연도별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과 자금지원 현황은 다음 같다.

<표 19> NZAID Nam Ha Eco-tourism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 US\$

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금액
2005~2006	친빈곤관광(pro-poor tourism)을 강조한 Lao PDR 국가전략 2005~2010을 마무리함 Lao PDR의 LATA와 UNESCO와 함께 커뮤니티 기반의 Nam-Ha Eco tourism 프로젝트를 개발 및 확장함	1.57
2006~2007	Lao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LATA)의 생태관광 지원계획에 대한 범위연구 완료 LNTA와 라오스 UNESCO 국가위원회와 함께 Plain of Jars Project 4개년 계획을 착수함	2.75

* 출처: Resource Mobilization Information Digest(2013). ODA Assistance marked for biodiversity by New Zealand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태관광 사업 수행에 앞서 위협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착수하였다. 위협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NPA 관리단은 보호구역의 생태적 온건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을 확인하고 순위를 매긴 결과, 거주민들이 화전식의 농업과 비목재 임산물(non-timber forest products)의 수확 및 소비, 야생동물을 사냥과 같은 위협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다른 유해한 활동들은 주로 외부인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판매를 위한 야생동물 사냥, 목재 수확이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외에도 도로 공사가 외부인의 사냥과 목재 수확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식지를 줄이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프로젝트로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보존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중요시하였다.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동의와 수입을 공유할 수 있는 메카니즘, 개선된 지역 환경관리 또는 자연자원의 보존 노력으로 인한 마을의 수입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보존은 어느 한 이해관계자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관광국(Provincial Tourism Department), 마을과 관광공급 지원자(candidate tour operator)들 간의 합의에 의해 커뮤니티 기반의 관광 코스에 대한 단일 공급자의 배제적인 접근성과 여행 그룹의 최대 규모와 빈도, 입장요금과 세금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책임은 비목재 임산물 수확과 다른 숲의 자원에 대한 지도 제공, 면허가 없는 사냥 또는 야생동물 판매의 금지, 야생동물 및 식물 보호구역으로부터 트랙을 분리하기 등을 포함하였다. 합의 도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주관광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하였다.

관광자원의 분석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는 관광활동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자원의 조닝(Zoning)을 수행하였는데, 일부 지역은 커뮤니티의 웰빙을 위해 관광지역과 분리하여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Vieng Phoukha 마을 주변에 위치한 Bor Kung 샘은 이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물 자원인 동시에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마을 주민들이 샘에서부터 분리되어 목욕하고 씻을 수 있는 넓은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 댐을 건설하여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샘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캠페인 역시 진행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과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첫 3년간은 프로젝트를 위한 광범위한 준비작업 후에 총 89명의 가이드가 훈련을 받았다.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하 프로젝트 관리단의 지지와 함께, 광범위한 커뮤니티 인식 개선과 기술 훈련을 포함한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 방법론을 이용하여 커뮤니티 참여가 이루어졌다. Luang Namtha 의 모든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환경적 민감성을 고무시킬 수 있는 정보와 교육 캠페인이 이루어졌다. 포스터, 핸드북, 웹사이트, 서면 행동적 가이드라인이 관광 정보 센터에 전시되었으며, 적절한 행동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는 호스트 커뮤니티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가이드 훈련에 어떻게 관광객과 호스트 커뮤니티 간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광범위한 생태관광 정보와 교육 캠페인이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되었으며, 민간 부문과 지역 커뮤니티들은 Luang Namtha의 관광 지속성을 강화하였다. 캠페인의 결과로 NPA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성장하고 수익적인 생태관광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와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규율들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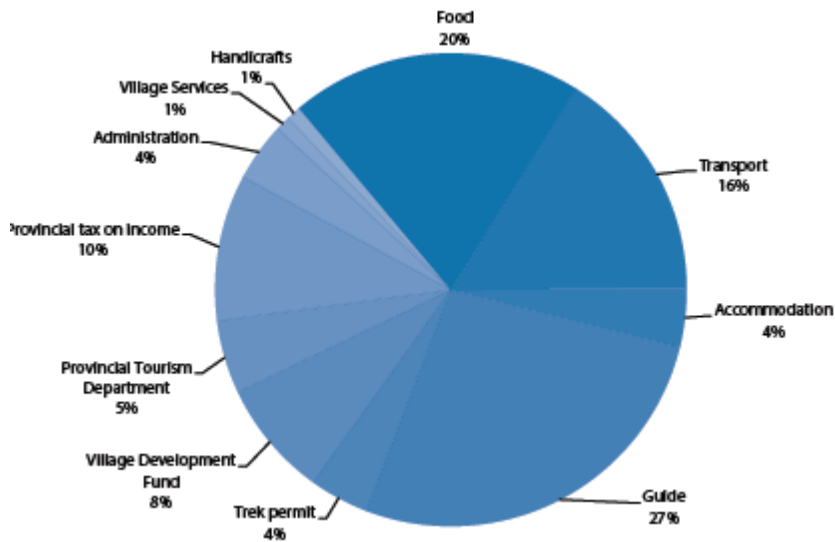
Nam Ha 생태 가이드 서비스(Nam Ha Eco-Guide Service, NHEGS)는 프로젝트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구축된 지역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이며, 8개의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하는 3개의 트레킹 코스를 운영하며 당일 보트 여행, 숙박,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남하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30개 이상의 관광 순회로가 생성되었으며, 50개의 커뮤니티가 포함되어 있다. 관광 장소의 관리는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운영 역시 마을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유지되도록 하였는데, 관광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무원들과 커뮤니티 간의 정기적인 접촉 역시 NPA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다루어졌다. 모니터링 활동은 3가지 수준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1) 관광이 주(province)의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효과 (2) 마을 수준에서 관광의 종합적인 영향, (3) 관광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대한 개인적 가구의 시각을 포함하였다. NPA 관리 직원과 지역 가이드들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은 의사결정자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 관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3) 사업성과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관광으로 인한 고용 및 수입 창출이다. 남하 생태 관광은 Luang Namtha 지역 57개 마을과 3,451가구(총 타겟 인구는 21,227명)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켰다. 숙박부문에서만 300명을 고용했으며, 추가적으로 몇 백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식음료 및 숙박 공급자로서 커뮤니티 기반 관광 활동의 पार्ट타임으로 고용되었다. 주(province) 전역에 걸쳐 관광부문은 레스토랑, 관광 관련 건설 프로젝트(여행사, 교통), 수공예품 제작 및 농산품을 관광 공급 체인에 연결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였다. 지역주민 생태가이드 서비스에서만 1999년 이래로 60만 US달러 이상이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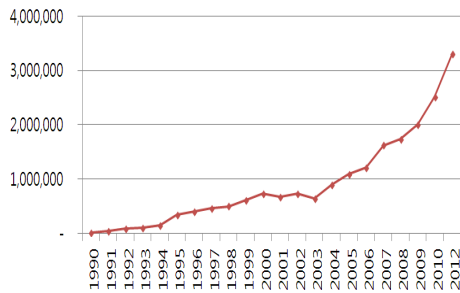
한편, 남하 생태관광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관광 수입공유 방식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 수입은 관광관리, 마을개발, 보존활동을 위한 공금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생태가이드 서비스는 관광객에 의해 지불된 트래킹 요금의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수입공유 방식에 대한 합의를 했으며, 합의 하에 정해진 비율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졌다[그림3 참고]. Luang Namtha 지역 관광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양한 공금에 기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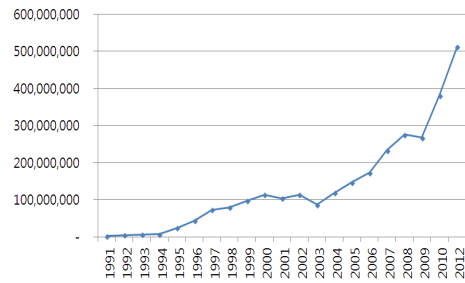
[그림 3] 생태가이드 서비스 수입의 분배

* 자료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2)

둘째, 이 지역의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의 증대이다. 라오스 관광청에 따르면 2012년 관광수입은 5억 1,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5%가 증가하였으며 관광객도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라오스를 방문한 관광객은 330만 명에 달했다. 방문객 수입 역시 2008년까지 꾸준히 성장했으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 중(총 1백만 US달러) 27%는 직접적인 공금으로 사용되었다. Luang Namtha 지역의 관광객 수는 1999년 20,700명에서 2007년 88,427명으로 증가되었다(Schipani, 2008).



Laos 1990~2012 관광객 수



Laos 1990~2012 관광수입(US dollars)

[그림 4] Laos 1990~2012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 출처 : Laos statistical report on tourism 참고

세 번째 사업의 성과로는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양성평등 이슈와 소수민족에 관한 이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2006년에는 가이드 중의 20%가 여성이었으며, 95%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Luang Namtha 지역의 소수민족 인구가 약 66%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은 지역주민들이 직업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를 대나무 또는 등나무를 모아 그 다음날 시장까지 걸어가서 운송해야 하루에 1~2 US달러를 벌었으나 사업수행 이후에는 마을로부터 멀리 떠날 필요 없이 3~6 US 달러를 벌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은 시간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집안일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사업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전에 자연자원 수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을 통해 가이드, 요리사, 수공예품 제작자, 숙박 및 운송 공급자로 고용되면서 이전의 활동을 통해 자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야생난 수확으로 1kg당 0.20 US달러를 벌던 지역주민들은 이제는 야생난을 대상으로 한 그룹의 관광객을 가이드하게 되면서 하루에 5US 달러를 벌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이 이제는 가이드로 고용이 되어 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관광객에게 안내하는 가이드업무를 하게 되었다. 지역 커뮤니티는 이제 야생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 관광으로부터의 경제적 수익과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태관광 수입은 보호구역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1999년부터 가이드서비스로만 8천 US달러 기금을, 다른 NPA 이용 요금을 요구하는 관광기업은 1만 US달러 기금을 생성시켜 자금부족을 겪는 곳에 사용되었다.

한편, 커뮤니티 멤버들은 생태 가이드로 훈련을 받았으며 마을 기반의 숙박(village-based lodges)과 숲속 캠프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커뮤니티 멤버들은 보호 구역의 생물 종의 다양성(biodiversity)의 위협요인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 보호구역 관리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남하 프로젝트는 222,4000 헥타르의 남하 자연보호구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고용과 수입을 발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이지 않은 이용을 줄이고 자연 자원의 수확을 가능토록 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빈곤을 감소하고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했다는 점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2002년에 British Airways Tourism for Tomorrow Award와 2006년에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을 수상하였다.

제3절 기관사례를 통한 시사점

관광을 주요 원조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JICA와 NZAID 두 기관의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JICA와 NZAID 모두 자국 관광산업의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수원국에서 사업을 확대하였다. JICA의 경우에는 자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관광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NZAID의 경우에도 자국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의 경험을 살려 태평양 지역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해볼 때,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중에서도 IT(관광정보), 마케팅 및 홍보, 교통시스템 등의 강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향후 관광분야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둘째, JICA와 NZAID에서 수행한 사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업은 숙박시설, 도로 건설, 지역개발, 박물관 건설, 관광편의시설 구축, 문화유적지 관리 및 보존 형태의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적 사업에서부터 교육사업, 마케팅 및 홍보와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지역개발에 있어 단편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가이드 교육사업, 수공예품 기술개발 사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병행하여 관광사업의 효과를 증대시켰다. 향후 관광분야 ODA 사업을 선정할 시에는 이러한 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지역에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원조국과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격려하여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였다.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특정 기업의 단독적인 이익창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두 기관 모두 해당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JICA의 경우에는 박물관 사업, 문화유적 보존사업, 해안가보존 및 관리 사업 등이 있으며, NZAID의 경우에도 해안가 환경개선 사업, 생태관광 사업 등이 있다. 특히 NZAID의 대표사례인 Luang Namtha 의 경우 사업계획 이전에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으며,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사업 성공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JICA와 NZAID 모두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중시했으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모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관광 ODA 사업을 선정할 때 지속가능성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관광부문 ODA사업적용 타당성 평가항목 도출

제1절 OECD DAC의 평가기준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텔파이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 앞서 1차적인 초기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기준을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도 OECD DAC의 평가기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며 대부분의 원조기관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항목 도출을 위한 큰 틀로서 적용하고자 이를 검토하였다.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였다. 이에 국제사회 및 국민들은 한국 ODA의 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원조활동 개선 수단으로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계획과 실시,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활동이다. EDCF는 5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¹²⁾. 이는 평가를 통해 완료된 사업 또는 현재 실시중인 기금지원활동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 등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기금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한 기금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발협력의 평가원칙은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그리고 파트너십(수원국의 참여도)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는 공정성을 통해 사실 확인·분석·결론·도출 등 평가 과정에 있어서 편향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성을 통해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가자의 이해관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평가는 신뢰성을 통해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용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하도록 적기에 제공되고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는 파트너십을 통해 타 공여국 및 기관, 수원국의 평가참여를 장려하며 공동평가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12) 한국수출입은행(2011). EDCF 평가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국가별 타 원조기관의 ODA 평가제도는 일반적으로 서로 조금씩 다른 평가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OECD/DAC에서 권장하는 5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ODA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표 20〉 OECD DAC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용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효율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자원성과 평가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영향력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평가
지속가능성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출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상기 DAC 5가지 평가기준은 ODA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EDCF 원조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얻은 교훈과 제언을 통해 향후 원조활동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원조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평가기준을 통해 그 사업에 대한 객관성이 향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일부 단발적인 ODA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성과가 점차적으로 가시화되어가고 있는 문제점을 되짚어보면, 좀 더 체계적인 원조사업을 통해 원조 또는 개발의 효과성 및 지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평가에 적용되는 기준들을 사업선정평가 단계에서부터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평과와 사후평가기준을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JICA는 기본적인 사업의 평가기준을 OECD/DAC의 5가지 평가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JICA는 평가시기에 따라 ODA사업을 평가하는 단계로 P(Plan), D(Do), C(Check), A(Action)인 ‘PDCA’방식을 적용하고 있다¹³⁾. P는 사업사전평가(Ex-ante Evaluation)단계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사업선정평가지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J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사업평가(Ex-ante Evaluation)은 전

13) JICA(2012). 2012 Annual Evaluation Repor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반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을 구분하여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수행된 사전적평가의 결과는 프로젝트 설계 및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한 후속의사 결정에 반영된다. 프로젝트의 필요성, 개요와 우선순위 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입하며, 사업설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개요 및 환경·사회적인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EIA(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통해 국가의 합법적인 시스템 하에 사업이 허락될 수 있는지, 환경오염측정,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지, 빈곤퇴치를 위한 파급력, 사회발전기여정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양적으로 예상하기 위해 Performance Indicator, Internal Rate of Return, Risk Control 등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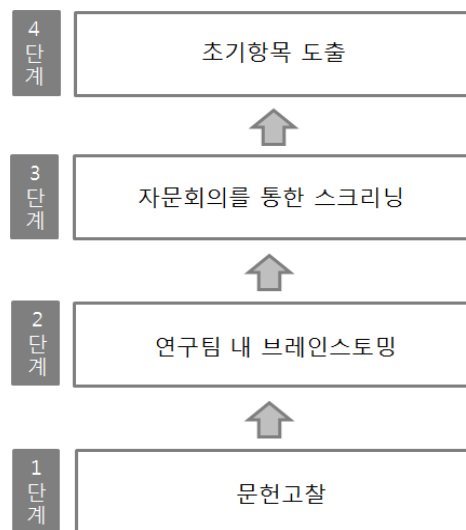
관광부문은 타 분야와는 달리 관광객의 방문과 지출로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과 계획대상이 지닌 관광자원 유형별로 관광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평가 기준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광범위하다. 예컨대, 관광분야는 관광객의 방문 및 지출을 통해 그 수입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관광수요 시장에 대해 분석해야 하고, 관광수요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중요한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관광은 계획 대상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제3세계국가에서는 교통·통신·기반시설, 상하수도, 교육, 공공안전, 문화서비스, 이민과 관세, 숙박과 음식 등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관광개발은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관광기업에 좌우되어 빈곤한 지역사회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에 종속되는 경제적 현상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 결국 재화와 서비스가 변변치 못한 제3세계국가의 관광산업은 그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출되게 된다. 또한 관광은 자원접근성의 손실, 농업용지의 대체와 사회문화적 붕괴와 착취를 통해 빈곤한 사람들에게 비경제적 비용을 부과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관리와 계획이 필요하고 거버넌스와 같은 조직의 구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은 성장의 불균형 및 경제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제관광객은 관광목적지의 정치적인 소요사태,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의 빈번한 발생, 목적지의 자연재해 등에 민감하다.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관광객의 입국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결국 그 국가는 국제관광객으로부터 벌

어들이는 수입의 손실을 입게 된다. 아울러 관광객은 관광목적지를 결정하기 전에 잠재적인 관광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때 제공되는 관광정보는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관광의 특성으로 인해 관광부문 ODA 사업 선정 평가지표는 해당 사업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광분야의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부문 ODA사업선정평가지표를 위한 기준으로 OECD/DAC의 5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좀 더 체계적인 원조사업을 통해 원조 또는 개발의 효과성 및 지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관광부문의 원조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시키고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사후평가에 적용되는 기준들을 사업선정평가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광과 빈곤퇴치에 관한 선행연구 및 해외 원조기관의 관광부문 ODA 지원 사례의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관광 ODA 사업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1차적으로 선별된 요인들을 토대로 연구팀 내 브레인스토밍과 자문회의를 통한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의 델파이 설문조사에 적용할 초기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들은 OECD/DAC의 5가지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5] 초기 델파이 항목 도출 과정

제2절 초기 델파이 항목 도출

1. 적절성

적절성 평가항목은 크게 지원명분, 지원사업의 우위성, 대상지의 관광잠재력, 수원국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관광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관심정도, 수원국 수행기관의 적절성, 수원국에 대한 기여도, 타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도 등 10개의 평가요인으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명분에 대한 평가요인은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항목이다. 지원사업의 우위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관광부문사업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 등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이다. 계획 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은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이 우수한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생태적 자원, 문화유산 자원, 인문관광 자원, 접근성, 계절성, 시장성, 관광편의 시설 등에 대해 평가한다. 수원국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은 관광부문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이며, 관광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관심정도는 관광사업에 대해 수원국의 참여정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해 평가항목이다.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관심정도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며, 수원국 수행기관의 적절성은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항목이다. 아울러 수원국에 대한 기여도는 본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계획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 평가이며, 타사업과의 중복성은 타 공여국의 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현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가 후속사업으로 참여가능한지와 어떤 유형이 가능한지에 대해 평가한다.

<표 21> 적절성 평가요인

평가요인	평가항목	평가질문
지원명분	사업대상지 선정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가	MDGs 실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인가?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가?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협력전략(CPS) 상 세부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수원국에 지원

우위성	최선의 방법인가? 관광부문사업(세부분야, 지역, 수혜계층 등)에 대한개발 우선순위	되는 타사업보다 관광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유리한가?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자원성-자연, 인종/문화)이 우수한가?	자연 생태적 자원	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 자연자원이 우수한가? 어떤 유형의 자연자원이 존재하는가? 그 규모는 어떠한가? 충분히 매력적인가?
		문화 유산 자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기념물, 민속문화재, 특산품 등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 대표적인 문화재는 무엇인가?
		인문 관광 자원	소수민족, 고유문화, 관광농원, 농업지구, 도시경관, 마을, 축제, 기존관광상품, 음식, 기념품등과 매력물이 있는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접근성	주요 시장으로부터 접근성은 양호한가? 주요 간선도로로부터 접근성은 양호한가? 주요접근로(항공, 철도,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도보/탐방로 등)는 무엇인가?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있는가?
		계절성	대상지(국)에 계절성이 나타나는가? 어느 정도 계절성이 나타나는가?(1계절, 2계절, 3계절, 4계절)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계절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시장성	인근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관광지)가 있는가(경쟁성, 독립성, 보완성 조사)? 잠재적인 목표시장은 어디/누구인가? 잠재적인 목표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주로 어떤 유형의 관광객이 방문하는가(방문할 것으로 보이는가)?
		관광 편의 시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시설이 있는가(숙박, 음식점, 정보센터, 체험 시설, 공동화장실-샤워장 등 기타 편의시설)? 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기존 시설로 관광객을 서비스할 수 있는가?

수원국 개발계획과 의 연계성	관광부문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 획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는가	수원국에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이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전략과 부합하는가?
관광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관심정도	관광사업에 대한 수원 국(지역사회)의 적극적 인 참여 정도	수원국이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가? 관광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참여 열의)이 높은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무관심, 호의적, 정부/주민/개발자 간 이해대립,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하지 못함)은 어떠한가?
수원국(대상 지)의 이해관계자 관심정도	본 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 력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직접 또는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분석 하고 있는가?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그룹이 명확하게 지정되었고 수혜를 받는 집단이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는가? 프로젝트 활동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수원국 주민-정부 간 해당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 는가? 갈등관계가 있다면 동 프로젝트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업 수행 시 사업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이해관계자 는 없는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그룹(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하 고 있는가? 수원국의 관광관련 개발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가?
수원국 수행기관의 적절성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기관이 적절한가	시행기관의 역할, 법적/정치적 지위, 예산 및 인력 현황 등 고려 외부자원의 의존도 공공자원(높음-낮음), 민간자원(높음-낮음) 재원조달접근 자체노력접근, 정부간 관계접근, 조세적 접근, 기 금 접근 투자계획 (세부사항) 해외자본유치방안, 민간유치방안, 공공재원조달방안, 대안별사업성비교, 유형별투자배분 등
수원국에 대한 기여도	본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계획 달성에 기여 가능한 정도	이 관광개발사업이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계획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타사업과의 중복성	본 사업에 대한 타 공 여국과의 중복 우려	이 관광개발사업이 타 공여국의 사업과 중복되는가? 중복된다는 어느 지역, 어떤 유형의 사업과 중복되는가?
사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도	관광 사업으로 인해 우 리나라가 현지에 기여 할 수 있는 정도	비교우위 여부, 우리나라 전략 사업 ; 이 관광개발사업에 우리나라 의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가 후속사업으로 참여가능한가? 어떤 유형이 가능한가?

2. 효율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요인은 수혜자 그룹 및 수원기관의 선정으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관광개발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지를 측정하는 항목과 사업 외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연수, 국제기구 등 타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우선, 관광개발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프로젝트형 사업 외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연수, 국제기구 등 타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평가항목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여 개발의 시간적 범위로 구성하였다.

<표 22> 효율성 평가요인

평가요인	평가항목	평가질문	
수혜자그룹 및 수원기관의 선정	관광개발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효율성(투입대비산출)이 높은가?	관광개발사업은 수원국의 경제적(B/C),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타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가?	
	프로젝트형 사업 외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연수, 국제기구 등 타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는가?	개발의 시간적 범위 결정	단기, 중기, 장기 계획

3. 효과성

효과성 평가항목은 크게 단기적 성과 달성과 빈곤퇴치 역량 강화 및 공여국과의 관계, 사업달성 시 나타나는 효과를 위한 수단, 사업달성 시 나타나는 효과 등 3개의 평가요인으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 성과달성과 빈곤퇴치 역량강화 및 공여국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요인은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의 지역사회에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강화 기여도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관광개발계획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수원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 수원국의 빈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 수원국과의 신뢰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계획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는지, 공여국의 관광객과 관광사업체가 수원국의 계획대상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사업 달성 시 나타나는 효과를 위한 수단은 관광개발사업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미치는 효과정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곧 지역사회 및 관광수요태세에 대한 기여정도에 대한 평가항목이 될 수 있다. 수원국의 사람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계획, 교통, 통신, 편의시설, 보건의료, 보안 및 안전, 지역주민시설계획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달성 시 나타나는 효과는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 및 정도와 휴먼웨어적인 측면의 달성가능정도를 평가한다. 수원국의 이미지제고 가능정도는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평가하며, 휴먼웨어적인 측면의 달성정도는 지역주민 교육, 민간주체 교육, 여행자 교육, 인적자원양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표 23〉 효과성 평가요인

평가요인	평가항목	평가질문	
단기적 성과 달성과 빈곤 퇴치 역량 강화 및 공여국과의 관계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 가능성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의 지역사회에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성과를 산출할 수 있겠는가?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 강화 기여도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대상지)의 빈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가? 관광개발계획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수원국(대상지)의 빈곤을 분석하는데 기여하는가?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대상지)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수원국과의 신뢰성 정도	관광개발계획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가? 공여국의 관광객과 관광사업체가 수원국의 계획대상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사업달성 시 나타나는 효과를 위한 수단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 및 관광수요태세에 기여 정도(관광개발사업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미치는 효과정도)	관광시설계획	오래된 건물리모델링(박물관, 관광 관련시설) 숙박시설(숲 캠핑, 호텔, 홈스테이 등), 식음료(레스토랑, 카페 등), 기념품상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센터
		교통	도로 및 공항 구축 및 업그레이드, 도로표지판,

			관광지 내 이동의 편리성을 위한 교통시설 구축(최소한의 대중교통시설 등)
		통신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세팅(인터넷 네트워크), 전기시설 도입 및 세팅
		편의시설	산업기반시설(은행, 주차시설 등), 위생시설 구축(화장실 등)
		보건의료	보건시설, 병원
		보안 및 안전	관광지내 보호구역 설정, 보안기관 및 경찰서비스
		지역주민시설 계획	직원주택 및 편의시설, 지역주민의 웰빙을 위한 시설
사업 달성 시 나타나는 효과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 가능성 정도	마케팅	시장세분화, 포지셔닝, 마케팅믹스전략, 등
			적정가격 책정, 계절별 관광지 전략구축, 기념상품개발, 관광관련 정보 인프라구축(가이드북, 홈페이지 구축 등)
			방문객을 위한 적절한 레스토랑 메뉴개발, 관광지경쟁전략 등
		홍보	관광관련 홍보
			빈곤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가 갖는 독특한 관광이미지 창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휴 먼웨어적인 측면의 달성 가능정도(교육의 제고)	지역주민 교육	관광가이드교육 프로그램, 종사원 서비스교육 프로그램, 현지인의 환경인식 교육 프로그램, 현지인의 관광에 대한 인식 교육, 외국어 교육
		민간주체 교육	에너지 절약교육, 관광의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관광지내 사업운영자교육)
		여행자 교육	방문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광객의 소비교육 혹은 책임관광에 대한 인식)
		인적자원양성	자원봉사자, 관광교육 트레이너양성, 관광개발을 위한 리더양성, 관광정보가이드 및 관광안내원 육성

4. 영향력

영향력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달성 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위험요인 및 위기관리, 범 분야와의 연계성 등 3개의 평가요인으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달성 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사업수행 결과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사업달성 후 위험요인 및 위기관리 평가요인은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다. 범 분야와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요인은 성평등 관점이 사업에 고려되었는지, 환경 주류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표 24〉 영향력 평가요인

평가요인	평가항목	평가질문	
사업달성 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사업 수행 결과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설정	관광개발 기관설립 및 조직형성, 관광사업의 주체 정의 및 역할 수준에 대한 설정(지역주민, 외지인)
		비자문제	비자신청과정의 간소화
사업달성 후 위험요인 및 위기관리	관광개발사업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 여부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	과다한 관광개발 비용 경제적 누출(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지역 내 경쟁적 물가상승
			경제적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	주민의 양극화(소득격차, 고나광산업 종사자 유리) 가족의 파괴(이혼증가, 성개방) 소비지향 사회(매춘,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퇴폐) 안전 및 보안의 문제, 토지이용 및 도로교통의 혼잡 토착문화 소멸, 문화의 상업화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	자연환경의 파괴, 조잡한 개발로 인한 경관의 파괴, 방문자의 수용능력 초과로 인한 유적지 파괴, 현대적 건축양식과 전통적 건물양식의 부조화
			환경적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사업달성 후 범분야와의 연계성	성평등 관점이 사업에 고려되었는가/또는 고려 가능한가	여성 고용비율, 여성의 교육기회 제공	
	환경 주류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관광지 수용능력 평가	
		문화 및 역사유적지의 손상정도	
		대기, 수질, 소음수준, 쓰레기 처리시스템	

5.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은 사업종료 후의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이 구축되었는지, 수원국의 오너쉽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지, 기술이전/시범운영 등 운영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절한지,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지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25〉 지속가능성 평가요인

평가요인	평가항목	평가질문
지속가능성	사업 종료 후의 관리방안,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 있는가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기관 및 시스템의 구축
	수원국의 소유권(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수원국의법/제도,구체 개발프로그램이 있고, 수원기관이 이행 권한/예산/인력을 확보 했는가 등)	관광 관련 규제개혁 가능성이 있는가 관광 관련 노하우가 있는가 관광 관련 예산 및 인력이 있는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자체 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기술 지원/자체 운영가능모델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관광객 예약 서비스 및 안내서비스 기술 지원
	기술이전/시범운영 등 운영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절한가	세부 관광계획별 기간의 적합성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가	관광객 수요조사

제5장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 도출

제1절 델파이 분석

1. 델파이 분석 기법

본 연구는 관광의 다양한 스펙트럼적 특성과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광부문 ODA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ODA사업과 관련된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 및 ODA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델파이 기법은 어떤 문제를 예측·진단·결정함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분석하고 종합하는 하나의 조사방법으로, 면밀하게 계획된 반복적 질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익명(anonymity)으로 진행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한데 모여서 논쟁을 하지 않고서도 집단성원의 합의를 유도해낼 수 있는 조사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회의 등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동일 전문가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는데 각각의 연속적 질문은 이전 회의 질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반영하여 실시되므로, 질문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예측이 서로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델파이 기법은 토론 참여자들에 대한 익명의 반응이 보장 되어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을 통해 횟수를 거듭할수록 집단반응이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정보로 수렴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델파이 기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4장의 사전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토대로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며, 국제개발 및 협력 실무자와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선정하고자 한다.

〈표 26〉 델파이 기법 단계

단계			내용
사전연구	요인도출		ODA사업 관련 선정지표 및 관광분야 문헌고찰을 통해 요인도출(4장)
	패널 설정		국제개발협력 실무자와 관광 분야 전문가 구성
델파이연구	1라운드	설문설계	폐쇄형 질문 및 개방형 질문
		설문분석	설문결과 반영 후 수정보완
	2라운드	설문설계	2라운드 폐쇄형 질문
		설문분석	분석
평가 및 정리단계	결과의 정리 및 평가 최종 보고서 작성		

2. 패널 선정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 적절성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이종성, 2006), 연구주제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의 대표성,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적절성, 참여의 성실성, 적절한 인원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델파이 연구들은 해당 영역에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패널의 크기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서와 같이 통계적 검정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하므로 10~18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Okoli & Pawlowski, 2004),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의 대표성과 적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ODA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KOICA 국제개발 담당자 및 관련분야 공무원 14명, 국제개발 및 관광 관련분야 연구원 9명, 관광 관련분야 교수 14명을 〈표 27〉의 기준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델파이 패널로 선정하였다. 이중 최종 응답 패널은 22명으로 나타났다.

〈표 27〉 패널 집단별 선정기준 및 최종 응답 인원수

패널 집단	전문성 조건	패널 선정	최종응답 패널
KOICA 국제개발 담당자 및 관련 분야 공무원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험자	14명	7명
국제개발 및 관광 관련분야 연구원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험자 ODA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참여 경력자	9명	6명
관광 관련분야 교수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험자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ODA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참여 경력자	14명	9명

3. 조사도구

1차 설문지는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기준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델파이 질문에서부터 개방형 질문지와 함께 폐쇄형 질문지를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선정지표에 대한 질문이 매우 광범위하며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1차에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델파이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제기된 패널의 의견은 2차 델파이 조사에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1차 설문지의 폐쇄형 질문은 크게 5개의 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파트별로 해당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하위요인들의 적합성(타당성)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구분하여 ‘매우 적절함(5점)’부터 ‘전혀 적절하지 않음(1점)’으로 적절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적절성’의 경우, “관광 ODA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 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의 항목이 관광 ODA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개방형 질문의 경우 각 기준별로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 93개 폐쇄형 설문 문항으로 수정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문항별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최빈값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여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28> 델파이 조사도구

분류	내용	문항 수		척도
		1차	2차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17개 항목	24개 항목	5점 리커트 척도
효율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자원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7개 항목	15개 항목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18개 항목	21개 항목	
영향력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함	9개 항목	14개 항목	
지속가능성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13개 항목	19개 항목	

4. 자료수집 및 분석

1차 델파이 조사는 4장의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반영한 폐쇄형 문항 및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로, 전문가 패널 37명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그 중 22명이 회신(회수율 56%)하여 총 22부의 자료를 집계하였으며, 1차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응답결과 및 의견을 바탕으로 2라운드 폐쇄형 질문들을 구성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전화 및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명을 제외한 21부의 최종 자료를 집계되었으며,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였다.

1차 조사의 결과를 2차 조사의 설문지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1차 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2차 조사 설문에 추가하였다.

5. 분석결과

1) 전문가 패널의 특성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델파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ODA관련 경력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는 18명(81.8%), 여성은 4명(18.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9명(40.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7명(31.8%), 30대 5명(22.7%), 60대 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교수가 9명(40.9%)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원 6명(27.3%), KOICA 직원 4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는 관광 개발, 경제 및 정책 분야가 14명(63.6%)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개발 및 협력 분야가 7명(31.8%), 인류학이 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와 관련된 동종분야 근속년수는 평균 17.05년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 미만이 9명(40.9%), 10~20년 미만이 9명(40.9%)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이 3명(13.6%), 30년 이상이 1명(4.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ODA 참여경력은 2명(9.1%)을 제외한 20명(90.9%)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ODA 참여 분야로는 연구와 평가가 각각 모두 13명(5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지 프로젝트 참여가 8명(36.4%), 자문이 12명(54.5%)으로 나타났다.

<표 29> 전문가 패널의 특성

구 분		n(%)	구 분		n(%)
성별	남	18(81.8%)	ODA 참여경력	있음	20(90.9%)
	여	4(18.2%)		없음	2(9.1%)
연령	30대	5(22.7%)	근속 년수	10년 미만	3(13.6%)
	40대	7(31.8%)		10~20년 미만	9(40.9%)
	50대	9(40.9%)		20~30년 미만	9(40.9%)
	60대	1(4.5%)		30년 이상	1(4.5%)
직업	KOICA 직원	4(18.2%)	전문분야	국제개발 및 협력	7(31.8%)
	공무원	2(9.1%)		관광 개발, 경제 및 정책	14(63.6%)
	연구원	6(27.3%)		인류학	1(4.5%)
	교수	9(40.9%)	ODA 참여분야	연구	13(59.1%)
	사무직	1(4.5%)		현지 프로젝트	8(36.4%)
				평가	13(59.1%)
				자문	12(54.5%)

2) 델파이 분석 결과

(1) 1차 조사 분석 결과

델파이 패널로 선정된 3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활용된 질문지(부록 1 참조)는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한 요인을 토대로 반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주요한 조사 내용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영역별 하위 평가 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수정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패널 38명 중 22명이 회신하여 회수율은 57.9%였다. 각 영역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적절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적절성 하위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평균 3.5 이하의 항목은 ‘3-7.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3.41)’ 항목 1개로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한 패널들의 지적 및 수정사항은 관광 ODA사업의 수원국 개발전략 부합 여부, 한국의 우선순위 정책 부합 여부 항목의 추가와 관련된 문제였다. 또한 일부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표 30〉 적절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적절성	1. 수원국(수혜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4.09	.750	4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4.05	.844	4
	3.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4.25	.639	4
	3-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4.27	.550	4
	3-2.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4.32	.477	4
	3-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4.27	.550	4
	3-4.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우수한가?	3.73	.985	4
	3-5. 대상지(국)의 계절성은 어떠하며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3.55	.671	3
	3-6. 주로 어떤 유형의 관광객이 방문하는가(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3.71	.717	3
	3-7.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3.41	1.008	4
	4.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4.00	.816	4
	5.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지역사회)의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4.23	.813	4
	6.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donor harmonization)?	3.86	.774	4
	7.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4.14	.710	4
	8.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4.50	.740	5
	9.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4.18	.733	4
	10. 관광ODA사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3.68	.646	4

② 효율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효율성 하위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항목들의 평균은 3.5 이상으로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에 대한 패널들의 지적 및 수정사항은 관광 사업의 경우 경제적 BC 효과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의 외부경제 효과는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단기 및 장기적 경제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광 부문의 효과가 수혜국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의견,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사용하였는가? 의 항목 추가에 대한 의견 등의 제시되었다.

〈표 31〉 효율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구분	항목	Mean	SD	최빈값
효율성	1. 관광 ODA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대비산출)이 높은가?	4.09	1.065	5
	2. 관광 ODA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3	.612	4
	3. 관광 ODA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3	.685	4
	4. 관광 ODA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09	.750	4
	5. 관광 ODA 사업이 타 사업(예:인프라구축)에 비해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은가?	3.82	.853	4
	6. 관광 ODA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3.95	.999	4
	7.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4.05	.722	4

③ 효과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효과성의 하위평가 항목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효과성의 경우에는 3.5 미만의 항목은 ‘4-5. 보건시설,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가?(3.45)’ 1개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효과성에 대한 패널들의 지적 및 수정사항으로는 관광ODA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대부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과 사업자체의 효과와 외부효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2> 효과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구분	항목	Mean	SD	최빈값
효과성	1.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3.59	.854	4
	2.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4.36	.727	5
	3. 관광개발계획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관계에 신뢰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보는가?	3.91	.868	4
	4.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4.23	.813	5
	4-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27	.631	4
	4-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86	.834	4
	4-3.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64	.790	3
	4-4. 산업기반시설(은행,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위생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59	.959	4
	4-5. 보건시설,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가?	3.45	1.057	4
	4-6.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3.82	.795	3
	4-7.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82	.733	4
	5.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3.95	.575	4
	5-1.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3.86	.560	4
	5-2. 홍보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3.77	.612	4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4.05	.844	5
	6-1. 지역주민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4.05	.785	4
	6-2. 민간주체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3.91	.750	4
	6-3. 여행자 교육으로 이들의 인식이 제고되는가?	3.45	.671	3

④ 영향력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영향력의 하위평가 항목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향력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잘 구성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영향력에 대한 패널들의 지적 및 수정사항으로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중기적, 장기적 성과가 달성이 가능한가?’라는 항목 추가의 필요성과 관광 분야에 특화된 영향력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3〉 영향력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구분	항목	Mean	SD	최빈값
영향력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05	.785	4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00	.816	4
	1-2. 법 및 관련계획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3.95	.785	4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00	.690	4
	2-1.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77	.685	4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95	.722	4
	2-3.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05	.722	4
	3. 관광ODA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고려되었는가?	3.55	.963	3
	4. 관광ODA사업에 환경주류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3.73	.827	4

⑤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성의 하위평가 항목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4〉과 같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하위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균값은 모든 항목에서 3.5 이상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항목들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패널들의 지적 및 수정사항으로는 관광 ODA의 경우는 다른 사업에 비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과,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므로 미리 이 평가항목에 대한 예측자료도 사업선정 자료에서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4〉 지속가능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구분	항목	Mean	SD	최빈값
지속 가능성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	4.36	.848	5
	2.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3.91	.868	4
	3.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3.91	.750	4
	4.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4.14	.774	4
	5. 수원기관의 이행권한이 있는가?	4.05	.722	4
	6. 수원국의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4.09	.811	4
	7. 수원국의 인력을 확보되었는가?	4.14	.834	4
	8.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4	.834	4
	8-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4	.889	5
	8-2.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3.86	.774	4
	8-3.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3.95	.785	4
	9.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3.91	.868	4
	10.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가?	4.00	.976	4
	11.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4.09	.811	4

⑥ 1차 조사결과 반영 결과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의 적합성(타당성)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기준별로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추가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성의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의 관광을 포함한 개발계획에 대한 문항 3개, 시행기관에 대한 문항 1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자원 및 투자에 대한 문항 3개로 총 7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둘째, 효율성의 경우에는 단/장기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항목 2개, 타산업 및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항목 1개, 이해관계자에 대한 항목 3개, 수원국 주민-정부 간 조율에 대한 항목 1개, 현지실정 기술에 대한 항목 1개로 총 8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셋째, 효과성은 수원국의 중장기적 성과 및 외부효과 달성에 관련된 항목 2개, 관광 인적자원 양성 항목 1개로 총 3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넷째, 영향력의 경우에는 관광지 수용력 평가 1개 항목, 문화 및 역사유적지 손상 관련 1개 항목, 오염처리 관련 1개 항목, 사업계획 단기적, 중장기적 성과달성 관련 항목 2개 항목으로 총 5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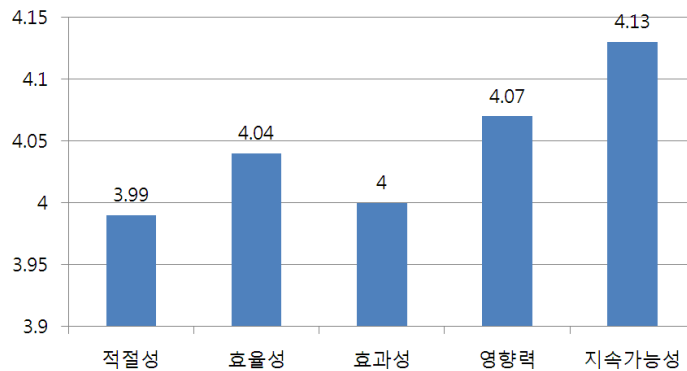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관리 및 시스템 관련 항목 2개, 운영전략 수립 및 출구전략 관련 2개 항목, 계획기간 관련 항목 1개로 총 5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표 35> 델파이 1차조사 결과 반영 사항

분류	추가항목
적절성	- 수원국에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관광ODA사업이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가? -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개발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부합하는가? - 시행기관의 역할, 지위,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 외부자원(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의존도는 어떠한가? - 재원조달(자체노력, 정부간 관계, 조세, 기금 등)접근은 어떠한가? - 투자계획(해외자본유치, 민간유치, 공공재원조달, 대안별사업성비교, 유형별투자배분 등)은 어떠한가?
효율성	-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 관광ODA사업이 타산업과의 협력 및 사업연계성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가? -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있는가? - 수원국 주민-정부 간 해당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는가? - 사업 수행 시 사업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이해관계자는 없는가? -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그룹(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하고 있는가? - 관광ODA사업추진에 있어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사용하였는가?
효과성	-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중·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외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 관광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가?
영향력	- 관광지 수용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가? - 문화 및 역사유적지의 손상정도를 고려하고 있는가? - 오염처리(대기, 수질, 소음수준, 쓰레기 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단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 -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성	-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가? - 관리기관 및 시스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투입을 위한 철저한 계획 및 운영전략이 수립되었는가? - 세부적인 관광계획별 기간이 적합한가? - 적절한 출구전략은 있는가?

(2) 2차 조사 분석 결과

텔파이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영역 별 평가 항목들을 수정한 후 2차 텔파이 질문지 (부록2 참조)를 작성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텔파이 2차 조사는 2014년 1월 20일 ~ 2월 10일에 걸쳐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패널 22명 중 21명이 회신하여 회수율은 95.5%로 나타났다. 우선 기준별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성(4.13), 영향력(4.07), 효율성(4.04), 효과성(4.00), 적절성(3.9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평가기준 영역별 평균값 비교

설문의 타당성은 설문 결과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내용타당도(CVR)를 산정하여 검토하였다. 각 기준별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은 5점 리커트 적용 시 일반적으로 2.5~3.5 사이에 있으면 통상적으로 보통의 의미로 간주하게 되며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균 3.5 이하인 항목은 제거하였다.

둘째,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가 응답범위의 20% 이하인 경우 의견의 일치도가 높다는 견해(이성웅, 1984)에 따라 표준편차 값이 1을 초과하는 항목은 제거하였다.

셋째,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분위수 범위를 산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적용 시 1 이하의 값이 나와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는 측정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측정문항이 내용전집을 잘 대표한다면 측정문항은 내용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타당도의 경우 CVR 값을 구해 확인하

였다. CVR(Content Validity Ratio)은 Lawshe(1975)가 제시한 것으로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자는 21명으로 응답자 20명일 경우 CVR의 최소값은 0.42이므로, 본 연구는 이 이상의 값을 보일 경우에는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적절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적절성 영역의 하위항목에 대한 평균값, 최빈값, 표준편차 및 사분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된 평가항목은 ‘8.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4-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4.24), ‘4.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4.19), ‘1. 수원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4.19), ‘3-1. 관광ODA사업이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가?’(4.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와 타당성 분석 결과, 평균값이 3.5 이하로 나타난 1개 항목, 사분위수 범위에 따라 응답의 합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2개 항목, 내용타당도(CVR) 분석 결과 내용타당도 비율이 0.42 이하로 나타난 5개 항목을 제거하여 최종적인 적절성 평가항목은 총 1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¹⁴⁾

<표 36> 적절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항목	평균	최빈값	표준 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수원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4.19	4	0.680	4	5	1	0.71
2.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4.05	4	0.805	4	5	1	0.62
2-1. 한국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부합하는가?	4.10	4	0.831	4	5	1	0.62
3-1. 관광ODA사업이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가?	4.15	4	0.671	4	5	1	0.62
3-2.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개발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부합하는가?	4.05	4	0.605	4	4	0	0.62
4.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 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4.19	4	0.602	4	5	1	0.81

14) 각 기준별(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항목제거 이전의 전체 항목은 부록 3 참조

4-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4.24	4	0.539	4	5	1	0.90
4-2.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4.14	4	0.655	4	5	1	0.71
4-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4.05	4	0.590	4	4	1	0.71
6.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donor harmonization)?	3.81	4	0.602	3	4	1	0.43
7.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4.10	4	0.700	4	4.50	0.50	0.81
7-1. 시행기관의 역할, 지위,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4.05	4	0.759	4	4.75	0.75	0.62
7-2. 외부자원(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의존도는 어떠한가?	3.90	4	0.718	4	4	0	0.52
8.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4.62	5	0.590	4	5	1	0.90
9.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4.14	4	0.655	4	5	1	0.71
10. 관광ODA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현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떠한가?	4.05	4	0.498	4	4	0	0.81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② 효율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효율성 평가항목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된 평가항목은 '1-2.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4.25)', '3.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4.25)', '4.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4.20)', '7-1.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있는가?(4.20)', '1.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가?(4.19)', '7.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4.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1 이상이며 CVR값 역시 0.42 이하로 낮게 나타난 1개 항목, 사분위수 범위 산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1 이상의 값으로 나타난 1개 항목, 내용타당도(CVR) 분석 결과 내용타당도 비율이 0.42 이하로 나타난 3개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적인 효율성 평가항목은 총 10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37〉 효율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항목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가?	4.19	4	0.750	4	5	1	0.81
1-2.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4.25	4	0.716	4	5	1	0.81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00	4	0.562	4	4	0	0.62
3.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5	4	0.550	4	5	1	0.81
4.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0	4	0.696	4	5	1	0.62
7.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4.19	4	0.602	4	5	1	0.81
7-1.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있는가?	4.20	4	0.616	4	5	1	0.71
7-2. 수원국 주민-정부 간 해당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는가?	4.15	4	0.671	4	5	1	0.62
8. 관광ODA사업추진에 있어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사용하였는가?	4.10	4	0.641	4	4.75	0.75	0.62
9.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4.00	4	0.632	4	4	0	0.62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③ 효과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효과성 평가항목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된 평가항목은 ‘4.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4.62)’, ‘2.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중·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4.50)’, ‘6.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구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4.33)’, ‘3.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외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4.30)’, ‘7.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4.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3.5 미만이거나, 사분위수 및 표준편차 확인 결과 수렴도가 낮은 항목, 그리

고 CVR 값이 0.42 이하인 내용타당도가 다소 낮은 8개의 항목을 제거하고 총 13개의 항목이 효과성을 측정하는 최종항목으로 도출되었다.

〈표 38〉 효과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항목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3.95	4	0.740	4	4	0	0.62
2.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중·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4.50	5	0.607	4	5	1	0.81
3.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외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4.30	4	0.657	4	5	1	0.71
4.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4.62	5	0.590	4	5	1	0.90
6.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4.33	4	0.658	4	5	1	0.81
6-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10	4	0.700	4	5	1	0.62
6-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00	4	0.632	4	4	0	0.62
6-6.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3.86	4	0.478	4	4	0	0.62
6-7.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10	4	0.831	4	5	1	0.81
7.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4.19	4	0.750	4	5	1	0.62
7-1.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4.05	4	0.669	4	4.50	0.50	0.62
7-2. 홍보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3.95	4	0.686	3.25	4	0.75	0.43
8-4. 관광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가?	4.16	4	0.688	4	5	1	0.52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④ 영향력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영향력 평가항목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된 평가항목은 ‘6. 관광 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4.45)’, ‘1. 관광 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4.14)’, ‘1-1. 운영, 관리주

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4.14)', '1-2. 법 및 관련계획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4.14)',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4.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분위수 확인 결과 수렴도가 낮거나 CVR 값이 0.42 이하인 내용타당도가 다소 낮은 4개의 항목을 제거하고 총 10개의 항목이 영향력을 측정하는 최종항목으로 도출되었다.

<표 39> 영향력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항목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14	4	0.793	4	5	1	0.71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14	4	0.793	4	5	1	0.71
1-2. 법 및 관련계획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14	4	0.655	4	5	1	0.71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14	4	0.727	4	5	1	0.81
2-1.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10	4	0.768	4	5	1	0.71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95	4	0.805	3.50	4.50	1	0.52
2-3.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10	4	0.768	4	5	1	0.71
4-3. 오염처리(대기, 수질, 소음수준, 쓰레기 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3.95	4	0.686	3.25	4	0.75	0.43
5.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단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	4.10	4	0.788	4	5	1	0.62
6.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	4.45	5	0.605	4	5	1	0.81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⑤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성 평가항목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된 평가항목은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4.57)', '1-2. 관리 기관 및 시스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4.35)', '3-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4.24)', '2-4. 수원국의 예산투입은 확보되었는가?(4.19)', '3.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4.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 및 사분위수 확인 결과 수렴도가 낮거나 CVR 값이 0.42 이하인 내용타당도가 다소 낮은 3개의 항목을 제거하고 총 16개의 항목이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최종항목으로 도출되었다.

<표 40> 지속가능성 하위평가 항목의 타당성

항목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이 구축이 되어있는가?	4.57	5	0.811	4	5	1	0.81
1-2. 관리기관 및 시스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4.35	5	0.875	4	5	1	0.62
2.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4.10	4	0.700	4	5	1	0.62
2-1.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4.05	4	0.669	4	4.50	0.50	0.52
2-2.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3.95	4	0.669	3.50	4	0.20	0.62
2-3. 수원기관의 이행권한이 있는가?	4.14	4	0.727	4	5	1	0.62
2-4. 수원국의 예산투입은 확보되었는가?	4.19	4	0.680	4	5	1	0.71
2-5.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투입을 위한 철저한 계획 및 운영전략이 수립되었는가?	4.15	4	0.671	4	5	1	0.62
2-6. 수원국의 인력은 확보되었는가?	4.05	4	0.669	4	4.50	0.50	0.62
3.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9	4	0.814	4	5	1	0.71
3-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24	4a	0.831	4	5	1	0.71
3-2.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4	4	0.793	4	5	1	0.71
3-3.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05	4	0.805	4	5	1	0.62
4.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절한가?	4.14	4	0.655	4	5	1	0.71
4-1. 세부적인 관광계획별 기간이 적합한가?	3.90	4	0.641	3.25	4	0.75	0.43
6.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4.10	4	0.700	4	5	1	0.62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제2절 현지조사

1. 연구내용 및 방법

앞서 도출된 관광부문 ODA사업선정 평가지표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델파이기법을 통한 전문가 조사와 함께 현지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법은 1960년대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질적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대개 단순관찰,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비조직적 비표준적 인터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양영균,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의 목적은 우선,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설문항목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현지의 총체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특성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다. 이는 개도국 현지방문을 통해 관광부문 ODA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진행과정 상의 시행착오에 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관광부문의 ODA사업발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지역 선정

현지조사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개도국 중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들을 살펴본 결과, 동남아 지역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자문위원과 연구팀의 내부회의를 진행한 결과, 적합한 후보지역으로 태국 북부,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이 선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는 최근 관광산업이 농업, 봉제부문에 이어 3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코이카 현지사무소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올 3월부터 앙코르와트 내 프레아피투 사원 보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사업의 사업선정평가에 대한 사항을 이르고찰을 통해 선별된 사업선정평가지표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측정하게 된다면, 본 연구의 현지조사 취지와 잘 부합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과 대표 관광지인 시엠립 지역을 현지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현지조사는 2014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3.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현지답사 및 인터뷰로 구분하였다. 주요 관광지를 답사함으로써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기관관계자, 관광업종사자, 및 봉사단원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관광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원조기관을 현지캄보디아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접촉하였다. 그 결과, 코이카 캄보디아 현지사무소, 유네스코, 프놈펜 관광청, 시엠립 압사라 관광청의 관련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확정되었다. 아울러 자문위원과 코이카 현지 사무소의 추천으로 현지 주요 관광지를 선별하였는데, 캄보디아는 프놈펜 국립박물관, 뚜오슬렝, 톤레삽, 앙코르유적지, 시엠립 앙코르 국립박물관 등이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어 이곳을 답사하기로 정하였으며, 한국에서 실시한 원조사례로 꼽히는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도로와 아시아나 가로등 사업 현장도 함께 방문하기로 하였다.

〈표 41〉 인터뷰 대상자 및 주요 답사지역

	조사대상	관련기관 및 소속	성별
인터뷰대상	A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여
	B		여
	C	UNESCO	남
	D	프놈펜 관광청	남
	E		남
	F	시엠립 압사라 관광청	남
	G		여
	H	프리랜서 현지 투어 가이드	남
	I	프리랜서 현지 투어 가이드	남
	J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	여
주요답사지	프놈펜 국립박물관 및 시엠립 앙코르 국립박물관, 뚜오슬렝, 톤레삽, 앙코르유적지,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도로 및 아시아나 가로등 사업 현장 등		

* 조사대상은 부분적으로 익명으로 명시

확정된 기관 관계자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공문을 요청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인터뷰 장소는 각 기관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이 비구조적 형태의 개방형 면접이었으므로 면접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사례마다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예를 들어 기관관계자 및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과의 인터뷰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지가이드의 인터뷰는 관광지 내에서 그들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조직적 비표준적 인터뷰로 10분에서 15분 간 진행되었다. 인터뷰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연구팀의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다.

한편, 자문위원과 현지 관계자들이 추천한 캄보디아의 대표 관광지 프놈펜 국립박물관, 톤레삽, 앙코르유적지, 시엠립 앙코르 국립박물관과 더불어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도로 및 아시아나 가로등 사업 현장은 방문하기 이전 사전조사를 거쳐 각 답사지역들의 전반적인 배경 및 개요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후 전반적인 배경지식 하에 각 답사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문제점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가능한 사업발굴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할 수 있었다.

4. 연구문제 및 분석틀

연구문제 도출은 관광의 영역,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 선행연구고찰, 원조기관의 대표사례 분석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후, 도출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연구팀의 협의 단계를 거쳐 관광의 영역 및 배경,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 및 기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의 전반적인 인터뷰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진 연구문제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관광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캄보디아 현지의 전반적인 관광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관광산업의 중요성, 발전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관련 사업을 살펴보고 관광개발을 통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관광산업과 ODA산업의 배경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사업의 선정기준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1차 사업선정 평가지표의 활용가능성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업에서 사용될 평가지표항목들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지표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 및 취업경로를 살펴본다. 현지주민들이 관광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관광업 종사자들의 삶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관광개발을 통해 빈곤퇴치가 가능한지, 관광업에 종사하며 힘든 점 혹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관광개발이 현지지역주민의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관광지를 답사함으로써 향후 관광부문이 참여 가능한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지의 총체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특성과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지속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상기내용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 ◆ 연구문제1: 캄보디아의 관광산업(현황, 중요성,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은 어떠한가?
- ◆ 연구문제2: 관광산업의 핵심과제 및 지원계획은 무엇인가? 관련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 ◆ 연구문제3: 관광산업을 통해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 있었는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었는가?

2) 단계

- ◆ 연구문제4: 관련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혹시, 기존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 ◆ 연구문제5: 관광ODA사업 시, 본 연구팀이 도출한 사업선정 평가지표의 활용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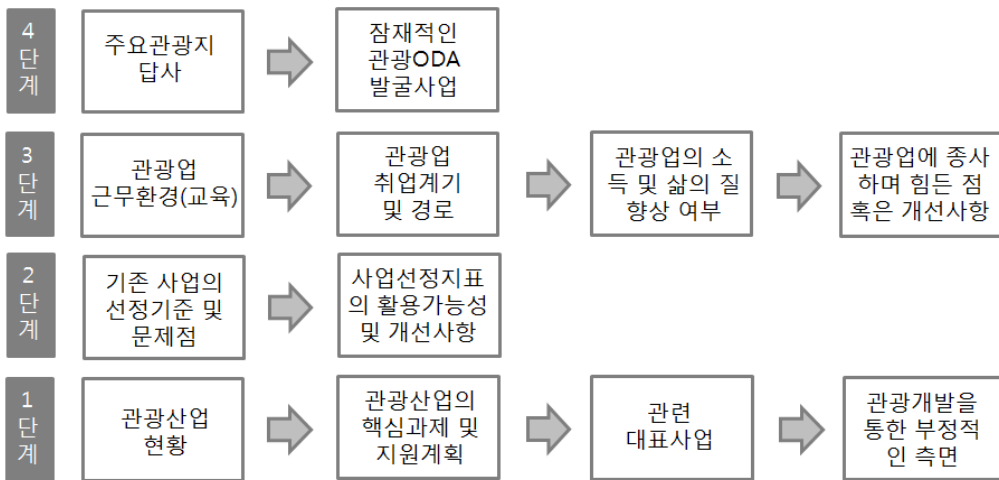
3) 단계

- ◆ 연구문제6: 관광업 종사자들의 취업계기 혹은 취업경로는 어떻게 되며, 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 ◆ 연구문제7: 관광산업을 통해 빈곤퇴치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종사자들의 소득 및 삶

의 질은 향상되었는가? 또한 관광업에 종사하며 힘든 점 혹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가?

4) 단계

- ◆ 연구문제8: 향후 가능한 사업발굴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 ◆ 연구문제9: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안과 향후 관광부문이 참여 가능한 ODA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그림 7] 연구 분석 틀

5. 연구의 엄정성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현지조사법에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자질, 역량 등이 질적 연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입견, 가치, 신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터뷰 및 답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전 그리고 연구과정 중에서 필요하다. 특히,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터뷰기술은 자료수집 등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관광학 교수, 인류학 교수, 관광학과 박사수료생 2인으로 책임연구원은 관광학교수, 자문위원은 인류학교수, 연구원은 관광학과 박사수료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책임연구원과 자문위원은 관광학과 인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각 연구 분야에 대해 학습하였고, 관광과 국제개발에 대한 다수의 연구경험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 및 확인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취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자가 가능한 한 분명하게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코이카 현지 사무소 담당자)에게 분석에 포함된 자료들과 분석결과들을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 외 개선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팀이 구축한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현지 코이카 사무소 담당자로부터 현지실무적용 가능성에 관한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은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관광지 답사를 통한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얻은 기관의 문서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팀 내의 논의를 거쳐 연구자의 편향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6. 현지조사 결과

1) 1단계 분석결과

(1) 캄보디아의 관광산업 현황

최근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관광산업이 농업 및 봉제부문에 이어 3대 핵심 산업이며, 수출에 있어서도 봉제에 이어 외화수익이 큰 분야이다. 이렇듯 캄보디아가 높은 관광산업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시엠립의 앙코르유적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및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수치 및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2008년 관광객수는 210만명에서 2013년에는 340만명까지 증가하며 6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 관광객 45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고용창출은 2011년 3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1년 관광수입은 19억 1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니, 캄보디아의 관광산업의 성장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코이카 캄보디아, B)

저희 내부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 1월 기준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입국자 수는 3,778,358로 이는 2012년 3,201,981이었던 작년대비 18%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엠립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2년 1,836,894에서 2013년 1,984,917로 8%가량 증가하였고, 프놈펜과 그 외 지역들은 2012년 1,365,087에서 2013년 1,793,441로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프놈펜 관광청, D).

인터뷰 결과, 관광산업은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캄보디아를 찾는 해외 관광객은 급증하고 있으며, 관광객으로 인한 외화수입은 시엠립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체 국민의 생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주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관광산업의 핵심과제, 문화관광ODA 지원계획 및 대표사업

정부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해 관광산업 전략과 문화재보존 프로젝트실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관광산업의 성장세로 정부에서는 관광개발전략계획 2012-2020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관광객수 700만명 유치 및 관광수익 50억달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화·관광ODA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캄보디아는 앙코르유적내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 사업(15년 신규)으로 프레아피투사원 복원(50%), 앙코르톰 복원 마스터플랜수립(25%), 사업단운영 및 관리(15%), 교육훈련 및 교육장비 지원(5%), 국내초청연수(5%)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앙코르왓유적사원 보존관리 마스터플랜사업(400만불/15년 신규)과 투오슬랭 제노사이드 박물관자료 디지털화사업(163만불/15년 신규)에 지원계획이 있다고 합니다(코이카 캄보디아, B).

인터뷰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업들이 앙코르유적지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앙코르 유적지가 주요 관광자원인 만큼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엠립 압사라 관광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관광ODA지원계획을 살펴보았다.

시엠립 압사라 관광청의 문화관광ODA사업은 관광개발전략계획2012-2020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주요 계획으로 각각의 사원들의 통합적 관리, 방문객 순환관리, 교통시스템, 방문객 오리엔테이션, 방문객 서비스와 경험, 관광가이드 교육, 지역공예, 산업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시엠립·톤레삽·쿠렐힐스 주목, ICC에 의한 계획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계획(안)등이 있습니다(시엠립 압사라 관광청, F).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핵심과제 및 지원계획은 국가발전계획(NSDP 2014-2018)과 관광개발전략계획(2012-2020)을 토대로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의 전략과 문화재보존 프로젝트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대표 문화관광ODA사업은 앙코르유적지의 관광객수용력에 대한 이해, 통합적인 사원관리, 사원 분류시스템 개발 및 실행,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 방문객 서비스 계획 준비, 투어가이드 교육, 압사라 웹사이트 업데이트, 쿠렐힐스의 개발계획을 준비하는 등의 17개 주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시엠립 압사라 관광청, F).

유네스코는 1993년부터 2003은 세이프가딩에 중점을 두며 Terrace of the Leper King, Northern Perron of the Elephant Terrace, Bapuon, International Documentation Centre on Angkor, Centre for Khmer Studies 등을 진행하였습니다.....(생략). 2003년부터 2013까지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Khmer Habitat Interpretation Center, Education on Heritage, Heritage Training Centre, Angkor Participatory Resource Management and Livelihoods Programme,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Restoration of Angkor Wat Temple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유네스코, C).

캄보디아의 문화관광ODA 사업들은 관광을 특정사업으로 규정하기보다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복원하고 보호하는 문화ODA사업에 한층 가까운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 20년 동안 타 정부와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1993년부터 2003년은 세이프가딩에 중점을 두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최근에는 복원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캄보디아의 문화관광ODA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과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는 다양한 자원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코르왓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시설 부족, 관광산업 인적자원 부족, 높은 관광상품 수입의존도, 교통인프라 부족 및 낮은 관광지 접근성 등으로 관광업 경쟁력이 취약하였다. 이는 관광업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세계경제포럼(2012)에서 발간한 관광업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09위로 ASEAN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자원 다변화를 통해 향후 캄보디아의 다양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광산업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 및 해결방안

캄보디아는 관광산업이 핵심3대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관광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있어 항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증가하며 경제적인 측면에 혜택이 있는 반면 관광지를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정책, 유적지의 관리 및 보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캄보디아를 찾는 관광객들 중에는 해외원정색스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왔다고 하여 현지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과자를 줄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던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현지가이드, H).

현지 인터뷰를 통해 관광산업의 부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도 캄보디아를 찾는 남성 관광객의 21.7%는 섹스를 원하고 성구매자의 국적은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남자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3). 중장년층을 겨냥하여 생겨난 골프관광 패키지는 섹스관광을 포장하고 있는 변질된 관광유형으로 이는 관광이란 이름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유적유물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는 유적유물의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압사라 관광청은 유네스코 및 타 기관과

협력하여 보존과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앙코르유적지의 훼손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현지가이드, I).

인터뷰결과,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적지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한편, 동양최대 호수인 톤레삽 지역의 개발이 집중되며 발생한 문제점도 있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톤레삽호수지역에 중국에서 댐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물이 줄어들어 물고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시엠립이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지금은 두 번째로 가난한 지역임). 아마도 톤레삽 지역의 빈곤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코이카 해외 봉사단원, J).

톤레삽의 경우,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그리고 호수 주변의 수상가옥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시엠립 지역이 주요 관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전략한 결과를 통해 관광개발의 역설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이는 관광개발에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미비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게 한 결과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지역주민 참여 기회의 제한, 관광수입 분배에 대한 문제점, 제한된 인적자원 및 리더십 결여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관광ODA사업은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 및 분석, 국정목표 및 과제와의 연결성, 경제적 합리성 조화 및 효율성, 지역주민의 참여 및 균등한 분배의 보장, 기회의 균등을 위한 형평성 및 공평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코이카 현지 사무소 측은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복합유적관광, 휴양을 겸한 복합적인 관광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효과적인 홍보 수단, 관광상품 개발투자, 교통 인프라구축 등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철도 및 버스, 지하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관광업 종사자를 양성할만한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인적자원을 양성할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라면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전통음식이 있기 마련인데 여긴 대표할만한 현지 전통음식이 딱히 없습니다(코이카 캄보디아, A)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관광산업은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광객들로 인해 해외원정색스와 같은 변질된 관광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유적유물의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현지문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에티켓이 부족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관광이 개발될수록 현지 주민들의 가난은 더욱 심각해져 수입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광개발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관광과 보존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관광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할 것인지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 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개 관광개발과 보존적 측면은 항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대개 관광개발은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관광ODA사업을 위해 물리적이고 거시적인 개발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으나, 1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물리적 개발을 무조건 제외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 개발을 하다보면 환경과 사회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복잡한 현상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2단계 분석결과

(1) 사업의 선정기준 및 기존사업의 문제점

캄보디아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실행능력과 전략에 미흡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ODA사업의 지원계획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연 이들 지원계획 및 사업들은 어떠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지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관련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선정의 기준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ICC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가 개최가 됩니다(유네스코, C).

사업의 선정기준은 체계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ICC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산업선정에 대한 기준 없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기관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코이카 현지사무소 측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업제안서를 내기 전 ICC 및 대사관 간의 협의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사업을 시행할 기관(예: koica 캄보디아 사무소)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사업을 해본 전문가의 참여가 전혀 없고 donor group간의 미팅이 없다고 볼 수 있죠(코이카 캄보디아, A).

사업들의 선정기준은 대부분의 관련 사업이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으며, 사업제안서를 내기 전 ICC 및 대사관 간의 협의과정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기관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올해 양코르와트의 ‘프레아피투 복원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동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과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추진된 사항이었다. 이는 사업의 명분과 목적, 원조의 조화와는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적 성향은 ‘개발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인 단기성과에 치우친 나머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 원조사업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관광분야 ODA 사업은 초기단계인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관광의 다면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논의 참여과정에서 사업발굴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선정 지표개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 사업선정 평가지표의 적합성 및 유용성 평가

인터뷰를 통해 사업선정 지표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으며,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지표의 실용성과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문헌고찰과 연구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ODA 관광사업선정 평가지표를 토대로 실제사업을 적용하여 평가해보는 작업을 거쳤으며, 인터뷰를 통해 지표의 현실성과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평가지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표활용의 분류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은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ODA사업 역시 관광의 다양성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관광사업 종류와 범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지표가 다르며 일부지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코이카 캄보디아, A).

본부 및 현지사무소용 평가지표와 현장 사전조사 평가지표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표의 경우, 현장의 사전조사(feasibility study)를 거치지 않고서는 응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부 및 현지사무소용 평가지표와 현장 사전조사 평가지표로 분류하여 제시하셔도 좋을 듯합니다(코이카 캄보디아, B).

인터뷰를 통해 문헌고찰을 토대로 도출된 사업선정 평가지표요인들 중 현지사무소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평가요인이 일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이카 현지사무소에서는 3월에 실시 예정인 ‘프레아 피투 복원사업’을 문헌을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에 적용하여 현실성과 유용성 측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평가 요인 중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요인(N/A), 평가요인의 구체성 결여, 평가기준이 모호한 요인들이 있었다.¹⁵⁾ 관광의 경우, 특히 ODA사업선정은 결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해, 관광은 그 영향이 불분명한 특성이 있으므로 측정수준을 계량화 시키고, 평가지표를 사용처에 따라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3단계 분석결과

(1) 관광업의 근무환경(교육) 및 취업경로

관광업은 현지에서도 고소득 수입창출이 가능한 직종이다. 이에 따라 관광가이드 혹은 호텔종사원 등의 관련 직종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관광가이드는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관광업에 종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문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인력양성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관광업의 교육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경희대 한국어학당에서 연수를 받기도 하였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기업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캄보디아는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가이드가 많이 필요

15) 자세한 내용은 최종 사업선정평가지표요인 내 ‘평가지표 활용’ 부분을 참고할 것

한 실정이고, 수입도 좋은 편이라 이 일을 하고 있지요. 캄보디아에서는 관광가이드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3~4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며 비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된 후에도 3주간의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현지가이드, H)

고등학교 졸업 후 가이드가 되기 위해 관광청에서 지원하는 가이드양성과정에 지원하였고,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암사라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투어가이드자격증, 가이드 및 관광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개 3개월 간 진행돼요(현지가이드, I).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가이드가 되기 위해 한국이나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어를 장기간 습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이드가 고소득 인기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관광가이드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가이드자격증이 주어지며 가이드가 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들은 가이드를 양성하기 위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7시부터 시작해서 가이드양성수업까지 2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생략)....오전에는 주로 관광지를 설명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고, 오후에는 한국어를 위주로 가르치고 있으며, 주말에는 유적지가서 설명하는 법, 한국사람 대하는 법, 사진 찍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코이카 해외 봉사단원, J).

인터뷰 참가자인 코이카 현지봉사단원은 수업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7시에서 8시 사이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이드가 고소득 수입이 가능한 직종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지만 한국어가 어렵기도 하고, 가정형편상 지속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극히 드물어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코이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선생님이 바뀌는데,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커리큘럼도 바뀌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정확히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가이드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 현지 교육환경은 정부 및 원조기관의 지원과 프로그램 구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동남아인들이 조금 느리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의 임기를 늘릴 필요성이 있으며,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관광산업과 빈곤퇴치의 관계

캄보디아는 관광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으로 다양한 지원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통해 현지주민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과연, 현지인들은 관광산업을 통해 빈곤퇴치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그들 삶에 있어 질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인터뷰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은 빈곤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에게 1달러의 값어치는 그리 크지 않겠지만 캄보디아 지역주민들은 1달러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현지인은 타 산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에 비해 수입도 좋은 편이에요. 캄보디아의 주요산업은 봉제산업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 달 수입원은 대략 80~85달러를 받으며 오버타임을 할 경우 11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게 되면 이보다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관광지의 쓰레기청소부는 한달에 90달러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양코르왓 입장권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250달러까지 받으며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영어가 가능하고 학력이 높은 편이에요(현지 가이드, H).

캄보디아는 가난한 국가잖아요. 그만큼 생계가 중요한 사항이죠. 관광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에서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외화로 인해 현지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됩니다. 관광개발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여행자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하고, 현지인들은 비즈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균형을 잘 이룬다면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현지가이드, I).

대체로 현지주민들은 관광산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관광산업을 통해 빈곤퇴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관광개발을 통해 현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되고, 해외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소비하는 외화는 내수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지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가이드들의 수입원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다.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인 봉제 산업 종사자들의 한 달 수입원은 대략 80~85달러인 데에 반해 관광업 종사자들은 이보다 많은 수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지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개발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3) 관광업에 종사하며 힘든 점

아울러 관광업이 고소득 수입창출이 가능한 만큼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관광업에 종사하며 힘든 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몫사는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며 대할 때, 그리고 국가별로 관광객들의 특징도 다양해서 그 점이 가장 힘들어요. 특히 중국인들은 사원 내에서 너무 큰소리로 떠드는 경우가 있어 통제하기 힘들고, 서양인들은 사원을 방문할 때 그에 맞지 않은 복장을 할 때가 많아요. 한국인들은 급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현지가이드, H).

관광객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행을 와서 그 나라 문화 혹은 현지인에 대한 에티켓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사원을 방문할 때는 격식을 갖춘 그에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하는데 짧은 바지에 민소매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신성한 사원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큰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관광객들도 많습 니다(현지가이드, I).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현지 문화에 대한 에티켓이 부족하며 예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4단계 분석결과

(1) 대표 관광지 답사 및 관찰을 통한 사업발굴 모색

본 연구는 캄보디아 현지의 주요관광지를 직접 답사함으로써 문제점을 직접 관찰하고 향후 가능한 사업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 관광지를 답사하였다. 대표 관광지 답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프놈펜 국립박물관, 시엠립 앙코르 국립박물관, 뚜오슬렝, 톤레삽, 앙코르유적지,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도로 및 아시아나 가로등 사업 현장 등이다.

첫째, 프놈펜 국립박물관과 앙코르 국립박물관은 답사를 통해 박물관 시설 및 전반적인 콘텐츠 등을 파악하고 관광자원으로써의 박물관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자 방문하였다. 과거 크메르제국의 각종 유물을 비롯하여 캄보디아의 국보급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

며, 앙코르제국의 번성과 영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두 곳 모두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었다. 특히 앙코르 국립박물관은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발생하는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태국의 해외투자로 건립된 특성을 고려할 때 현지주민들에게 그 수익이 분배되기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관광수입의 대부분이 관광지가 있는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 소유한 회사로 유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코이카 캄보디아 현지사무소는 향후 2015년에 푸오슬랭 박물관 내 사진자료를 대상으로 163만불 규모의 디지털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을 확인하고자 푸오슬랭을 방문하였다. 이를 위해 코이카 캄보디아 현지사무소가 향후 시행할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해보고, 향후 사업지역의 관광 ODA사업을 모색해 보았다. 푸오슬랭을 방문한 결과, 박물관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사진 자료는 1차원적으로 나열만 되어있으며, 전시 및 보존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다. 사진 디지털화 작업은 캄보디아의 역사적 자료 보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문화 ODA지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동시에 푸오슬랭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광차원에서 푸오슬랭 박물관을 평가했을 때 많은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특히 학살 그 전후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혹독했던 시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즉,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역사를 바로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푸오슬랭 박물관과 같이 학살 또는 전쟁과 같은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관광의 형태를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일컫는데, 푸오슬랭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메르루즈의 학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 투어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ODA 사업을 통해 푸오슬랭 박물관 투어가이드 양성 및 투어가이드 서비스 운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푸오슬랭 박물관은 학살 당시의 충격적인 현장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장을 보기에 앞서 크메르 루즈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 수 있는 도입부 공간을 시작으로 학살 현장을 관람한 후에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박물관의 공간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톤레삽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담수 생태계로 손꼽히므로 관광뿐만 아니라 환경 연구 및 보존적 가치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TBSR(톤레삽 생물권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톤레삽 호수 유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생명체와 더불어 많은 멸종위기 종자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뜬레삽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ODA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빈곤상황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방문하였다. 방문 결과, 두 가지의 위협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뜬레삽 호수가 주민들의 식수인 동시에 하수 및 오수처리로 이용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전기 공급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뜬레삽 호수의 환경적 파괴문제로 호숫가에 수상가옥을 짓고 거주하는 밀집된 인구, 상업적 어획행위의 증가, 어장감소,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었다. 즉, 관광을 포함한 ODA 사업은 이 지역에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거주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뜬레삽 호숫가에 즐비한 관광용 보트는 관광객의 보트이용료를 통해 보트를 소유한 주민에게 관광수입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주주민들의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는 문제, 혹은 호수에서 구입한 과자 등을 호숫가의 어린이들에게 던지는 등 관광객의 에티켓과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뜬레삽 호수와 같이 빈곤, 생활환경열악 및 환경문제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지역은 관광 ODA 사업 진행 시 많은 딜레마적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뜬레삽 지역과 같이 빈곤이 극심한 지역을 관광산업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빈곤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지역의 환경 및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과정이 수반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것이며, 결국 이것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관광ODA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을 뒤로하고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항은 식수 및 하수처리이며, 어류의 남획으로 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어업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직업을 전환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관광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뜬레삽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의 시선 및 에티켓, 인식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방문 이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교육(브로슈어 및 가이드) 프로그램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양코르 유적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코이가 캄보디아 현지

사무소에서 시행하게 될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을 방문하여 사업지역을 확인하고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지역의 관광 ODA사업을 모색하고자 방문하였다. 답사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한국에서 지원하는 프레아피투 사원을 방문한 결과, 사원 일대가 우거진 수목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보존 환경이 열악하였고, 이끼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곳이었다. 또한 앙코르 문화유산도 일종의 문명적 생명이라는 점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복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 앙코르 유적지를 방문하여 복원된 일부 곳곳을 둘러본 결과, 그 문화유산의 고유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압사라 재단의 도움을 받아 프놈펜 국립대학교와 진행했던 앙코르와트 디지털복원기술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요컨대, 우리 기술로 디지털 복원하는 것은 또 다른 한류를 물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실제복원보다 디지털복원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상업적인 효용 면에서도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원사업의 유형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이를 디지털콘텐츠 형태로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앙코르유적지 복원사업의 디지털화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자원을 통해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해내는 것으로 ‘앙코르유적지’라는 하나의 자원을 디지털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규모가 큰 앙코르유적지내에 해외 여행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에 대한 공간이 없어 향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캄보디아 전통 공연 혹은 문화공연 등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최근 관광객들은 전통적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관광경험을 선호하게 되었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고유민족의 전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사라 공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관광지역에 활발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유적지 내에는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난무하였으며, 사원 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여행객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현지가이드의 인터뷰를 통해 여행자들의 현지문화에 대한 에티켓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관광ODA 잠재사업으로 여행객들을 위한 행동지침서 혹은 에티켓에 관한 콘텐츠 제작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OICA의 시엡립 지역 ODA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자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도로 및 아시아나 가로등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답사결과, 캄보디아 시엡립 지역에 시

행한 우정의 도로 건설 사업은 초기에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증대와 지역주민의 편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잦은 침수로 인해 도로의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가로등 역시 지역주민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더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광 측면에서 본다면, 가로등을 양코르왓 및 주변사원의 유적물(닉뎀, 불상, 사자상 등)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 및 향후 참여가능 한 사업

관광산업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반면, 사회문화 및 환경적 측면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일까? 연구진 외에 현지인들은 관광개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성이 있었다. 과연,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보았으며, 답사지역 외 캄보디아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향후 관광 부문에서 참여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관광산업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현지가이드, H).

우선,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집되었다. 관광을 통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문제점들도 많지만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 빈곤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력과 전략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JASA, UNESCO, 프랑스의 원조기법 및 사업실행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선진원조기법 습득, 사업수행절차 및 체계확립,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국제기구, 타원조기관(JASA, UNESCO) 및 정부기관(압사라관광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ODA사업을 다양한 사업형태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참여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캄보디아 대표 관광기념품, Green Movement, 유적지 수용력(Carrying Capacity), 교육(관광객 교육 프로그램: 사원교육 및 복장규제) 등일 것입니다(시엠립 압사라 관광청, F).

유적지를 중심으로 시급한 잠재 사업은 수공예품을 보다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및 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툭툭이’ 대체교통수단개발, 유적지의 수용력사업, 관광객의 에티켓을 위한 간단한 교육프로그램 및 브로슈어 제작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추가적으로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측을 통해 캄보디아의 잠재관광자원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앙코르 유적지 외에 캄보디아의 자원은 핑크 민물 돌고래, 톤레삽 호수지역, 사원과 자원이 풍부한 라탕크 키리 및 몬둘 키리 지역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코이카 캄보디아, A).

캄보디아는 앙코르왓 유적지외에도 핑크 민물 돌고래라는 특정 관광자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핑크 민물 돌고래는 인도갠지스강과 브라질 아마존과 같은 신성한 강에서만 산다고 알려졌으며, 생태관광을 개발하는 데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몬둘키리 주는 캄보디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림과 웅장한 폭포로 유명한 주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에코투어리즘 후보 도시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몬둘키리 지역 역시 향후 잠재관광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캄보디아의 관광ODA사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New Tourism”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향후 사업발굴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이 타 산업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반영한다면 타 산업과의 협력 하에 보다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지표의 활용

1.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최종 지표

델파이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각 평가 영역별로 모든 사업에서 평가해야할 필수평가 지표와 사업의 유형 및 규모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적절성 영역의 평가항목은 필수평가 지표 5개 항목, 선택적용 평가 지표 11개 항목으로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적절성 평가는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 및 수원국 관광자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 분야와 관련된 수원국 및 우리 정부의 정책과의 부합정도에 대한 평가와 수원국의 관광 자원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둘째, 효율성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자원성파에 대한 평가'로서, 관광 ODA 사업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효율성과 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조율, 사업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셋째, 효과성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즉, 관광 ODA 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원국의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 넷째, 영향력 평가는 '관광 ODA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 ODA 사업으로 인한 제도적 변화와 위험적 요인에 대한 관리대안 마련에 대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는 '관광 ODA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로서 관광 ODA 사업 제안서에 관광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표 42>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

평가 영역	적용 분류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적 절 성	필수 평가 지표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이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부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개발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부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시행기관의 역할, 지위,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현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떠한가?	①	②	③	④	⑤
		외부자원(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의존도는 어떠한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donor harmonization)?	①	②	③	④	⑤
효 율 성	필수 평가 지표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 주민-정부 간 해당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추진에 있어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사용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효 과 성	필수 평가 지표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중·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외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관광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홍보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영 향 력	필수 평가 지표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법 및 관련계획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단기적 성과 달성 가능성이 가능한가?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오염처리(대기, 수질, 소음수준, 쓰레기 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지 속 가 능 성	필수 평가 지표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리기관 및 시스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①	②	③	④	⑤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의 예산투입은 확보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투입을 위한 철저한 계획 및 운영전략이 수립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기관의 이행권한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의 인력은 확보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세부적인 관광계획별 기간이 적합한가?	①	②	③	④	⑤

2. 지표의 활용 예시

본 연구는 현지기관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지표를 사용처에 따라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사업선정 지표는 각 사업마다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사업선정지표를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사업선정지표의 모든 평가항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각 평가영역(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필수평가지표만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위에서 제시된 사업선정평가지표는 매뉴얼화하여 각 사업마다 필요한 요인들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코이카 본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여러 가지 범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선정평가지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으며, 필수사업선정평가지표 요인만을 선별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적용할 수도 있다. 특히, 현지기관의 경우에는 평가지표를 사용처에 따라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 표는 코이카 캄보디아 현지사무소에서 3월에 실시할 “프레아피투 복원사업”을 토대로 사업선정평가지표를 적용한 예시이다.

<표 43> 관광 ODA 사업선정지표 개발 관련 참고자료(설문응답지)

2014.1.27(월) 캄보디아 사무소

1. 캄보디아 관광부문 사업현황

구분	구분	내용
사업 현황	사업명	앙코르 프레아피투사원 보존 사업(15년 신규)
	사업배경	수원국 정부 요청(문화재청 검토)
	정부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개발전략계획(Tourism Development Strategic Plan, TDSP2012-2020)수립
	문화관광분야 ODA 중요성	국가발전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2014-2018)상 '관광산업전략마련'을 핵심과제로선정

*Y= Yes, N=No

* On a scale from 1 to 5(5 is high)

2. ODA사업선정평가지표항목

구분	평가내용	평가결과	질문에대한 이해도 (중요성)	의견
적절성	지원명분	2	4	
	타산업과비교우선순위	2	5	
	: CPS와의 부합여부	2 (CPS상 관광분야 지원 중요성 언급)	5	
	관광개발계획수립여부	Y	5	
	: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Y	5	
	: 개발전략과 부합여부	Y	4	
	관광 잠재력	3	5	
	: 자연자원	3 (자연, 동식물)	4	상세설명이 도움이 됨
	: 문화유산자원	5 (유형문화재)	5	
	: 인문관광자원	4 (축제, 기념품, 역사)	2	
	: 접근성	4 (시엠립)	5	
	: 계절성	3	3	
	:시장성	4 (독립성)	5	
	: 관광객 편의시설	3	3	
	수원국 참여정도	4 (ICC-Angkor 운영)	5	
	기부자들간 조화	5 (ICC-Angkor 운영)	4	
	사업수행기관의 적절성	4 (ICC-Angkor 운영)	5	
	: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4 (관련 경험 다수)	5	
	: 외부자원 의존도	4	4	예산? 인력?
	: 자원조달 접근성	3	3	
	: 투자계획	N/A	3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4	1	broad question
	타사업과의 중복성	2	5	
	우리나라의 현지 기여도	3	1	broad question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4	5	
	: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	3	5	
	: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	3	5	
	사회적 효율성	2	4	
	문화적 효율성	4	4	

	환경적효율성	3	2	
	전반적인 효율성	4	1	broad question
	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2 (시엠립 순환도로 등)	4	타 문화사업?
	이해관계자간의 신뢰와 협력	N/A	1	broad question
	: 이해관계자 분석도	N/A	5	
	: 주민-정부간 조율	N/A	2	
	: 부정적 이해관계자	N/A	2	
	: 취약그룹 파악	N/A	4	
	적정기술 사용 여부	2	1	
	수행과정상 효율성	3	1	평가기준 모호
효과성	단기 성과 달성 가능성	4	4	output 달성 가능성
	중장기 성과 달성 가능성	4	4	outcome 달성 가능성
	외부효과 달성 가능성	4	2	
	빈곤퇴치 역량향상에 기여도	2	3	
	수원국과의신뢰성	3	2	평가기준 모호
	관광개발계획의 효과성	4	3	
	: 관광시설 구축	4	4	
	:교통시설구축	2	4	
	: 정보통신기술 구축	2	4	
	:산업기반시설구축	2	3	
	:보건의료시설구축	1	2	
	: 보안안전 서비스 구축	1	2	
	: 지역주민 편의시설 구축	2	3	
	이미지제고기여도	4	5	
	: 마케팅 전략의 효과성	3	2	
	: 홍보전략의 효과성	4	2	
	휴먼웨어적인 교육의 역량강화 기여도	2	3	
	: 지역주민 교육	1	2	
	: 민간주체 교육	3	2	사업수행주체?
	: 여행자 교육	3	2	
	: 관광분야 인적자원 양성	4	4	
영향력	제도적 변화	3	5	
	운영 및 관리주체	2	3	
	법 및 관련계획	2	3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	3	4	
	: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	3	4	
	: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	4	4	
	: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	3	4	
	성평등 관점	2	5	
	환경주류화	4	5	
	: 수용력 평가	3	4	
	: 문화 및 역사유적지 손상정도	4	4	
	: 오염처리	2	1	
	단기적 성과 달성	N/A	1	broad question
	중장기적성과달성	N/A	1	broad question
지속 가능성	관리 및 사후관리	N/A	2	
	: 지역주민의 관리	N/A	1	
	: 관리기관 및 시스템 지속적 구축	N/A	4	
	수원국의 오너십	3	4	
	: 법제도	3	4	
	: 구체적 개발 프로그램	4	4	
	: 이행권한	2	4	
	: 예산투입	2	2	
	: 장기적 예산투입을 위한 운영전략	NA	4	
	: 인력	NA	4	
	핵심이해관계자 역량강화	2	4	
	: 자체운영지원 역량강화	3	1	평가기준 모호
	: 기술지원	4	1	평가기준 모호
	: 자체운영가능모델	2	1	평가기준 모호
	운영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 적절성	2	5	
	: 세부 관광계획별 기간 적합성	1	5	
	: 출구전략	1	5	
	사업종료 후 적정수요	4	4	
	지역주민참여유도방안	3	5	

이를 통해 본부와 현지사무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지사무소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평가요인(예를 들어 N/A), 평가요인의 구체성 결여, 평가기준이 모호한 요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선정평가지표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도출된 아래 표를 살펴보면, 필수평가지표요인과 선택적용가능한 평가지표가 함께 정리되어있다. 따라서 현지사무소 역시 아래 표를 사용할 시에는 필수평가지표와 선택적용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필수평가지표요인만을 사업의 특성 및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표 44>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_현지사무소용

평가 영역	적용 분류	항목(평균값 순으로 정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적 절 성	필수 평가 지표	4-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1. 수원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 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3-1. 관광ODA사업이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4-2.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9.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①	②	③	④	⑤
		2-1. 한국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부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7.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①	②	③	④	⑤
		2.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3-2.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개발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부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4-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①	②	③	④	⑤
		7-1. 시행기관의 역할, 지위,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7-2. 외부자원(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의존도는 어떠한가?	①	②	③	④	⑤
		6.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donor harmonization)?	①	②	③	④	⑤

효 율 성	필수 평가 지표	3.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4.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1.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8. 관광ODA사업추진에 있어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사용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①	②	③	④	⑤
효 과 성	필수 평가 지표	4.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중·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6.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3.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외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7.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8-4. 관광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6-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6-7.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7-1.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6-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1.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7-2. 홍보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6-6.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영 향 력	필수 평가 지표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1-2. 법 및 관련계획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2-1.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3.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3. 오염처리(대기, 수질, 소음수준, 쓰레기 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지 속 가 능 성	필수 평가 지표	2-4. 수원국의 예산투입은 확보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3.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선택 적용 평가 지표	2-3. 수원기관의 이행권한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①	②	③	④	⑤
		2.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2-1.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2-2.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1. 세부적인 관광계획별 기간이 적합한가?	①	②	③	④	⑤

제6장 KOICA 관광 ODA사업모델 발굴

제1절 관광 ODA사업의 스펙트럼

관광의 특성과 지금까지 시행된 관광부문 ODA 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관광부문에 서도 다양한 ODA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안관광 또는 지속가능한 관광과 대중관광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국가 및 사회에 맞는 최적의 ODA사업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 ODA사업은 우선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사회·문화·환경적 형편을 반영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무상의 재원을 투자하는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수원국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올바른 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원국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지원한다. 도로와 병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대규모의 하드웨어사업 개발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훈련과 같은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은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사업은 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적은 재원이 투입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자원 보전의 측면에서 사업이 선정 또는 발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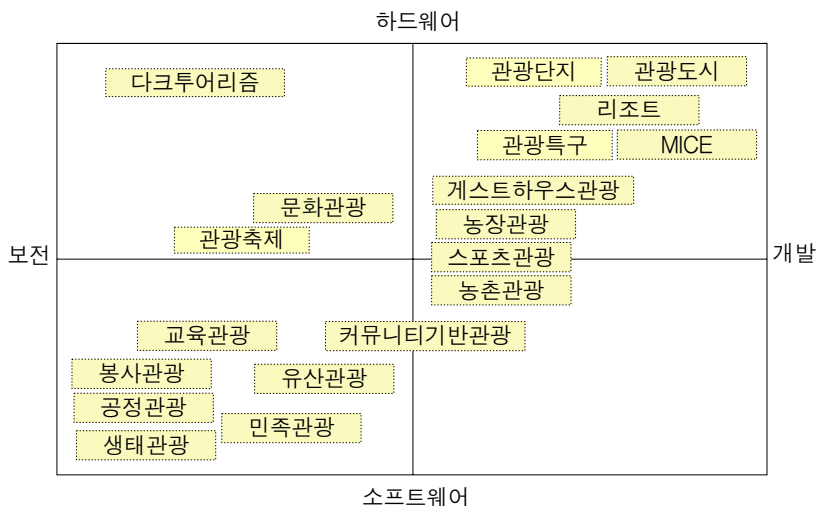
관광ODA사업의 유형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자원 개발적인 사업과 자원 보전적인 사업, 하드웨어적인 특성과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는 사업, 자원 개발적인 사업과 자원 보전적인 사업을 동시에 갖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8]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보전의 양극단에 다양한 유형의 관광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즉, 스펙트럼방식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보전의 특성을 띤 관광ODA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인데, 스펙트럼 개념은 양 극단에 상반된 물리적 대상지나 사회현상을 두고 그 사이에 양 극단의 특성을 조합한 무수히 많은 관광사업이나 관광형태를 양 극단의 위계에 따라 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스펙트럼 개념은 이론상 무수한 많은 조합으로 구성되나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계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위계에 따라 관광사업이나 관광형태를 제한하여 제시한다.

관광ODA사업도 이러한 스펙트럼의 체계에서 규모와 특성을 비교하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에서 많은 재원이 수반되는 하드웨어적인 관광ODA사업은 관광도시,

관광단지, 리조트, MICE 개발사업이고, 적은 재원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관광ODA 사업은 생태관광, (소수)민족관광(ethnic tourism), 공정관광, 자원봉사관광 등임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중심관광, 농촌관광, 문화관광, 스포츠관광 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띤 관광ODA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을 가능한 그대로 보호 및 보전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관광 ODA사업은 생태관광, 공정관광, 봉사관광, (소수)민족관광, 교육관광, (문화)유산관광, 커뮤니티기반관광, 관광축제, 다크투어리즘 등이 해당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유형의 관광은 개발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관광은 농촌지역, 산림지역, 어촌 지역과 같은 곳에서 수행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비록 적은 규모의 재원이지만 스스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상당한 규모의 관광개발재원이 있으면 리조트개발, 관광단지개발, 관광도시개발 과 같은 대규모의 하드웨어적인 접근방법도 가능하다. 이러한 관광개발은 지금까지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국들이 재원투자를 통해 관광지나 시설을 조성해온 형태이다. 물론 제3세계국가 국내의 자본으로 국내 한 지역에 관광지 및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줄어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가 이러한 대규모 관광사업체에 종속되어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대부분이 국가에 이러한 식의 관광개발투자를 외국으로부터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8] 보전-개발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따른 잠재적 관광ODA스펙트럼

* 출처: 김남조(2014). p.102.

제2절 관광 ODA 사업모델 발굴

앞서 살펴본 관광 ODA 스펙트럼을 통해 보존-개발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라는 큰 두 개의 축에 따른 관광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잠재적 관광 ODA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스펙트럼이 넓은 관광분야의 ODA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광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큰 시스템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unn(1979)의 관광시스템, 즉 관광현상은 관광객, 교통, 관광대상(매력물), 서비스/시설, 홍보/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기능적 시스템(functional system)의 관점에서 잠재적 관광ODA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⁶⁾.

다음 <표 2>는 관광사업의 규모에 따라 잠재적 관광ODA사업을 스펙트럼방식으로 분류한 것이며, 이를 Gunn(1979)이 제시한 관광시스템 내의 구성요인별 즉, 관광매력물 ODA 사업, 관광 편의서비스 ODA 사업, 관광홍보 및 마케팅 ODA 사업, 관광교통 ODA 사업,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 관광지원 정책 ODA 사업별로 전략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

1. 관광매력물 ODA 사업

1) 전략적인 방향

관광매력물 ODA 사업은 자연(산, 물, 계곡, 들, 고원, 사막 등), 문화(마을, 민속, 공예품 등), 문화유산(유적지, 기념비적인 장소, 공연, 박물관 등), 인종(소수민족) 등의 기존 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거나 신규자원 및 시설을 조성하여 매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관광매력성의 제고는 바로 지역의 경제적 수익창출로 연계된다. 매력성이 높은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 때문이다.

16) 김남조(2014). 관광과 개발: 잠재적 관광ODA사업의 모색에서 발체향.

2)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잠재적인 관광매력물 ODA 사업

(1) 소규모 사업

관광매력물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ODA 사업은 관광개발 타당성 컨설팅 사업, 관광지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관광자원관리 프로그램 구축사업, MICE관리운영 계획 및 교육사업, 전통축제 지원사업,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사업, 관광상품·코스(탐방로, 단체관광객용) 개발사업, 일촌일품(一村一品)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원국의 관광매력물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위주의 소규모 사업이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Chambok의 경우 2,5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9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캄보디아 Kampong 지역에 위치한 Kirirom 국립공원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지역 NGO의 노력으로, 폭포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목적지로 개발하였으며, 자연 숲에서부터 폭포까지 이르는 3km의 트레일 코스를 개발하고 다음 [그림 9]과 같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설을 마련하였다. 또한, 라오스의 Nam Ha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마을에서 개발되는 단순하면서도 전통적인 수공예품과 해당 지역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관광 공급자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각 관광상품의 가격에 수공예품의 가격을 포함시켜 투어루트에서 방문하게 되는 마을에서 선물로 관광객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그림 10].



[그림 9] 에코 투어리즘 코스개발



[그림 10] 수공예품과 관광상품 연계 판매

(2) 중규모 사업

관광매력물을 대상으로 한 중규모 ODA 사업은 (소수민족)문화·공연센터 조성사업, 관광상품(매력물) 개발 및 조성사업, 에코 뮤지엄 조성사업 등이 있다. 에코 뮤지엄(Eco Museum)이란 생태(Ecology)와 박물관(Museum)의 복합적 의미를 지니며 지역과 주민 그리고 지역의 유산 등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특히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에코뮤지엄의 사례로는 베트남 하롱베이의 에코뮤지엄을 들 수 있다. 하롱베이는 199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지속적인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동굴 및 석굴 접근성 증대, 상업적 선박 및 관광용 배의 확대, 석탄 및 광산 등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2001년 하롱베이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개발 마스터플랜 하에 에코뮤지엄 사업을 계획하였다. 하롱 에코뮤지엄의 국립박물관으로서 운영은 2008년에 시작되었다.



[그림 11] 하롱베이 전경

* <http://www.vietnamteambuilding.com/홈페이지>

또한, 캄보디아 현지조사를 통해 앙코르와트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사업이 중요한 관광 ODA 사업 중의 하나로 판단되었다. 특히 IT분야는 우리나라의 강점 중의 하나이며, 디지털 복원사업과 함께 이를 관광객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앙코르와트 문화유산 복원의 새로운 차원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실제복원보다 디지털 복원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상업적인 효용 면에서도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앙코르유적지’라는 하나의 자원을 디지털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규모 사업

관광매력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ODA 사업은 관광도시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리조트조성사업, 테마파크조성사업, 관광특구조성사업, MICE시설조성사업, 박물관·동물원·식물원조성사업, 생태·민족(ethnic) 관광조성사업 등이 있다.

관광매력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의 한 예는 JICA가 요르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관광 분야 개발 프로젝트(Tourism Sector Development Project)’로 약 72억 원(JPY)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요르단의 관광 자원을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는 6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6개의 하위 프로젝트는 암만(요르단의 수도) 다운타운 관광 지구(Amman Downtown Tourist Zone), 국립박물관, 사해 공원도로사해 파노라마 콤플렉스, 카락 관광개발, 역사도시 살트(salt)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암만 다운타운 관광지구의 경우에는 1,200m 길이의 관광 거리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관광 트레일, 다운타운 관광안내 센터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요르단 지역의 관광 매력물을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림 12] 사해 파노라마 콤플렉스

* <http://www.sanabel-flowers.com> 홈페이지



[그림 13] 요르단 국립박물관

* <http://jordanmuseum.jo/en> 홈페이지

2. 관광편의서비스 ODA 사업

1) 전략적인 방향

관광편의서비스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경우 공공편의서비스(관광인프라 등 기초사회 서비스 확충)와 사적 편의서비스(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제고를 위한 사업)를 제고함으로

써 쾌적한 관광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발생하게 한다.

2)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잠재적인 관광편의서비스 ODA 사업

(1) 소규모 사업

관광 편의서비스 ODA 소규모 사업은 관광인력교육사업(언어/환대서비스/사업운영/기념품·공예품 제작), 관광가이드육성사업(교육·훈련), 외국인용 음식메뉴판제작·지원사업, 대표음식개발사업, 우수관광인증제구축사업(예: 에코라벨인증사업), 우수관광사업체수상사업(예: 내일의 관광상(Tourism for Tomorrow Awards)) 등을 포함한다.

밀레니엄 챌린지 기금(MCA)은 나미비아 지역에 교육, 관광 그리고 농업(가축 및 지역토착품)에서 공공 투자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단체로 젊은 나미비아 여성들이 장신구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였다. 또한, 기존의 상품이 국제적인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고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스타일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관광인력교육사업 중에서도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JICA의 ODA 사업중의 하나로 “Tourism Resources Improvement Project, TRIP”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및 커리큘럼 개발 그리고 스리랑카 내의 관광 및 호텔 매니지먼트 관련 교육기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사업은 리쓰메이칸 대학, 홍콩 폴리텍 대학, 도쿄 메트로폴리탄 대학 등 많은 대학기관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스리랑카 내 관광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림 14] 나미비아 지역주민 장신구 기념품 제작 훈련

* <http://www.fj.emb-japan.go.jp> 홈페이지



[그림 15] 스리랑카 관광학교 및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진

* <http://www.ritsumei.ac.jp> 홈페이지

또한 네팔의 쓰리시스터즈가 운영하는 여성 가이드 교육센터 및 여행사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네팔의 쓰리시스터즈는 혈연가족인 세 자매가 경영하는 산악트레킹 여행사로, 원래 이들은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다. 그들은 여성방문객들이 트레킹 과정에서 남성 포터 및 가이드의 성희롱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히말라야를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여행을 오픈 하게 되었다. 쓰리시스터즈는 여성들을 모집해 트레킹 기술과 가이드 지식, 영어회화 등을 가르치고 6개월 정도 경험을 쌓는 수련기간을 거쳐 정식 가이드로 양성하였다. 트레킹,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의 식당, 택시, 나룻배의 운송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였으며 가이드를 포함하여 식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공평한 이윤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여행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트레킹 회사를 통해 얻는 이익을 모아 여성 가이드가 되려는 이들을 위한 교육센터(EWN)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쓰리시스터즈는 1999년 NGO로 등록한 이래로 여성 800명을 관광산업에 입문시켰고, 현재 여성 100명을 고용해서 연간 12만 루피(1,790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림 16] 네팔의 쓰리시스터즈 어드벤처 트레킹

(2) 중규모 사업

관광 편의서비스 ODA 중규모 사업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공공개방형 민간화장실 지원사업, 공중목욕탕 조성사업, 커뮤니티 홈스테이조성사업(지역주민 공동운영, 홈페이지 구축), 레스토랑조성사업(지역주민 공동운영)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기금을 통해 피지(Fiji)의 라바사(Labasa) 지역에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7개의 화장실, 샤워 시설, 워터탱크 및 울타리 등을 조성하였다. 특히

이 시설은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이 지역을 방문하는 상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라오스의 마을기반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전통 홈스테이를 조성한 경우도 관광편의서비스 분야의 ODA 중규모 사업의 사례에 포함된다.



[그림 17] 화장실 조성사업



[그림 18] 마을기반 관광개발 전통 홈스테이 조성

* <http://www.fj.emb-japan.go.jp> 홈페이지

(3) 대규모 사업

관광 편의서비스 ODA 대규모 사업은 지역기념품·특산물판매센터, 공공(전통)시장조성 사업, 관광호텔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인구 60만의 도시인 모로코의 헤즈(Fez) 지역에 개발된 도심중앙 전통시장(central bazaar)이 이 유형에 포함되는 사례이다. 개발 원조로 조성된 전통시장은 이 주변에 거주하는 약 150,000 명의 절대빈곤 인구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시장은 지역의 주요한 관광 볼거리로 개발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림 19] Fez central bazaar 의 전경

또한, 네팔의 포카라에 위치한 유기농컨셉의 '투시타호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 내에 유기농 농장을 일구며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호텔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호텔 안에 작은 숲을 열어 네팔 농민들의 유기농 커피, 히말라야 산간지역의 산촌에서 생산되는 꿀이나 버섯들로 농촌과 도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 투시타 호텔은 수익의 10%를 산간 마을의 생태농장에 지원하고 또 다른 일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을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인근 농민들과 관광업체들이 농장에서 유기농 법에 대해 배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호텔조성사업은 관광편의서비스 ODA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된다.



[그림 20] 투시타 호텔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ODA 사업

1) 전략적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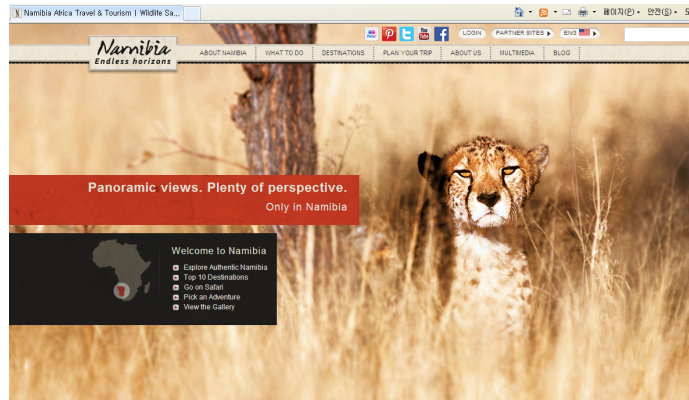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경우 관광정보시스템(지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ICT기반 정보체계)과 관광안내홍보(오프라인에서 관광홍보를 위한 모든 수단)체계를 수립하여 관광목적지 및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제3세계국가들의 많은 관광매력물들은 아직 선진국의 국민들에게 그 매력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대한 ODA사업은 비록 물리적인 사업이 아니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관광목적지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

2)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잠재적인 관광홍보 및 마케팅 ODA 사업

(1) 소규모 사업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의 소규모 ODA 사업은 (언어권별)관광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포(예: 브로슈어, 홍보용소책자 등),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스마트폰용 앱 제작사업(스마트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다.

밀레니엄 챌린지 기금(MCA, Millenium Challenge Account)는 나미비아 관광 국(Namibia Tourism Board, NTB)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관광 목적지로서 나미비아를 홍보하였으며, 웹사이트를 4가지 언어(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타겟 시장을 마케팅할 수 있는 파워풀한 툴로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5월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 Indaba 관광 엑스포에서 '베스트 웹사이트'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Hospitality Sales & Marketing Association International 의 '베스트 디지털 마케팅' 상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 초에는 "나미비아 여행 스토리"라는 타이틀의 추가적인 웹페이지를 개설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브랜드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미지 컬렉션과 나미비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들을 소개함으로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그림 21] 나미비아 관광홍보 웹사이트

(2) 중규모 사업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의 중규모 ODA 사업은 관광안내소 구축사업, 관광안내 표지판 조성사업(픽토그램 등), 관광자원 DB구축사업, 관광예약 시스템구축사업 등이 있다.

관광안내소 구축사업으로는 탄자니아 Pangani-Saadani 해안 보호지역에 지역 당일 여행, 수공예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광정보센터를 구축하였다.



[그림 22] 탄자니아 Pangani-Saadani 관광정보센터

* <http://www.unwtostep.org/> 홈페이지

(3) 대규모 사업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의 대규모 ODA 사업은 종합관광안내센터 조성, ICT기반구축사업, 관광 네비게이션 구축사업 등이 있다.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사례로는 호주 멜버른의 방문자안내센터(Melbourne Visitor Centre)가 있다. 멜버른의 중심인 페더레이션 광장 내에 위치한 이곳은 직원과 봉사자에 의해 인근 지역의 교통편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전역의 관광 정보 및 숙박 정보를 제공하며, 무료 관광 안내책자, 지도 및 브로슈어 등의 다양한 정보와 전시, 멀티미디어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시각자료를 제공한다. 기념품 숍과 화장실 역시 구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종합관광안내센터는 해당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시설인 동시에 해당 시설 자체가 중요한 관광 목적지가 되기도 한다.



[그림 23] 멜버른 종합안내센터

4. 관광교통 ODA 사업

1) 전략적인 방향

관광교통 ODA사업의 경우 관광목적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교통수단 및 관광교통시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빠르고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교통시설과 수단의 조성과 제공은 다른 산업부문으로의 연계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2)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잠재적인 관광교통 ODA 사업

(1) 소규모 사업

관광교통 분야의 소규모 ODA 사업은 (전기)자전거보급·지원사업, 소규모운송수단(리어카 등)보급·지원사업, 전통 관광배(관광나룻배), 오지지역주민교통수단조성사업(예: 리프트)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원국의 관광교통을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위주의 소규모 사업이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시엠립 지역 중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꼽히는 톤레삽은 최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톤레삽 호숫가에 즐비한 관광용 보트는 관광객의 보트이용료를 통해 보트를 소유한 주민에게 관광수입을 발생시켰다.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배를 이용하여 주변지역을 둘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트를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을 추가적으로 도입시키는 사업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림 24] 톤레삽 호수가 교통수단 보트

(2) 중규모 사업

관광교통 분야의 중규모 ODA 사업은 관광접근도로건설, 커뮤니티안길조성사업, 전기자동차(자전거)충전소조성사업, 관광여객·유람선사업, 오지여객·관광버스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원국의 관광교통을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위주의 중규모 사업이다. 예를 들면, 2003년 양코르와트가 위치한 시엠립 지역의 도로가 유적지를 관통하여 유적지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대체할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KOICA는 '05년-'06년도에 “대한민국-캄보디아 우정의 도로”로 명명된 우회도로를 개설(사업비 160만 불)하였다. 이후 '08년- '09년도에는 도로포

장사업(430만불)을 실시하였고, '10-'12년도 우회도로 연장사업(사업비 920만 불)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유적 중심지 통과교통량이 줄어들게 되어 앙코르유적의 훼손이 감소되었으며, 유적지내 교통흐름 감소로 인해 쾌적한 관광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였다. 현재 캄보디아 외에 많은 개도국 및 제3세계 국가의 도로건설 사업이 시급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향후 잠재 ODA사업으로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림 25]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1 [그림 26]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2

(3) 대규모 사업

관광교통 분야의 대규모 ODA 사업은 관광고속도로 건설, 기차역·터미널·공항·항만 건설, 관광기차도입사업, 관광버스도입사업, 관광여객선도입사업 오지여객·관광항공도입사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터키 이스탄불은 동·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서쪽 도로 5.4km, 동쪽 도로 3.8km, 해저터널 5.4km)을 건설(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터키 교통부 산하 인프라 개발청에 의해 발주되었다. 이 사업은 터키 이스탄불을 횡단하는 보스포루스 해협 지하에 해저터널을 뚫어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연결하는 터키 최대 규모의 민자 인프라사업으로, SK건설과 한신공영이 터키 현지기업인 야피(YAPI)와 합작으로 프로젝트 발굴에서 건설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총 사업비용은 약 12.2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7]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프로젝트 계획안



[그림 28] 프로젝트 발주식

5.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

1) 전략적인 방향

관광객에 대한 관광ODA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 사업은 더 많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시장 분석사업이라던가 전통적인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책임관광이나 공정관광과 같은 사업이 주를 이룰 수 있다.

2)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

(1) 소규모 사업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ODA 사업은 관광객행동강령 구축사업(사회운동 및 홍보), 관광객-지역사회교류사업(도-농교류사업), 국내·외 일사일촌(一社一村)맺기사업, 공정관광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반페이츠마 라는 지역은 지역기반관광을 통해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행객들과 함께 마을 기반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의 마을 기반 공정여행 구축 NGO인 CCBEN(Combodia Community Based Eco-Tourism Network)이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2007년 CBT (Community Based Tourism)활동이 시작되었다. CCBEN은 캄보디아 유일의 생태여행 네트워크로 문화유적 보존과 빈곤완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교육 기관을 비롯해 국가 및 지역의 보전 및 개발단체, 민간기업을 포함한 30여 개 회원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공정여행 및 마을 프로그램, 리더십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안성시 마을 주민과 CBT직원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반띠아이츠마 마을의 지역기반 여행 프로그램 체험 및 CBT센터 교류, 톤레삽호수의 에코투어 및 주민워크숍 방문, 마을센터와 교류하는 등의 일정을 마쳤다.



[그림 29] 캄보디아 CBT & 에코투어
사례탐방1



[그림 30] 캄보디아 CBT & 에코투어
사례탐방2

(2) 중규모 사업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규모 ODA 사업은(국내·외)관광시장조사 컨설팅사업, 자원봉사 관광 프로그램, 현지관광기업 운영사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치앙마이 코끼리 자연공원은 태국 코끼리 관광사업의 어두운 이면이 집중 보도되면서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자원봉사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와 관광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의 가치와 창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방문객은 체류기관과 숙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자원봉사지원은 다큐멘터리 촬영 담당, 야시장 담당 인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공원 주인 등의 인턴십 포지션도 지원이 가능하다. 2005년에는 총 방문객 중 자원봉사자 340, 비자원봉사자 1,804였던 것에 반해, 2008년에는 자원봉사자 1,594, 비자원봉사자 9,985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Jasveen, Paul, & Heather, 2012). 이를 통해 자원봉사관광은 생태계보존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림 31] 태국의 치앙마이 코끼리
자연공원 자원봉사관광1



[그림 32] 태국의 치앙마이 코끼리 자연공원
자원봉사관광2

6. 관광지원정책 ODA 사업

1) 전략적인 방향

관광지원정책에 대한 관광ODA사업은 위의 5가지 요소를 지원하는 법·제도를 수립한다거나 타산업분야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안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위의 5유형의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2)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잠재적인 관광지원정책 ODA 사업

(1) 소규모 사업

관광지원정책 분야의 소규모 ODA 사업은 관광정책 담당자 교육사업, 관광관련법 및 지원체계컨설팅사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민간협력을 활용하여 관광가이드 양성 교육훈련, 문화가이드양성과정 또는 호텔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가이드 수료식
광주광역시청에서 10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문화 및 관광가이드 제2
기 수료식을 가졌다.

[그림 33] 관광관련 종사자 양성교육의 예



[그림 34] 호텔종사자 양성교육의 예

(2) 중규모 사업

관광지원정책 분야의 중규모 ODA 사업은 관광관련법체계구축사업, 농업·수산업·임업 등 타산업과의 연계 개발사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코이카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중 몽골의 축산위생 검역능력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몽골은 축산분야가 몽골 국내경제, 소비 및 고용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몽골 정부는 주요 가축 전염병의 효과적인 관리 및 박멸, 축산물 위생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축산물로부터 항생제 검출 기술개발 등 몽골내 안전한 축산물 검사능력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의 목적은 중앙수의 검역소 관계자 및 축산 농가, 가공,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로부터 항생제 검출 기술 개발 등 몽골 안전한 축산물 검사능력 및 활동도 제고이다. 본 사업의 내용은 축산물 위생 검역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연수생초청 4명, 전문가파견 5명)을 실시하였다. ‘축산 위생 검역 능력 향상 사업’ 이후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진단센터 건립사업’과 ‘축산물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연계지원 3단계로 나누어 몽골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축산분야의 사업이지만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 그 국가 및 지역의 위생과 안전은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은 타산업과의 연계 개발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림 35] 몽골 식량농업부장관, 축산위생 검역능력 제고 사업 성공적 수행 표창

(3) 대규모 사업

관광지원정책 분야의 대규모 ODA 사업은 관광지원기관(예: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관광지원 기관을 구축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지원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림 36] 국가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관광기관 지원



[그림 37]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표 45> 관광구성요소와 사업규모 스펙트럼에 따른 잠재적 관광ODA사업

관광구성 요소	전략적인 방향	← 소규모 사업 (소프트웨어 위주)	중규모 (소프트+하드)	대규모 사업 → (하드웨어 위주)
관광 매력물	자연(산, 물, 계곡, 들, 고원, 사막 등), 문화(마을, 민속, 공예품 등), 문화유산(유적지, 기념비적인 장소, 공연, 박물관 등), 인증(소수민족) 등의 기존 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거나 신규자원 및 시설을 조성하여 매력성을 높임	관광개발타당성컨설팅사업, 관광지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관광자원관리프로그램 구축사업, MICE관리 운영 계획 및 교육사업, 전통축제지원사업, 관광기념품디자인개발사업, 관광상품·코스(탐방로, 단체관광객용)개발사업, 일촌일품(一村一品)개발사업	(소수민족)문화·공연센터 조성사업, 관광상품(매력물) 개발 및 조성사업, 예코뮤지엄 조성사업	관광도시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리조트조성사업, 테마파크조성사업, 관광특구조성사업, MICE시설조성사업, 박물관·동물원·식물원조성사업, 생태·민족(ethnic) 관광조성사업
관광편의 서비스 (관광사업)	공공편의서비스(관광인프라 등 기초사회서비스 확충)와 사적 편의서비스 제고(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제고를 위한 사업)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관광경험을 제공	관광인력교육사업(언어/환대서비스/사업운영/기념품·공예품 제작), 관광가이드육성사업(교육·훈련), 외국인용 음식메뉴판제작·지원사업, 대표음식개발사업, 우수관광인증제구축사업(예: 에코라벨인증사업), 우수관광사업체수상사업(예: 내일의 관광상(Tourism for Tomorrow Awards))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공공개방형 민간 화장실 지원사업, 공공목욕탕 조성사업, 커뮤니티 홈스테이 조성사업(지역주민 공동운영, 홈페이지 구축), 레스토랑조성사업(지역주민 공동운영)	지역기념품·특산물판매센터, 공공(전통)시장조성사업, 관광호텔조성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정보시스템(지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ICT기반 정보	(언어권별)관광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포(예: 브로슈어, 홍보용소책자 등), 인터넷	관광안내소구축사업, 관광안내표지판조성사업(픽토그램 등), 관	종합관광안내센터 조성, ICT기반구축사업, 관광네비게이

	체계)과 관광안내홍보(오프라인에서 관광홍보를 위한 모든 수단)체계를 수립하여 관광목적지 및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폰 앱 제작사업(스마트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광 자원 DB 구축 사업, 선구축사업 관광예약시스템 구축 사업
관광교통	관광목적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교통수단 및 관광교통시설의 편의성 제고	(전기)자전거보급·지원사업, 소규모운송수단(리어카 등)보급·지원사업, 전통 관광배(관광나룻배), 오지지역주민교통수단조성사업(예: 리프트),	관광접근도로건설, 커뮤니티안길조성사업, 전기자동차(자전거)충전소조성사업, 관광여객·유람선사업, 오지여객·관광버스지원사업 관광고속도로 건설, 기차역·터미널·공항·항만 건설, 관광기차도입사업, 관광버스도입사업, 관광여객선도입사업 오지여객·관광항공도입사업
관광객	국내·외 관광객 분석(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유형세분화)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지역사회에서 관광객의 책임성을 강조	관광객행동강령 구축사업 (사회운동 및 홍보), 관광객-지역사회교류사업(도농교류사업), 국내·외 일사일촌(一社一村)맺기사업, 지역내 소규모호텔운영	(국내·외)관광시장조사컨설팅사업, 자원봉사관광프로그램지원사업
관광지원정책	위의 5가지 요소를 지원하는 법·제도를 수립하고, 타산업분야와 협력사업을 지원	관광정책담당자교육사업, 관광관련법 및 지원체계 컨설팅사업	관광관련법체계구축사업, 농업·수산업·임업 등 타산업과의 연계 개발사업 관광지원기관(예: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 출처: 김남조(2014). p. 103.

제7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제언

빈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하기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업은 세계 최빈국과 개도국에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빈곤과 관광에 대한 이슈의 복잡성, 정보 및 통합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관광부문 ODA사업의 규모와 유형은 매우 제한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 ODA 사업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잠재적인 관광 ODA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의 관광분야 ODA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관광의 영역, 관광과 빈곤퇴치와의 관계 및 타 원조기관의 관광분야 ODA 관련 사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1차적인 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평가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도국 현지조사를 통해 설문항목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현지의 총체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특성과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분석, 델파이조사 및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할 수 있는 ODA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우선 관광의 영역 및 관광과 빈곤퇴치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관광산업은 전 세계 8.7%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대중관광의 형태를 벗어나 대안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받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는 생태관광, 공정관광, 커뮤니티 기반 관광, 친빈곤관광, 슬로우 투어리즘, 자원봉사관광, (소수)민족관광, 저탄소 녹색관광, 농촌관광 등으로 파악되어 향후 관광 ODA 사업의 개발방향을 정립하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관광의 개념과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과 빈곤퇴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관광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빈곤퇴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방법에 있어 수원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통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주요 관광사업 원조기관인 JICA와 NZAID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자국 관광산업의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ODA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하드웨어적 사업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해당 지역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안정화하였으며, 때로는 원조국 민·관·학의 참여를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관광개발에 앞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관광 ODA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부문은 없으나, 다양한 업체들이 관광분야에서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민간업체들은 모두 잠재적인 관광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향후 관광 ODA 사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다음으로 OECD/DAC에서 권장하는 ODA사업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큰 틀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광분야 ODA사업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구성하였다.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ODA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국제개발 담당자 및 관련분야 공무원, 국제개발 및 관광 관련분야 연구원 및 관광 관련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평가기준별 평균값,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내용타당도의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종 지표는 분석결과에 따라 필수평가지표와 선택적용 평가지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ODA 사업에 적합한 항목을 구성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 관광산업은 캄보디아의 핵심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앙코르왓이 위치한 시엠립 지역이 최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는 점, ODA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하여 사업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사업을 시행할 기관들의 참여가 없다는 점, 관광관련 교육환경의 지원과 프로그램의 체계성이 부족한 점, 관광객의 현지문화에 대한 에티켓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이는 향후 관광

17) 부록4에 잠재적인 관광ODA 사업 추진 공공 및 민간기업 리스트를 제시하였음.

ODA 사업이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 및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고 사업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수행 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되어 정책논의 과정에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향후 KOICA에서 수행할 수 있는 관광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관광 ODA 사업의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스펙트럼을 따라 관광 ODA사업의 유형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자원 개발적인 사업과 자원 보전적인 사업의 특성으로 분류되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양극단으로 관광 ODA 사업은 관광도시, 관광단지, 리조트 등의 하드웨어적이면서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부터 공정관광, 생태관광, 민족관광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이면서 보전 위주의 사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넓은 관광분야 ODA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광매력물, 관광 편의서비스,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교통, 관광객 그리고 관광지원 정책별로 ODA사업의 전략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해외 원조기관들이 자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관광 ODA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강점을 바탕으로 관광부문 ODA 사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는 2012년 조사대상인 155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ITU, 2012),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 I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IT경쟁력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WEF, 20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홍보 및 마케팅은 다양한 하드웨어사업 못지않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에서 관광부문의 홍보 및 마케팅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강점인 IT산업을 기반으로 관광 ODA 사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을 관광부문 ODA사업에 참여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수원국의 관광부문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빈곤퇴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관광과 빈곤퇴치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학술계에서도 초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관광과 빈곤퇴치를 포괄하는 '빈곤퇴치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광과 빈곤에 대한 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광분야 원조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사업 선정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현

실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개별협력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장에 집중하는 접근법인데, 외부 개입을 통해 개도국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교만한 접근방법이라기보다, 우리의 목적 실현이 아닌 현장의 니즈를 받아들이는 ‘무지의 지(知)’ 자세를 일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2013:33). 본 연구에서 지표의 활용 방법을 현지사무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분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와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절대빈곤층에 대한 식수, 식량, 에너지 등 기초적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탐구되어야 한다. 좀 더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정립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적합한 관광부문 ODA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선정지표를 현지사무소, 지역주민 및 ODA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업선정 지표는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관광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광범위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원국의 다양한 현지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델파이분석을 통해 다섯 개의 평가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선정 지표 기준으로 나타난 지속가능성은 사업 종류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광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파악된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성과정 없이 ODA사업이 선정되고 발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국의 빈곤완화를 위해 최대한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ODA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관광부문의 ODA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콘텐츠 중심의 관광분야 ODA 사업모델은 효과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 사용되어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이 관광분야 ODA 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광 ODA 사업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를 발전시켜 사업선정 및 발굴 시, 또는 사업수행 및 관리 시 민간부문, 국제기구 및 타 산업분야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CBT와 같이 현재 빈곤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광개발의 실행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관광 ODA 사업수행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겸(1998).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0, 99-118.
- 강신겸(2007). 『농촌관광: 새로운 농촌활성화 전략』. 서울: 대왕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2011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김난영(2010). 책임관광에 대한 관광객 행동연구. 『관광연구논총』, 22(1), 3-24.
- 김남조·조광익(199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 김남조(2004).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관광현상 구성요소를 이용한 농촌관광정책의 방향. 『관광학연구』, 28(1), 263-281.
- 김남조(2005). 『농촌체험마을의 성과측정지표 및 체계적인 평가방법 개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김남조(2009).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관광의 연구과제 모색. 『관광학연구』, 33(4), 85-104.
- 김남조(2009). 저탄소 녹색관광을 추구하는 관광산업의 전략. 『사회과학논총』.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논문집, 28: 137-163.
- 김남조(2013). Rio+20,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제1차 관광분야 국제협력정책 포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TIC센터, 7월 24일).
- 김남조(2014). 관광과 개발: 잠재적 관광ODA 사업의 모색. 『국제개발협력』, 6(1), 83-109.
- 김남조·유기준(2010).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김남조·최석호·최승담(2007). 『네오투어리즘 이론체계 정립』. 서울: 한국관광공사.
- 김미옥·김민주. (2010).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접근방식-Pro-Poor Tourism. 『여가관광연구』, 15(단일호), 1-15.
- 김성일·박석희(2001). 『지속가능한 관광』. 서울: 일신사.
- 김철원·윤혜진(2007).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 : PPT(Pro-Poor Tourism)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pp.293-306).
- 김홍운(2008). 『관광자원론』. 서울: 형설출판사.
-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2). 『농촌·농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류선무(1998). 『농촌관광개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매일경제(2011.11.19.). 한국남 해외 성구매 심각, 법적 조치 필요.
- 미야자키 타케시 宮崎 猛 (2003). 『그린 투어리즘과 일본의 농촌』. 김범수·오미숙 역, 서울: 일신사.
- 밀브래스, L. W.(2001). 지속가능한 사회: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이해,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이태건·노병철·박지운). 경기도: 인간사랑.

- 박석희·정현영(2001). 농산촌 경관 및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경기대학교 논문집』, 45(1), 623-645.
- 박호균(2002). 농촌관광과 지원체계: 이스라엘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9(2), 161-171.
- 빈프리트, W.(1997). 여행의 역사: 오디세우스의 방랑에서 우주 여행까지, *Und Goethe War Nie in Griechenland : kleine Kulturgeschichte des Reise*(이민수). 서울: 효형출판.
- 신명석·서정태(2007). 슬로우 투어리즘(slow tourism)의 전망과 과제. 『관광연구저널』, 21(3), 23-38.
- 신용석(2013). 관광부문 ODA 확대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양영균(2009). 인류학적 현지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스포츠인류학연구』, 4(1), 1-35.
- 오익근(2011). 공정관광으로 가는 정책. 『한국관광정책』, 43(봄), 74-78.
- 유인혜·고동완(2009).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환경인식, 참여와 통합의 관계. 『관광학연구』, 33(1), 157-179.
- 윤여일(2010). 여행이 공정하다는 의미: 카트만두. 『여행의사고』, 17, 140-155.
- 윤주(2011). 개도국 관광발전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동욱(2011). 생태여행과 여성의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 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1), 41-73.
- 이동욱(2012). 네팔의 생태여행과 여성들의 관계, 우정, 연대: 쓰리시스터즈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5(1), 7-40.
- 이성웅. (1987). 텔파이 기술예측기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영진·송영민·윤지환(2012).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에 관한 담론: 관광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4), 35-57.
- 이원희(2011). 『볼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종성. (2001). 『텔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지선·강신겸(2010). 커뮤니티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2(2), 75-97.
- 이지훈·신창목·강희찬·도건우(2008). 신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임영신·이혜영(2010). 『희망을 여행하라』. 서울: 소나무.
- 임주환·김종은·양덕희 역(2001). 『지역발전의 접근과 지속가능한 관광』. 서울: 백산출판사.
- 정석중·이미혜(2002). 『관광개발론』. 서울: 대왕사.
- 조광익(2007). 『여가와 사회』. 서울: 일신사.
- 조명환·정선자(2012). 관광객의 가치와 공정관광 결과지각에 관한 연구: 윤리적 소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1), 91-114.

- 준, N., Yastami, S., Motoki, D., Masato, N.(2013).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開發を問い直す 轉換する世界と日本の國際協力*(최민경·이태주). 서울: 아르케.
- 중앙일보(2013.9.7.). 행복보다 돈...관광이란 이름의 불편한 진실.
- 최영희(2009). 관광학적 측면에서 자원봉사관광의 개념적 접근. 『관광연구논총』, 21(2), 21-38.
- 탐방보고서(2013. 2. 7.). 캄보디아 현지인 주도의 공정여행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공정여행 탐방: 반페이츠마/타트라브. 블로그<http://theseekers.asia/303>
- 한국관광학회(2009). 『55인의 관광학 전문인이 집필한 관광학총론』. 서울: 백산출판사.
- 한국수출입은행(2011 NOV). 『EDCF 평가매뉴얼』.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2012. 6. 13.). 우리 기업이 뚫는 유라시아 해저터널사업에 2억8천만달러 제공. 보도자료.
-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2012). 『숫자로 보는 ODA - 2012 우리나라 ODA 통계 자료집』.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기획본부.
- 홍연금(2009). 우리나라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사례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http://www.globalexchange.org/tours/SociallyConsciousTraveler.pdf>.
- Allen, R. L., Hafer, R. H., Long, T. P., & Perdue, R. R.(1993).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4), 27-33.
- Ashley, C., & Haysom, G.(2006). From philanthropy to a different way of doing business: strategies and challenges in integration pro-poor approaches into tourism business. *Development Southern Africa*, 23(2), 265-280.
- Ashley, C., Boyd, C., & Goodwin, H.(2000). Pro-Poor Tourism: Putting poverty at the heart of the tourism agenda, Natural Resource Perspective 51, London Development Institute.
- Ashley, C., Roe, D., & Goodwin, H. (2001). *Pro-Poor Tourism Strategies: Making Tourism Work for the Poor*(A review of experience). Pro-Poor Tourism Report (No. 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Blackstock, K.(2005). A critical look at community based tour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1), 39-49.
- Booyens, I.(2010). Rethinking township tourism: Towards Responsible Tourism development in South African townships. *Development Southern Africa*, 27(2), 273-287.
- Bricker, K. S., Black, R., & Cottrell, S. (Eds.). (2012). *Sustainable Tourism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Jones & Bartlett Publishers.

- Brightsmith, D. J., Stronza, A., & Holle, K.(2008). Ecotourism, conservation biology and volunteer tourism: A mutually beneficial triumvirate. *Biological Conservation*, 141, 2832–2842.
- Brohman, J. (1996). New directions in tourism for third world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48–70.
- Carbone, M.(2005). Sustainable tourism in developing countries: poverty alleviation, participatory planning, and ethical issues.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7(3), 559–565.
- Carne, A., & Matten, D. (2003). *Business Ethics: A European Perspective, Managing Corporate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k, S., Macbeth, J., & Warren, C.(2007). Tourism as a tool for poverty alleviation: a critical analysis of 'Pro-Poor Tourism' and implications for sustainability, *Current Issue in Tourism*, 10(2–3), 144–165).
- Cohen, E.(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371–386.
- Cravatte, C., & Chabloz, N.(2008). Enchantment and solidarity : Which dream does fair tourism' sell?. *Tourist Studies*, 8(2), 231–247.
- Darcy, S., & Dickson, T. (2009). A Whole-of-Life Approach to Tourism: The Case for Accessible Tourism Experience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16(1), 32–44.
- Dwyer, L., & Thomas, F.(2011). Tourism yield measures for cambodia, *Current Issues in Tourism*, 15(4), 303–328.
- Edgell, Sr., D. L. (2006). *Managing Sustainable Tourism: A Legacy for the Future*. New York, NY: The Haworth Hospitality Press.
- Ferguson, L.(2011).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women? Tourism and the third millennium development goal. *Current Issues in Tourism*, 14(3), 235–249.
- Global Exchange(2005). Be a Socially Responsible Traveler, Retrieved from
- Godfrey, K., & Clarke, J. (2000). *The Tourism Development Handbook: A Practical Approach to Planning and Marketing*. Thomson Learning.
- Goodwin, H., & Roe, D.(2001). Tourism, livelihoods and protected areas: Opportunities for Fair-trade Tourism in and around National Park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 377–391.
- Gunn, C. A.(1988). *Tourism Planning*. New York, NY: Taylor & Francis.

- Huizinga, J. (1968).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Beacon Press.
- ILO(2010).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the Hospitality and Tourism Sector*.
- Jasveen, K. R., Paul, F. J. E., & Heather, L. M.(2012) Volunteer tourism: its role in creating conservation awareness, *Journal of Ecotourism*, 11(1), 1–15.
- JICA(2012). 2012 *Annual Evaluation Report*. JICA.
- Klemm, M.(1992).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Languedoc–Roussillon thirty years on. *Tourism Management*, 13(2), 169–180.
- Lane, B.(1994). What is rural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2), 7–21.
- Lapeyre, R.(2011). The grootberg lodge partnership in Namibia: towards poverty alleviation and empowerment for long–term sustainability? *Current Issues in Tourism*, 14(3), 221–234.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1.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MacCannell, D.(1999).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thieson, A., & Wall, G.(1993).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NY: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Mbaiwa, J.(2011). The effects of tourism development on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Okavango Delta, Bostswana. *Current Issues in Tourism*, 14(3), 251–273.
- McGehee, N., & Santos, C.(2005). Social change, discourse and voluntee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3), 760–779.
- McIntosh, R. W., & Goeldner, C. R.(1990).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New York: John Wiley.
- Mitchell, J., & Ashley, C. (2007). Can tourism offer pro–poor pathways to prosperity? Examining evidence on the impact of tourism on poverty. *ODI Briefing Paper*, (22).
- Moskin, B., & Guettler, S.(1998). *State of Missouri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Plan*. Brainbridge Island, WA. Plans.
- Muhanna, E. (2007). Tourism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verty eliminat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in Management*, 5(1), 37–49.
- Murphy, E.(1985). *Tourism–A Community Approach*. Metheun & CO Publisher(Ltd).

- Nadkarni, S.(2008). Knowledge creation, retention, exchange, devolution, interpretation and treatment(K-CREDIT) as an economic growth driver in Pro-poor Tourism. *Current Issues in Tourism*, 11(5), 456–472.
- Novelli, M., & Gebhardt, K.(2007). Community based tourism in Namibia: ‘reality show’ or ‘window dressing’?, *Current Issues in Tourism*, 10(5), 443–479.
- Novelli, M., & Hellwig, A.(2011).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urism and development: the tour operators’ perspective, *Current Issues in Tourism*, 14(3), 205–220.
- OECD(1994).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in Rural Development*. Paris: OECD.
- Okoli, C., & Pawlowski, S. D. (2004). The Delphi method as a research tool: an example, design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 Management*, 42(1), 15–29.
- Owen, R. E., Witt, S. F., & Gammon, S.(1993). Sustainable tourism in Wales: from theory to practice. *Tourism Management*, 14(6), 463–474.
- Phommavong, S., & S rensson, E.(2012): Ethnic tourism in Lao PDR: gendered divisions of labour in community-based tourism for poverty reduct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1–13
- Poon, A.(2003). *Competitive Strategies for a ‘New Tourism’*. In Cooper, Chris(ed.) Classic Reviews in Tourism. Sydney: Channel View Publications.
- Resource Mobilization Information Digest(2013). ODA Assistance marked for biodiversity by New Zealand
- Scheyvens, R.(2007). Exploring the tourism–poverty nexus. *Current Issues in Tourism*, 10(2–3), 231–254.
- Scheyvens, R., & Russell, M.(2012). Tourism and poverty alleviation in Fiji: comparing the impacts of small-and large scale tourism enterprise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0(3), 417–436.
- Smith, V.L.(ed.)(1989). *Host and Guest: The Anthropology of Tourism*(2nd 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penceley, A., & Goodwin, H.(2007). Nature-based tourism and poverty alleviation: impacts of private sector and parastatal enterprises in and around kruger national part, south africa. *Current Issues in Tourism*, 10(2–3), 255–277.
- Stanton, M. E.(1989). The Polynesian Culture Center: A Multi Ethnic Model of Seven Pacific Culture. in Smith (ed.)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tone, L.(1989). *Cultural cross-road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A case from Nepal*. Human Organization, 48(3), 206–213.
- Strambach, S, & Surmeier, A. (2013) Knowledge dynamics in setting sustainable standards in tourism: the case of 'Fair Trade in Tourism South Africa', *Current Issues in Tourism*, 16(7–8), 736–752 Read More: <http://www.worldscientific.com/doi/abs/10.1142/S1464333205001955>
- Theerapappisit, P.(2009). Pro-poor ethnic tourism in the Mekong: A study of three approaches in Northern Thailand.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4(2), 201–221.
- Travel Impact Newswire(2014,2,6). Horwath Report Sees Myanmar Hotel Sector As "Most Profitable" <http://www.travel-impact-newswire.com/2014/02>
- UNWTO(2004). *Tourism and Poverty Alleviation - Recommendations for Action*. UNWTO.
- UNWTO(2011). *UNWTO Annual Report*. Madrid: UNWTO.
- UNWTO(2013). *World Tourism Barometer*.
- UNWTO, & UNEP(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Spain, Madrid:UNWTO.
-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ondon: Sage Publications.
- Van der Duim, V. R., & Caalders, J.(2011). Tourism chains and pro-poor tourism development: a actor-network analysis of a pilot project in Costa Rica. *Current Issues in Tourism*, 11(2), 109–125.
- Wearing, S. (2001). *Volunteer Tourism: Experiences That Make a Difference*. CABI Publishing.
- Wearing, S.(2008). Pro-poor tourism: Who benefits? perspectives on tourism and poverty redu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2), 616–618.
- Wearing, S., & McGehee, N.G.(2013). Volunteer tourism : A review. *Tourism Management*, 38, 120–130.
- Weaver, D.(2006). *Sustainable Tourism: Theory and Practice*. Burlington, MA: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 WEF(2014).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
- Wheeller, B.(1993). Sustaining the ego.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3(1), 29–44.
- Winters, P., Corral, L., & Mora, A. M.(2013). Assessing the role of tourism in poverty alleviation: a research agenda. *Development Policy Review*, 31(2), 177–202.
- Wood, R. E.(1984). Ethnic tourism, the state, and cultural change in South As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 353–354.

WTO(1982). *Adopts the Manila Declaration on World Tourism*. Manila: UNWTO.

WTO(199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Guide for local planners*. Madrid: WTO.

WTO(1996). *What Tourism Managers Need to Know: A Practical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dicators of Sustainable Tourism*. WTO.

WTTC(2011). *Business Travel: A Catalyst for Economic Performance*.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May 2011.

WTTC(2012). *The Comparative Economic Impact of Travel & Tourism*.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Nov 2012.

WTTC(2013). *The Comparative Economic Impact of Travel & Tourism*.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Oct 2013.

Zapata, M. J., Hall, C. M., Lindo, P., & Vanderschaeghe, M.(2011). Can community-based tourism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lessons from nicaragua. *Current Issues in Tourism*, 14(8), 725–749.

http://jordanmuseum.jo/en/about_us

<http://www.aid.govt.nz/>

<http://www.elephantnaturepark.org>

<http://www.fairtourism.org>.

<http://www.fair-travel.net>.

http://www.fj.emb-japan.go.jp/eco_corporation/fiji/GGP/2008/fiji_GGP2008_06_ho_pr.html

<http://www.iucnworldconservationcongress.org>

<http://www.jica.go.jp>

<http://www.jica.go.jp>

http://www.jordan.emb-japan.go.jp/eng_page/oda/en_tourism.htm

<http://www.koica.go.kr>

<http://www.koreaexim.go.kr>

http://www.namha-npa.org/info/ecotourism_in_int.htm

<http://www.unctad.org>

<http://www.unwto.org>

<http://www.weeklytrade.co.kr/>

www.ecotourismlaos.com

www.mcanamibia.org

www.oecd.org

<http://www.weforum.org/reports>

<https://www.itu.int/>

부록 1 : 1차 델파이 조사지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빈곤문제의 해결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개발정책이나 국제연합(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빈곤문제를 포함한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모색 중이며, 각 국가의 원조기관들은 관광을 통해 수원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빈국 50개국과 개도국에서 관광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등 생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원국의 지원을 위한 관광분야의 ODA사업은 실행에 앞서 타당성조사와 사전평가를 거쳐 최적의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수원국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원조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부문의 ODA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ODA사업은 제안된 사업의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 틀 속에서 관광부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즉, 본 설문은 관광부문 ODA사업을 선정 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최적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도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회에 응답한 내용은 다음 회에 반영되어 모든 응답자의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 델파이조사의 응답자는 KOICA 관련 연구원, 관광 관련 교수 및 연구원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본 1차 설문지는 12월 31일(화)까지 메일로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연구책임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김남조 교수

연구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박사과정 김현정, 안지현

※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연구원 : 010-9228-2548, hjhj2545@naver.com

- 안지현 연구원 : 010-5400-5941, jihyun016@naver.com

1. [관광ODA사업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

‘적절성’이란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질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적절하 지 않음	적절하 지 않음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수원국(수혜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1	2	3	4	5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1	2	3	4	5
3.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1	2	3	4	5
3-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1	2	3	4	5
3-2.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1	2	3	4	5
3-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1	2	3	4	5
3-4.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우수한가?	1	2	3	4	5
3-5. 대상지(국)의 계절성은 어떠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1	2	3	4	5
3-6. 주로 어떤 유형의 관광객이 방문하는가(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1	2	3	4	5
3-7.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1	2	3	4	5
4.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1	2	3	4	5
5.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지역사회)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6.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donor harmonization)?	1	2	3	4	5
7.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1	2	3	4	5
8.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9.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1	2	3	4	5
10. 관광ODA사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 기타의견 :					

2. [관광ODA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의견

‘효율성’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자원성공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질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가?	1	2	3	4	5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1	2	3	4	5
3.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1	2	3	4	5
4.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1	2	3	4	5
5.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예: 인프라 구축)에 비해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은가?	1	2	3	4	5
6.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1	2	3	4	5
7.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1	2	3	4	5
O 기타의견 :					

3. [관광ODA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

관광ODA 사업의 ‘효과성’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요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1	2	3	4	5
2.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1	2	3	4	5
3. 관광개발계획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가?	1	2	3	4	5
4.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1	2	3	4	5
4-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4-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4-3.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4-4. 산업기반시설(은행,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위생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4-5. 보건시설,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4-6.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4-7.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5.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1	2	3	4	5
5-1.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5-2. 홍보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1	2	3	4	5
6-1. 지역주민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1	2	3	4	5
6-2. 민간주체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1	2	3	4	5
6-3. 여행자 교육으로 이들의 인식이 제고되는가?	1	2	3	4	5
O 기타의견 :					

4. [관광ODA사업의 영향력]에 관한 의견

관광ODA 사업의 '영향력'이란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요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1	2	3	4	5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1	2	3	4	5
1-2. 법 및 관련계획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1	2	3	4	5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2-1.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2-3.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3. 관광ODA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고려되었는가?	1	2	3	4	5
4. 관광ODA사업에 환경주류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1	2	3	4	5
O 기타의견:					

5. [관광ODA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견

관광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요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	1	2	3	4	5
2.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1	2	3	4	5
3.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1	2	3	4	5
4.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1	2	3	4	5
5. 수원기관의 이행권한이 있는가?	1	2	3	4	5
6. 수원국의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1	2	3	4	5
7. 수원국의 인력을 확보되었는가?	1	2	3	4	5
8.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8-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8-2.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8-3.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9.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1	2	3	4	5
10.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가?	1	2	3	4	5
11.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1	2	3	4	5
O 기타의견 :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세
3. 귀하의 직업 및 전문분야(전공영역)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_____ 전문분야: _____
4.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동종분야에서 근속(연구/교육)년 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년
5. ODA 관련 연구나 프로젝트 참여 경력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5-1. ODA 관련 연구나 프로젝트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어떤 분야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연구 ② 현지프로젝트 ③ 평가 ④ 자문
⑤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 2차 델파이 조사지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협조 해 주신 1차 조사를 토대로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2차 설문항목은 1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적합도별 평균값 순을 고려하여 재구성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각 문항의 적합도 및 중요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연구책임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김남조 교수

연구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박사과정 김현정, 안지현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로 공공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불린다. 즉,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을 뜻한다.

<지난 1차 델파이 설문결과>

적절성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수원국(수혜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4.09	4	.750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4.05	4	.844
3.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4.25	4	.639
3-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4.27	4	.550
3-2.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4.32	4	.477
3-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4.27	4	.550
3-4.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우수한가?	3.73	4	.985
3-5. 대상지(국)의 계절성은 어떠하며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3.55	3	.671
3-6. 주로 어떤 유형의 관광객이 방문하는가(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3.71	3	.717
3-7.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3.41	4	1.008
4.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4.00	4	.816
5.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지역사회)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4.23	4	.813
6.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donor harmonization)?	3.86	4	.774
7.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4.14	4	.710
8.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4.50	5	.740
9.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4.18	4	.733
10. 관광ODA사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3.68	4	.646

효율성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대비산출)이 높은가?	4.09	5	1.065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3	4	.612
3.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3	4	.685
4.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09	4	.750
5.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예:인프라구축)에 비해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은가?	3.82	4	.853
6.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3.95	4	.999
7.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4.05	4	.722

효과성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3.59	4	.854
2.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4.36	5	.727
3. 관광개발계획이공여국과수원국간의관계에신뢰성을향상시킬것으로보는가?	3.91	4	.868
4.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4.23	5	.813
4-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27	4	.631
4-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86	4	.834
4-3.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64	3	.790
4-4. 산업기반시설(은행,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위생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59	4	.959
4-5. 보건시설,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가?	3.45	4	1.057
4-6.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3.82	3	.795
4-7.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82	4	.733
5.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3.95	4	.575
5-1.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3.86	4	.560
5-2. 홍보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3.77	4	.612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4.05	5	.844
6-1. 지역주민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4.05	4	.785
6-2. 민간주체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3.91	4	.750
6-3. 여행자 교육으로 이들의 인식이 제고되는가?	3.45	3	.671

영향력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05	4	.785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00	4	.816
1-2. 법 및 관련계획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3.95	4	.785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00	4	.690
2-1.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77	4	.685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95	4	.722
2-3.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05	4	.722
3. 관광ODA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고려되었는가?	3.55	3	.963
4. 관광ODA사업에 환경주요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3.73	4	.827

지속성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	4.36	5	.848
2.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3.91	4	.868
3.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3.91	4	.750
4.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4.14	4	.774
5. 수원기관이 이행권한이 있는가?	4.05	4	.722
6. 수원국의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4.09	4	.811
7. 수원국의 인력을 확보되었는가?	4.14	4	.834
8. 수원국은핵심적인이해관계자및지역사회에대한역량강화를포함하고있는가?	4.14	4	.834
8-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4	5	.889
8-2.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3.86	4	.774
8-3.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3.95	4	.785
9.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3.91	4	.868
10.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가?	4.00	4	.976
11.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4.09	4	.811

<1차 델파이 평균치 내림차순 결과>

‘적절성’ 지표에 대한 적합성 평가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4.50	5	.740
2.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4.25	4	.639
2-1.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4.32	4	.477
2-2.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4.27	4	.550
2-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4.27	4	.550
2-4.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우수한가?	3.73	4	.985
2-5. 주로 어떤 유형의 관광객이 방문하는가(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3.71	3	.717
2-6. 대상지(국)의 계절성은 어떠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3.55	3	.671
2-7.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3.41	4	1.008
3.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지역사회)의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4.23	4	.813
4. 관광ODA사업과 타 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4.18	4	.733
5.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4.14	4	.710
6. 수원국(수혜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4.09	4	.750
7.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4.05	4	.844
8.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4.00	4	.816
9.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donor harmonization)?	3.86	4	.774
10. 관광ODA사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3.68	4	.646

‘효율성’ 지표에 대한 적합성 평가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3	4	.612
2.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3	4	.685
3.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대비산출)이 높은가?	4.09	5	1.065
4.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09	4	.750
5.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4.05	4	.722
6.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3.95	4	.999
7.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예: 인프라구축)에 비해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은가?	3.82	4	.853

‘효과성’ 지표에 대한 적합성 평가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4.36	5	.727
2.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4.23	5	.813
2-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27	4	.631
2-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86	4	.834
2-3.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3.82	3	.795
2-4.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82	4	.733
2-5.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64	3	.790
2-6. 산업기반시설(은행,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위생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59	4	.959
2-7. 보건시설,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가?	3.45	4	1.057
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4.05	5	.844
3-1. 지역주민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4.05	4	.785
3-2. 민간주체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3.91	4	.750
3-3. 여행자 교육으로 이들의 인식이 제고되는가?	3.45	3	.671
4.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3.95	4	.575
4-1. 마케팅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하는가?	3.86	4	.560
4-2. 홍보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하는가?	3.77	4	.612
5. 관광개발계획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가?	3.91	4	.868
6.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3.59	4	.854

‘영향력’ 지표에 대한 적합성 평가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05	4	.785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00	4	.816
1-2. 법 및 관련계획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3.95	4	.785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00	4	.690
2-1.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05	4	.722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95	4	.722
2-3.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77	4	.685
3. 관광ODA사업에 환경주류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3.73	4	.827
4. 관광ODA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고려되었는가?	3.55	3	.963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적합성 평가	평균	최빈값	표준편차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	4.36	5	.848
2.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4.14	4	.774
3. 수원국의 인력을 확보되었는가?	4.14	4	.834
4. 수원국은핵심적인이해관계자및지역사회에대한역량강화를포함하고있는가?	4.14	4	.834
4-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4	5	.889
4-2.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3.95	4	.785
4-3.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3.86	4	.774
5. 수원국의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4.09	4	.811
6.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4.09	4	.811
7. 수원기관의 이행권한이 있는가?	4.05	4	.722
8.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가?	4.00	4	.976
9.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3.91	4	.868
10.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3.91	4	.750
11.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3.91	4	.868

1. [관광ODA사업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

‘적절성’이란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질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수원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1	2	3	4	5
2.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1	2	3	4	5
2-1. 한국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부합하는가?	1	2	3	4	5
3. 수원국에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	2	3	4	5
3-1. 관광ODA사업이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가?	1	2	3	4	5
3-2.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개발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부합하는가?	1	2	3	4	5
4.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가?	1	2	3	4	5
4-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1	2	3	4	5
4-2.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1	2	3	4	5
4-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1	2	3	4	5
4-4.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우수한가?	1	2	3	4	5
4-5. 대상지(국)의 계절성은 어떠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1	2	3	4	5
4-6. 인근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과 비교하여 관광지으로써 성장성(경쟁력, 독립성, 보완성)은 어떠한가?	1	2	3	4	5
4-7.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1	2	3	4	5
5.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지역사회)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6.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donor harmonization)?	1	2	3	4	5
7.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1	2	3	4	5
7-1. 시행기관의 역할, 지위,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1	2	3	4	5
7-2. 외부자원(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의존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7-3. 재원조달(자체노력, 정부간 관계, 조세, 기금 등)접근은 어떠한가?	1	2	3	4	5
7-4. 투자계획(해외자본유치, 민간유치, 공공재원조달, 대안별사업성비교, 유형별투자배분 등)은 어떠한가?	1	2	3	4	5
8.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9.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1	2	3	4	5
10. 관광ODA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현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O 기타의견 :					

2. [관광ODA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의견

‘효율성’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자원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질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적절하 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가?	1	2	3	4	5
1-1.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1	2	3	4	5
1-2.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1	2	3	4	5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1	2	3	4	5
3.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1	2	3	4	5
4.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1	2	3	4	5
5.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예: 인프라 구축)에 비해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은가?	1	2	3	4	5

6. 관광ODA사업이 타산업과의 협력 및 사업연계성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가?	1	2	3	4	5
7.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1	2	3	4	5
7-1.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있는가?	1	2	3	4	5
7-2. 수원국 주민-정부 간 해당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는가?	1	2	3	4	5
7-3. 사업 수행 시 사업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이해관계자는 없는가?	1	2	3	4	5
7-4.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그룹(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하고 있는가?	1	2	3	4	5
8. 관광ODA사업추진에 있어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사용하였는가?	1	2	3	4	5
9.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1	2	3	4	5
O 기타의견 :					

3. [관광ODA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

관광ODA 사업의 ‘효과성’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요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적절하 지 않음	적절하 지 않음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1	2	3	4	5
2.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중·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1	2	3	4	5

3.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외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1	2	3	4	5
4.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1	2	3	4	5
5. 관광개발계획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가?	1	2	3	4	5
6.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1	2	3	4	5
6-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6-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6-3.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6-4. 산업기반시설(은행,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위생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6-5. 보건시설,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6-6.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6-7.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7.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1	2	3	4	5
7-1.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7-2. 홍보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1	2	3	4	5
8.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1	2	3	4	5
8-1. 지역주민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1	2	3	4	5
8-2. 민간주체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1	2	3	4	5
8-3. 여행자 교육으로 이들의 인식이 제고되는가?	1	2	3	4	5
8-4. 관광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가?	1	2	3	4	5
○ 기타의견 :					

4. [관광ODA사업의 영향력]에 관한 의견

관광ODA 사업의 ‘영향력’이란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요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1	2	3	4	5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1	2	3	4	5
1-2. 법 및 관련계획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1	2	3	4	5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2-1.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2-3.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3. 관광ODA사업에 성평등 관점(여성의 고용비율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이 고려되었는가?	1	2	3	4	5
4. 관광ODA사업에 환경주류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1	2	3	4	5
4-1. 관광지 수용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가?	1	2	3	4	5
4-2. 문화 및 역사유적지의 손상정도를 고려하고 있는가?	1	2	3	4	5
4-3. 오염처리(대기, 수질, 소음수준, 쓰레기 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1	2	3	4	5
5.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단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	1	2	3	4	5
6.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	1	2	3	4	5
O 기타의견:					

5. [관광ODA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견

관광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은 관광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요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에는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요인 및 관련된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	1	2	3	4	5
1-1.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가?	1	2	3	4	5
1-2. 관리기관 및 시스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1	2	3	4	5
2.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1	2	3	4	5
2-1.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1	2	3	4	5
2-2.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1	2	3	4	5
2-3. 수원기관이 이행권한이 있는가?	1	2	3	4	5
2-4. 수원국의 예산투입은 확보되었는가?	1	2	3	4	5
2-5.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투입을 위한 철저한 계획 및 운영전략이 수립되었는가?	1	2	3	4	5
2-6. 수원국의 인력은 확보되었는가?	1	2	3	4	5
3.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3-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3-2.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3-3.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4.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1	2	3	4	5
4-1. 세부적인 관광계획별 기간이 적합한가?	1	2	3	4	5
4-2. 적절한 출구전략은 있는가?	1	2	3	4	5
5.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가?	1	2	3	4	5
6.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1	2	3	4	5
O 기타의견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 항목 제거 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1. 적절성

항 목	평균	최빈값	표준 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수원국에 대한 관광ODA사업의 지원명분이 있는가?	4.19	4	0.680	4	5	1	0.71
2. 관광ODA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4.05	4	0.805	4	5	1	0.62
2-1. 한국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우선순 위 정책에 부합하는가?	4.10	4	0.831	4	5	1	0.62
3. 수원국에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가?	3.68	4	0.749	3	4	1	0.14
3-1. 관광ODA사업이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가?	4.15	4	0.671	4	5	1	0.62
3-2.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 개발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부합하는가?	4.05	4	0.605	4	4	0	0.62
4. 관광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대상지의 관광잠재력이 전반 적으로 우수한가?	4.19	4	0.602	4	5	1	0.81
4-1. 관광지로서 자연자원(산, 계곡, 폭포, 강 동식물 등)이 우수한가?	4.24	4	0.539	4	5	1	0.90
4-2.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자원(유형 및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우수한가?	4.14	4	0.655	4	5	1	0.71
4-3. 관광지로서 인문관광자원(소수민족, 고유문화, 마을, 축제, 음 식, 기념품 등)이 우수한가?	4.05	4	0.590	4	4	1	0.71
4-4.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우수한가?	3.76	4	0.768	3	4	1	0.33
4-5. 대상지(국)의 계절성은 어떠하며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 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3.38	3	0.590	3	4	1	-0.33
4-6. 인근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과 비교하여 관광지로서 시 장성(경쟁력, 독립성, 보완성)은 어떠한가?	3.76	4	0.625	3	4	1	0.33
4-7.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3.24	3	0.768	3	4	1	-0.33
5.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지역사회)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4.10	4	0.889	3.50	5	1.5	0.52
6. 관광ODA사업에 참여하는 기부자들 간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donor harmonization)?	3.81	4	0.602	3	4	1	0.43
7. 관광ODA사업을 담당할 수원국 사업수행부처 및 기관이 적절한가?	4.10	4	0.700	4	4.50	0.50	0.81
7-1. 시행기관의 역할, 지위,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4.05	4	0.759	4	4.75	0.75	0.62
7-2. 외부자원(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의존도는 어떠한가?	3.90	4	0.718	4	4	0	0.52
7-3. 재원조달(자체노력, 정부간 관계, 조세, 기금 등)접근은 어떠한가?	3.85	4	0.933	3	4.75	1.75	0.33
7-4. 투자계획(해외자본유치, 민간유치, 공공재원조달, 대안별사업 성비교, 유형별투자배분 등)은 어떠한가?	3.85	4	0.813	3	4	1	0.33
8. 관광ODA사업이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 떠한가?	4.62	5	0.590	4	5	1	0.90
9. 관광ODA사업과 타사업(타공여국)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4.14	4	0.655	4	5	1	0.71
10. 관광ODA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현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떠한가?	4.05	4	0.498	4	4	0	0.81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2. 효율성

항 목	평균	최빈값	표준 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가?	4.19	4	0.750	4	5	1	0.81
1-1.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3.65	4	<u>1.040</u>	3	4	1	<u>0.14</u>
1-2.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	4.25	4	0.716	4	5	1	0.81
2.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00	4	0.562	4	4	0	0.62
3.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문화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5	4	0.550	4	5	1	0.81
4.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에 비해 환경적 효율성(투입에 비해 산출의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이 높은가?	4.20	4	0.696	4	5	1	0.62
5. 관광ODA사업이 타사업(예: 인프라 구축)에 비해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은가?	3.80	4	0.696	3	4	1	<u>0.24</u>
6. 관광ODA사업이 타산업과의 협력 및 사업연계성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가?	3.85	4	0.813	3	4	1	<u>0.33</u>
7. 관광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은 좋은가?	4.19	4	0.602	4	5	1	0.81
7-1.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있는가?	4.20	4	0.616	4	5	1	0.71
7-2. 수원국 주민-정부 간 해당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는가?	4.15	4	0.671	4	5	1	0.62
7-3. 사업 수행 시 사업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이해관계자는 없는가?	4	4	0.725	3.25	4.75	<u>1.50</u>	0.43
7-4.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그룹(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하고 있는가?	3.95	3 ^a	0.826	3	5	<u>2</u>	<u>0.24</u>
8. 관광ODA사업추진에 있어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사용하였는가?	4.10	4	0.641	4	4.75	0.75	0.62
9. 관광ODA사업의 수행과정 상의 효율성이 높은가?	4.00	4	0.632	4	4	0	0.62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3. 효과성

항 목	평균	최빈값	표준 편차	Q ₁ ^a	Q ₃ ^b	Q ₃₋₁ ^c	cvr
1.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3.95	4	0.740	4	4	0	0.62
2.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중·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4.50	5	0.607	4	5	1	0.81
3.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지역사회)에 외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4.30	4	0.657	4	5	1	0.71
4. 수원국의 빈곤퇴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4.62	5	0.590	4	5	1	0.90
5. 관광개발계획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가?	4.05	4	0.740	3.50	5	<u>1.5</u>	0.52
6.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사회의 삶의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4.33	4	0.658	4	5	1	0.81
6-1. 관광시설(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기념품점,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교육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10	4	0.700	4	5	1	0.62
6-2. 도로 및 공항,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00	4	0.632	4	4	0	0.62
6-3.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62	4	0.669	3	4	1	<u>0.24</u>
6-4. 산업기반시설(은행,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위생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3.71	4	0.717	3	4	1	<u>0.33</u>
6-5. 보건시설,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가?	<u>3.45</u>	3	0.686	3	4	1	<u>-0.14</u>
6-6. 관광지내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는가?	3.86	4	0.478	4	4	0	0.62
6-7. 지역주민 관련 시설의 구축에 기여하는가?	4.10	4	0.831	4	5	1	0.81
7. 관광개발계획이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	4.19	4	0.750	4	5	1	0.62
7-1. 마케팅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4.05	4	0.669	4	4.50	0.50	0.62
7-2. 홍보 전략이 수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3.95	4	0.686	3.25	4	0.75	0.43
8.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4.05	4	0.921	4	5	1	<u>0.14</u>
8-1. 지역주민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3.95	4	0.921	3.50	5	<u>1.50</u>	0.52
8-2. 민간주체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는가?	<u>3.43</u>	3	0.870	3	4	1	0.52
8-3. 여행자 교육으로 이들의 인식이 제고되는가?	<u>3.43</u>	3	0.870	3	4	1	<u>-0.24</u>
8-4. 관광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가?	4.16	4	0.688	4	5	1	0.52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4. 영향력

항 목	평균	최빈값	표준 편차	Q ₁ ^a	Q ₃ ^b	Q ₃₋₁ ^c	cvr
1.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14	4	0.793	4	5	1	0.71
1-1. 운영, 관리주체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14	4	0.793	4	5	1	0.71
1-2. 법 및 관련계획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겠는가?	4.14	4	0.655	4	5	1	0.71
2. 관광ODA사업달성 후 수원국에 미치는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14	4	0.727	4	5	1	0.81
2-1. 경제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10	4	0.768	4	5	1	0.71
2-2.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95	4	0.805	3.50	4.50	1	0.52
2-3. 환경적 위험요인 및 관리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10	4	0.768	4	5	1	0.71
3. 관광ODA사업에 성평등 관점(여성의 고용비율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이 고려되었는가?	3.67	4	0.796	3	4	1	<u>0.14</u>
4. 관광ODA사업에 환경주류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3.95	4	0.805	3	5	<u>2</u>	<u>0.33</u>
4-1. 관광지 수용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가?	3.95	3 ^a	0.826	3	5	<u>2</u>	<u>0.24</u>
4-2. 문화 및 역사유적지의 손상정도를 고려하고 있는가?	4.05	4	0.759	3.25	5	<u>1.75</u>	0.43
4-3. 오염처리(대기, 수질, 소음수준, 쓰레기 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3.95	4	0.686	3.25	4	0.75	0.43
5.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단기적 성과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4.10	4	0.788	4	5	1	0.62
6. 관광ODA사업수행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4.45	5	0.605	4	5	1	0.81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5. 지속가능성

항 목	평균	최빈값	표준 편차	Q ^a ₁	Q ^b ₃	Q ^c ₃₋₁	cvr
1. 관광ODA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및 사후방안 등의 구축이 되어있는가?	4.57	5	0.811	4	5	1	0.81
1-1.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가?	4.15	5	<u>1.040</u>	3.25	5	<u>1.75</u>	0.43
1-2. 관리기관 및 시스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4.35	5	0.875	4	5	1	0.62
2.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4.10	4	0.700	4	5	1	0.62
2-1. 수원국의 법/제도는 마련되었는가?	4.05	4	0.669	4	4.50	0.50	0.52
2-2.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있는가?	3.95	4	0.669	3.50	4	0.20	0.62
2-3. 수원기관의 이행권한이 있는가?	4.14	4	0.727	4	5	1	0.62
2-4. 수원국의 예산투입은 확보되었는가?	4.19	4	0.680	4	5	1	0.71
2-5.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투입을 위한 철저한 계획 및 운영전략이 수립되었는가?	4.15	4	0.671	4	5	1	0.62
2-6. 수원국의 인력은 확보되었는가?	4.05	4	0.669	4	4.50	0.50	0.62
3. 수원국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9	4	0.814	4	5	1	0.71
3-1. 자체 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24	4 ^a	0.831	4	5	1	0.71
3-2. 기술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14	4	0.793	4	5	1	0.71
3-3. 자체 운영가능모델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4.05	4	0.805	4	5	1	0.62
4. 기술이전 및 시범운영 등 운영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한가?	4.14	4	0.655	4	5	1	0.71
4-1. 세부적인 관광계획별 기간이 적합한가?	3.90	4	0.641	3.25	4	0.75	0.43
4-2. 적절한 출구전략은 있는가?	4.00	5	0.973	3	5	<u>2</u>	<u>0.24</u>
5. 사업종료 후 지원결과물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적정 수요가 있는가?	4.10	5	0.944	3	5	<u>2</u>	0.43
6.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는가?	4.10	4	0.700	4	5	1	0.62

-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중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부록 4 : 잠재적인 관광 ODA사업 추진기관

사업자	주요 사업 및 연구내용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2005년 이후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ODA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http://www.mcst.go.kr/main.jsp
한국관광공사 (KTO)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글로벌관광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관광개발에서부터 관광마케팅, 관광투자유치까지 통합관광컨설팅을 추진함	http://kto.visitkorea.or.kr/kor.kt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 및 관광부문의 R&D 기관으로 문화관광정책, 문화관광지식 정보창출, 문화관광산업 지원핵심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국제협력 및 교류 기관	http://www.kcti.re.kr/01_3.dmj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KDI CID)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담당전문 부서로, CID는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컨설팅 사업인 KSPI(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를 시행하고 있음	http://www.kdi.re.kr/about/organization.jsp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정부개발원조(ODA) 관련연구 및 관련부대사업을 실시하며,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ODA 프로젝트 사업의 사전조사, 시행(PM)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 및 사업분야는 보건의료, 농촌개발, 해외봉사단, 교육, 행정제도 등이 있음	http://kidi-oda.re.kr/main/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세계 개발도상국 및 국내 정부, 민간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컨설팅, 연구 및 연구 서비스 제공)	http://www.kds.re.kr/subpage202_kor.php
(주)다누림	해외토지분양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토목엔지니어링, 외자 및 민자유치사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컨설팅 내 조사,설계, 분석, 자문을 담당함 현재, 캄보디아 유니타이드 인터네셔널 투어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리조트 개발사업을 착수함	http://www.danulim.com/
한진칼	지주사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브랜드 및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부동산 임대업, 관광사업, 호텔업등	www.hanjinkal.co.kr
(주)한국관광인력개발원	여행사실무,여행사취업,여행사창업,여행상품기획, 관광문화마케팅,서비스교육 등 관련 교육컨설팅	www.kthdc.com
한국관광서비스평가원	서비스품질모니터링, 호텔서비스 및 창업 컨설팅, 교육, 아카데미 정보 등 제공.	http://www.ktsec.org/
한국관광평가연구원	문화관광 진흥 정책 지원 - 문화관광 정책평가(정부, 지자체, 사업체 등) 및 국제수준의 등급 제도화 - 국제교류 지원 / 국내외 공인자격증 인증 및 관리 - 문화관광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세미나, 문화관광 자원 및 상품 개발 - 자연/문화/사회/산업 등 각 분야의 문화관광 자원 및 상품 개발 - 문화관광 산업 컨설팅 - 문화관광 사업 지원	www.kher.re.kr/
지역사회관광네트워크	농촌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	http://www.cbtnetwork.co.kr/
(주) 메모리얼	문화관광 전문업체, 자원개발, 기획, 컨설팅 등	http://www.akka.kr/
(주) 미래엔바이런	자연환경 및 기후변화 기획연구, 생태관광디자인 Enforcement,	www.miren.co.kr
스나오	여행컨설팅 전문업체, 관광상품기획 및 개발, 홍보물 제작, 관광객유치 등	http://www.sunaoCorp.com/
농촌개발아카데미	농촌 컨설팅 전문업체, 마을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관광 홍보대행 등 서비스	http://www.nongchona.com/
맘키드크래프트	공예문화 관광기념품 디자인개발, 공예 문화상품 제조 및 판매	www.momkid.co.k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건의 프로젝트 사업, 1만여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만여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KOICA ODA연구팀(ODA Research Team)

KOICA ODA연구팀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ODA연구팀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ODA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조화시킨 바람직한 개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ODA연구팀은 그동안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를 선진화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KOICA 연구보고서

- KOICA 주요 다자협력 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연구
-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 다자기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 멀티바이와 양자사업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수행체계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제발전이론의 변천과 원조 전략 : 경제적 관점에서 KOICA의 향후 연구 제안
- 개도국 청년고용정책과 ODA :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형성 논의를 중심으로
- 초·중등 교육분야 ODA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 KOICA 성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
- 타 해외 원조기관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체계연구
-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 모델 연구
- 개발도상국 선거제도 지원 ODA연구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KOICA 사업 적용을 위한 타 기관 사례 연구
- 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 DFID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 가족계획 및 생식보건 ODA 프로그램 현황 연구
- 교육분야 ODA 성과측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PDM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 한국 보건의료 무상 ODA의 협업방안에 관한 연구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방안
- 한국적 개발 모델의 교훈 : 효과적 개발 협력과 제도-정책 시너지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역량강화활동 평가 가이드라인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국제개발 질적 평가 매뉴얼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최종보고서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세부전략 매뉴얼
-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평가방안 연구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1호
-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동향 :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과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 글로벌 CSR 사례집
- 국제 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모형 구축과 콘텐츠 개발

개발과 이슈

[8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와 합의

[9호]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와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

[10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11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논의 동향과 전망 : 새마을운동 ODA 정책과 사업 전략 형성을 위한 시사점

[12호] 모두를 위한 품위 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사무총장 보고서

[13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사업 사례 연구 : 새마을 운동 ODA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

[2014-1]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 The Prospect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연구자료 ODA연구 2014-07-105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KOICA 사업모델 발굴 발행

발 행 2014년 5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척수협회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11-B260003-000380-01

ISBN 978-89-6469-238-793320